

연구보고서 2019-16

생애과정 관점의 수요자 중심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정세정
김형용 · 송나경 · 최권호 · 최보라 · 강예은 · 최준영

【책임연구자】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공저)
소득분배 동향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공동연구진】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
송나경 동명대학교 교수
최권호 경북대학교 교수
최보라 수원대학교 교수
강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최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16

**생애과정 관점의 수요자 중심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발행일 2019년 12월
저자 정세정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ISBN 978-89-6827-637-8 93330

발간사 <<

이 연구는 청년들이 지나온 시간 속에서 겪은 불리(disadvantage)의 경험에 주목하였다. 청년들은 청년기라는 시점에서 공통으로 직면하는 문제뿐 아니라, 세대 내에서 각기 다른 다차원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세대 간과 세대 내를 교차하며 서로 다른 출발선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에는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또한 생애주기에 따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서비스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점검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틀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지원정책을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을 가능케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근거는 삶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현재의 청년 삶의 전반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불안정한 삶의 발생 근원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청년 불평등의 핵심을 살펴보고 현재의 청년정책들이 어떤 맥락들을 놓치고 있는지, 청년정책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양적·질적 차원에서 여러 불리의 경험과 청년들의 삶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살피고 있어 청년 문제를 이해하고 청년지원정책을 구축하는 데 유용하리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정세정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 송나경 동명대학교 교수, 최권호 경북대학교 교수, 최보라 수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원내의 최준영 연구원과 강예은 연구원이 공동 연구진으로 함께 참여하였다. 또한, 주은수 울산대학교 교수와 원내 김태

완 연구위원은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전문적 고견과 통찰을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심층인터뷰를 위해 자신들의 시간과 경험을 기꺼이 공유해 준 청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연구가 청년들의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연구의 결과와 정책적 제언은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며 연구진의 개별 의견을 밝혀 둔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18
제2장 이론적 배경	23
제1절 생애과정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	25
제2절 선행연구 고찰	30
제3절 청년정책의 동향과 쟁점	48
제4절 소결	67
제3장 불리의 경험과 청년의 삶: 양적 분석	71
제1절 개요	73
제2절 분석 방법	74
제3절 분석 결과	81
제4절 소결	125
제4장 불리의 경험과 청년의 삶: 질적 분석	129
제1절 개요 및 분석 방법	131
제2절 분석 결과	135
제3절 소결	248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59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261
제2절 정책 제언	265
참고문헌	279

표 목차

〈표 2-2-1〉 주요 국가의 청년 니트(NEET) 비중	40
〈표 2-2-2〉 성별 학력별 청년 취업자의 임금 수준	43
〈표 2-2-3〉 성·연령별 자살자 수 및 자살률 추이(2008-2018년)	44
〈표 2-3-1〉 문재인 정부 청년고용촉진정책의 구체적 내용	52
〈표 2-3-2〉 청년고용지원 예산의 현황	52
〈표 2-3-3〉 공적임대주택 25만 실(연 5만) 공급 및 기숙사 5만 명 지원	59
〈표 3-2-1〉 청년의 삶: 교육, 고용, 소득, 건강의 측정	78
〈표 3-2-2〉 불리 경험	80
〈표 3-2-3〉 연령별 분석 내용	81
〈표 3-3-1〉 주요 특성	83
〈표 3-3-2〉 19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빈곤 경험	84
〈표 3-3-3〉 24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빈곤 경험	85
〈표 3-3-4〉 29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빈곤 경험	85
〈표 3-3-5〉 빈곤 경험_19세	85
〈표 3-3-6〉 빈곤 경험_24세	86
〈표 3-3-7〉 빈곤 경험_29세	86
〈표 3-3-8〉 빈곤 경험 기간	87
〈표 3-3-9〉 세부 생애과정별 빈곤 경험 기간_19세	88
〈표 3-3-10〉 세부 생애과정별 빈곤 경험 기간_24세	88
〈표 3-3-11〉 세부 생애과정별 빈곤 경험 기간_29세	89
〈표 3-3-12〉 19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가구주 실업 경험	89
〈표 3-3-13〉 24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가구주 실업 경험	89
〈표 3-3-14〉 29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가구주 실업 경험	90
〈표 3-3-15〉 가구주 실업 경험_19세	90
〈표 3-3-16〉 가구주 실업 경험_24세	91
〈표 3-3-17〉 가구주 실업 경험_29세	91

〈표 3-3-18〉 19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	92
〈표 3-3-19〉 24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	92
〈표 3-3-20〉 29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	92
〈표 3-3-21〉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_19세	93
〈표 3-3-22〉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_24세	93
〈표 3-3-23〉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_29세	93
〈표 3-3-24〉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 기간_19세	94
〈표 3-3-25〉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 기간_24세	94
〈표 3-3-26〉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 기간_29세	95
〈표 3-3-27〉 19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주거비 과부담 경험	95
〈표 3-3-28〉 24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주거비 과부담 경험	96
〈표 3-3-29〉 29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주거비 과부담 경험	96
〈표 3-3-30〉 주거비 과부담 경험_19세	96
〈표 3-3-31〉 주거비 과부담 경험_24세	97
〈표 3-3-32〉 주거비 과부담 경험_29세	97
〈표 3-3-33〉 빈곤 경험 기간과 학력_19세	98
〈표 3-3-34〉 빈곤 경험 기간과 학력_24세	99
〈표 3-3-35〉 가구주 실업 경험과 학력_19세	100
〈표 3-3-36〉 가구주 실업 경험과 학력_24세	100
〈표 3-3-37〉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과 학력_19세	101
〈표 3-3-38〉 주거비 과부담 경험과 학력_19세	102
〈표 3-3-39〉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과 학력_24세	102
〈표 3-3-40〉 주거비 과부담 경험과 학력_24세	103
〈표 3-3-41〉 아버지 최종 학력과 청년의 학력_19세	104
〈표 3-3-42〉 어머니 최종 학력과 청년의 학력_19세	104
〈표 3-3-43〉 아버지 최종 학력과 청년의 학력_24세	104
〈표 3-3-44〉 어머니 최종 학력과 청년의 학력_24세	105
〈표 3-3-45〉 빈곤 경험과 고용 상태_24세	106

〈표 3-3-46〉 빈곤 경험과 고용 상태_29세	107
〈표 3-3-47〉 빈곤 경험과 고용 형태_24세	108
〈표 3-3-48〉 빈곤 경험과 고용 형태_29세	108
〈표 3-3-49〉 가구주 실업 경험과 고용 상태_24세	109
〈표 3-3-50〉 가구주 실업 경험과 고용 상태_29세	109
〈표 3-3-51〉 가구주 실업 경험과 고용 형태_24세	110
〈표 3-3-52〉 가구주 실업 경험과 고용 형태_29세	110
〈표 3-3-53〉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과 고용 상태_24세	111
〈표 3-3-54〉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과 고용 형태_24세	112
〈표 3-3-55〉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과 고용 상태_29세	112
〈표 3-3-56〉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과 고용 형태_29세	112
〈표 3-3-57〉 주거비 과부담 경험과 고용 상태_24세	113
〈표 3-3-58〉 주거비 과부담 경험과 고용 형태_24세	113
〈표 3-3-59〉 주거비 과부담 경험과 고용 상태_29세	114
〈표 3-3-60〉 주거비 과부담 경험과 고용 형태_29세	114
〈표 3-3-61〉 빈곤 경험과 소득 수준_24세	115
〈표 3-3-62〉 빈곤 경험과 소득 수준_29세	115
〈표 3-3-63〉 가구주 실업 경험과 소득 수준_24세	116
〈표 3-3-64〉 가구주 실업 경험과 소득 수준_29세	116
〈표 3-3-65〉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과 소득 수준_24세	117
〈표 3-3-66〉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과 소득 수준_29세	117
〈표 3-3-67〉 주거비 과부담 경험과 소득 수준_24세	118
〈표 3-3-68〉 주거비 과부담 경험과 소득 수준_29세	118
〈표 3-3-69〉 본인의 고용 형태와 소득 수준	119
〈표 3-3-70〉 빈곤 경험과 우울 수준_19세	120
〈표 3-3-71〉 빈곤 경험과 우울 수준_24세	120
〈표 3-3-72〉 빈곤 경험과 우울 수준_29세	120
〈표 3-3-73〉 가구주 실업 경험과 우울 수준_19세	121

〈표 3-3-74〉 가구주 실업 경험과 우울 수준_24세	121
〈표 3-3-75〉 가구주 실업 경험과 우울 수준_29세	122
〈표 3-3-76〉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과 우울 수준_19세	123
〈표 3-3-77〉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과 우울 수준_24세	123
〈표 3-3-78〉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과 우울 수준_29세	124
〈표 3-3-79〉 주거비 과부담 경험과 우울 수준_19세	124
〈표 3-3-80〉 주거비 과부담 경험과 우울 수준_24세	124
〈표 3-3-81〉 주거비 과부담 경험과 우울 수준_29세	125
〈표 4-1-1〉 조사 대상자 참여 기준	132
〈표 4-1-2〉 연구 문제에 따른 인터뷰 질문	134
〈표 4-2-1〉 조사 참여자 개별 특성	135
〈표 4-2-2〉 생애과정의 불리 경험과 그 영향	148
〈표 4-2-3〉 대처의 자원	181
〈표 4-2-4〉 청년기의 삶	209
〈표 4-2-5〉 서비스 요구	233
〈표 4-2-6〉 질적 연구 분석 결과	250
〈표 5-2-1〉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위한 지원	271
〈표 5-2-2〉 사회보장정책의 추진 원칙 및 전략	273

그림 목차

[그림 1-2-1] 연구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20
[그림 1-3-1] 연구의 범위	21
[그림 2-2-1] 청년 고용 현황 비교_1	32
[그림 2-2-2] 청년 고용 현황 비교_2	32
[그림 2-2-3] 저임금 근로자 비율	34
[그림 2-2-4] 연령대별 저임금 근로자 비율	35
[그림 2-2-5] 연령대별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36
[그림 3-1-1] 양적 분석 영역	74
[그림 3-2-1] 분석 자료 구성	76
[그림 3-2-2] 교육, 고용, 소득, 건강 측정	77
[그림 4-2-1] 생애과정 관점에서 바라본 청년의 과거 불리 경험과 대처, 현재의 삶과 서비스 요구	249
[그림 5-1-1] 정책,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청년정책 구축 방향	265
[그림 5-2-1]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과제	276
[그림 5-2-2] UN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7개 영역	278



Abstract <<

Basic Research for Establishing User-Centered Youth Support System based on Life Course Perspective

Project Head: Cheong, Sejeong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building a user-centered youth support system by investigating the lives of youth from the life course perspective.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derive policy measures by analyzing the impact of having been disadvantaged in terms of poverty, family structure, employment, etc. on their lives.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theoretical studies, policy research (analysis), quantitativ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First, this study found that the current youth policy heavily remains in employment policy emphasizing short-term employment outcomes. Also,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policies for income security, education and housing for youth are poor in terms of subject of application and sufficiency. Moreover, health security policy for youth is very limited.

Second, the quantitative research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household unemployment, housing instability, parental and youth education level, education, income, and depression. The

Co-Researchers: Kim, Hyoung Yong·Song, Na Kyoung·Choi, Kwonho·Choi, Bora·Kang, Ye Eun·Choi, Junyoung

study found that the effects of having been disadvantaged among youths are likely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iming and areas. In addition, the youth support policies need to be re-designed in three dimensions in consideration of area and timing.

Third, according to the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with 16 young people, it was confirmed that the experience of having been disadvantaged was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lives of young people. In particular, the cumulative experience of having been disadvantaged negatively affected the lives of young people, and in turn the lives of young people were chronically inadequate in all aspects. Also, youth commonly identified self-development and leisure support as the most important welfare needs, and found that they needed policies such as housing, income, jobs, health, living support, and information provision.

Some of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public support system. Second, the study suggests enhancing the concreteness and elaboration of policies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the youth. Third, it is critical to review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comprehensiveness and consistency of youth support policies. Finally, the study proposes developing and monitoring youth protection indicators based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Key words: User-Centered Youth Support System, Life Course Perspective, Experience of Disadvantage

1. 서론

-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청년 연구들이 압축적으로 수행되었고, 청년정책이 시도되어 왔음. 그러나 청년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의 청년 연구 및 정책들은 청년기를 분절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청년 문제 제기의 배경(청년 실업)과 관계가 있음.
- 삶은 흘러가는 시간과, 배태되어 있는 맥락 속에서 구조화되는 과정이자 결과임.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주어진 기회, 상황과 같은 발생 배경과 맥락에 대한 고찰이 요구됨.
- 청년 이질성에 대한 고려이자 정책 정교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함.
-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비판과 최근의 선행연구들은 청년정책이 삶에 대한 총체적 이해로부터 도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본 연구에서는 생애과정 관점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청년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였음.
- 정책의 주요 동향과 쟁점을 살피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수행, 이들을 종합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음.

2. 이론적 배경

- 생애과정 관점: 개인의 삶은 시간과 장소에 내포되어 형성되며, 특정 사건의 영향은 발생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삶은 상호 의존적이며, 사회로부터의 영향은 개인이 가진 관계망과 교차되고, 개인의 삶은 기회와 제약 속에서 선택과 행동을 통해 구성됨.

- 청년정책 동향과 쟁점
 - 고용: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고용 장려금 제공은 한계가 있으므로 보편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삶의 기회 확장이 요구됨.
 - 소득: 청년을 포괄하는 소득보장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청년희망동장이 유일함.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 청년의 근로와 가구 독립 지연 및 주거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주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정책은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며 절실한 수요자에게 닿지 않는 문제가 있음이 지적됨.
 - 교육: 저소득, 고졸, 중소기업 청년에게 주어지는 등록금 지원과 대출 지원이 있으나 정책 수혜율은 여전히 높지 않음.
 - 건강: 청년의 신체, 정신 건강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으나 건강검진제도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청년층을 포괄한 지원 외에 특별한 정책수단이 고려되고 있지는 않음.

3. 불리의 경험과 청년의 삶: 양적 분석

-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불리 경험에 따라 현재 청년의 삶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함. 청년의 삶은 학력, 고용, 소득, 우울로 구체화하였으며, 불리의 경험은 빈곤 경험, 빈곤 지속성, 가구주 실업, 주거 불안정, 부모의 학력, 청년의 고용 형태를 고려하였음.
- 청년의 연령은 19세, 24세, 29세로 구분하였으며, 불리 경험은 세 부 시기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령기, 청소년 전기, 청소년 후기, 청년 전기, 청년 중기로 구분함.
 - 청년의 불리 경험과 학력
 - 청소년 후기의 빈곤은 4년제 대학 진학과 밀접하게 연관됨.
 - 가구주의 실업을 경험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비율이 높았음.
 - 청년의 불리 경험과 고용
 - 청년 전기 지속빈곤을 경험한 24세, 29세 청년 중 절반 정도가 비경활 상태임. 이는 비경활 청년의 빈곤화와 빈곤청년의 비경활화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빈곤을 경험한 24세 청년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에 비해 취업 비율이 높았으나 임시, 일용직 비율도 높았음.
 - 청년의 불리 경험과 소득
 - 24세 청년과 29세 청년 모두 빈곤을 경험한 청년에 비해 빈곤 경험이 없는 청년의 소득 수준이 높았으며, 빈곤 지속 기간이 길수록 소득 수준이 낮았음.

6 생애과정 관점의 수요자중심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가구주의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 집단의 소득 수준이 가구주의 실업을 경험한 집단에 비해 대체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주거 불안정 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이 더 낮았으며, 지속 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낮았음.
- 29세 청년은 고용주, 자영업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표준편차도 매우 커 집단 내의 격차가 확인됨.

○ 청년의 불리 경험과 우울

- 빈곤 경험이 있고, 기간이 긴 경우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19세 청년과 24세 청년에서 그 차이가 큼.
- 가구주 실업 경험에 따른 우울 역시, 경험이 없는 청년에 비해 경험이 있는 청년의 우울 수준이 높았음.
- 주거 불안정 경험이 있는 19세 청년의 우울 수준이 대체로 높았음. 24세 청년의 경우 청소년 후기의 주거비 과부담 경험 집단이 경험 없는 집단에 비하여 우울 수준이 높았고, 29세 청년은 청년 중기 최저주거기준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됨.

4. 불리의 경험과 청년의 삶: 질적 분석

- 청년의 경험들과 경험 간의 상호 관계, 맥락을 고려하여 청년의 현재 상태와 삶이 지난 생애과정들로부터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만 19세부터 30세 사이의 청년 중, 가족구조, 빈곤 경험, 불안정 노동, 건강 등에서 여러 불리를 경험한 청년 16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주제 분석을 실시함.

- 불리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일상을 짓누르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모든 참여자들이 대처자원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알지 못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거나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을 받았지만 부정적인 경험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음.
-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성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됨. 또한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고 자기관리가 어려우며 진로 탐색과 선택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등 뿌리내리지 못하고 부유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었음.
- 청년이 지닌 복지 욕구
 - 문화·여가: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자기개발과 여가지원을 가장 중요한 복지로 꼽았음. 자기 탐색의 기회가 부족했기에, 유예되었던 정체성 수립과 진로 설계를 청년기에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소득과 일: 보편적 소득지원정책과 방식에 대해서는 참여자들 간 이견이 있음. 일자리지원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 기회의 확대와 정보 접근의 용이성 확대, 정규직 확대를 제안함.

- 건강: 건강지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청년에게 식사 지원 등을 통한 신체적 건강 증진 방안과 상담 서비스를 통한 정신적 건강 증진 대책이 필요함을 제시함.
- 생활지원: 청년들은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 서비스 이용 자체가 쉽지 않음. 또한, 어른과의 사회적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법률적 문제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금융이나 법률 등과 같은 생활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을 제시함.
- 전달체계: 정보 제공과 개별화된 서비스의 필요성이 도출됨. 청년들은 일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 등의 지원이 분절되어 있어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정책이나 제도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서비스 이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함.

5. 결론 및 정책 제언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수요자 중심의 공적 지원체계 역할 재편과 책임성 강화, 둘째,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의 구체성, 정교성 제고, 셋째, 사회보장체계와 청년지원정책의 보장성 및 정합성 검토, 넷째, 청년층 특성을 반영한 청년 보장 지표의 개발과 모니터링 수행의 필요성을 제언함.

□ 이 연구는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는, 정책이 수요자의 삶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함을 확인하였음. 이용자 중심 담론은 권

한과 공급구조의 재편 담론을 넘어 책임성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청년은 전기와 중기, 사회경제적 배경, 자기 탐색 및 노동시장 진입 이행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임.
- 사회보장체계와 청년지원정책의 보장성 및 정합성 검토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들의 연속성에 대한 검토, 사회보장제도와 청년지원제도 간의 관계 분석,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청년지원제도 보장성 분석이라는 세부 과제를 가짐.
- 현재의 청년정책은 청년층 특성이 반영된 추진 목표가 부재함. 지원 제도별 목표는 존재하지만 그 목표들이 여전히 기존의 빈곤, 고용, 주거 틀에서 논의되다 보니 청년의 어려움은 반영되기가 어려움. 지표의 개발과 모니터링은 유엔(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임.

*주요 용어: 수요자 중심 청년지원체계, 생애과정 관점, 청년의 불리 경험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청년에 대한 연구들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청년 일자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실업과 취업에 초점을 두어 왔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도 그들의 직업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을 의도적으로 선택해 왔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또한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 일자리 해결을 1순위로 꼽았다.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그리고 청년의 꿈을 지켜 주는 대한민국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공약하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스타트업 창업 지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격차 해소뿐 아니라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아르바이트(알바) 존중법 도입 등을 공약에 포함하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그리고 이러한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명시되었다.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3%에서 5%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3번째 채용직원 임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제도,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청년과학자 지원, 청년농어업인 정착지원과 농림어업인 재해보험 확대뿐 아니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확충, 일자리 격차 해소, 창업 지원과 직업개발 훈련 등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서 정부 예산이 청년의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20대는 9.3%에 불과하다(강찬희, 정다미, 2019).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그간의 청년 일자리 정책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왜 시간이 지나도 청년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 안전, 주거와 같은 다른 문제들의 심각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일까?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였던 것일까? 청년을 위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지원되어야 하는 것일까?

현재의 청년정책은 실업률이나 취업률과 같은 단편적인 지표에 주로 의존하여 공급자 시각에서 설계, 제공되어 왔기 때문에 현실진단이 부족하고 정책당사자가 배제되어 있다는 제한점을 안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문제가 제기되면서(김문길 외, 2017),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주거 등과 같은 다양한 청년 삶의 여건이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년의 문제는 모두 청년 일자리의 문제로 귀결되어 왔다. 가시화된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왜 다차원의 청년의 문제가 등장하며, 해결은 어려운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청년 문제의 다차원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청년 사회보장에 대한 다양한 요구도 제시되고 있다. 청년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고용, 주거, 대학등록금, 아르바이트, 대출, 신용, 결혼, 연애, 출산, 진로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한다(김기현, 2017a). 그런데 사회정책적 대응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청년이 경험하는 오늘의 위기가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6년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세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한 응답자가 62.2%에 달한다(정해식 외, 2016). 이뿐만 아니라 청년은 세대 내 갈등이 어느 세대보다 두드러진다. 한겨레 경제사회

연구원에 따르면, 부유한 20대와 가난한 20대의 인식의 차이는 매우 크다. '우리 사회는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 부유한 20대는 50%, 가난한 20대는 19.6%가 긍정적이었고, '우리 사회가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는 사회'라는 신념 역시 가난한 20대 12.5%, 부유한 20대 33.3%였으며, '자신의 노력을 통한 계층 상승' 가능성은 가난한 20대는 7.1%만이 믿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20대가 어느 세대보다 크게 나타났다(한귀영, 2018).

삶은 흘러가는 시간과, 배태되어 있는 맥락 속에서 구조화되는 과정이자 결과이다. 따라서 누군가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경험과 주어진 기회, 상황은 어떠한지와 같은 발생 배경과 맥락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래야 누군가는 왜 안정적인 자리로 진입하기가 더 힘든지, 누군가의 삶은 왜 계속 불안정한 것인지, 다시 말해, 어떠한 요인과 경험들이 서로 다른 상태로 귀결시키는지를 찾아낼 수 있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어느 지점에서 어떠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지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접근은 건강의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과거의 빈곤, 차별 또는 처한 자리에서의 위험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담론들이 진행되어 온 것이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건강은 단순히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삶의 경험에 따른 결과임을 과학적 절차를 통해 밝히고,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구 배경하에 이 연구는 청년의 삶을 시공간과 발생의 맥락을 포함하는 생의 경험들이 현재에 영향을 미침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들여다볼 것을 제안한다. 법과 제도가 규정하는 생애주기와 달리, 삶에서 인생의 어느 시기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갑자기 시작되고 끝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삶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거

나 지속될 예정인 이슈와 연관하여 정교하고 면밀하게 파악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의 삶이 시대와 환경 그리고 개인이 처해 있는 여러 상황들이 축적되고 상호작용 한 결과임을 의도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변화의 속도와 단위, 양이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커진 현대사회, 계층화된 부모로부터 태어난 세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그러나 기회와 경쟁은 가장 제한되고 치열한 세대로서의 정체성을 고려하면 청년 연구에서 이러한 접근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오늘날의 청년 논의는 현재 청년 세대가 공통으로 봉착해 있는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세대 내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전자는 관찮은 일자리의 부족과 고용 안정성 문제, 가치관 변화에 따른 비혼이나 출산에 대한 논의와 관련이 있고, 후자는 심화된 양극화와 고착된 계층 속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대물림 문제와 주로 관련이 있다. 이 두 가지 논의는 때로 각각, 때로는 복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테면 현세대가 공통으로 당면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 속에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부모로부터 태어난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취업이나 좋은 대학 진학, 전문직으로의 입직이 더욱 어려움을 논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최근 등장한 청년의 우울,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는 좀 더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가장 최근의 연구들은 청년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각 특성과 문제에 따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논의한다. 예를 들어, 김태완과 오미애, 박형준 등(2017)의 연구에 따르면 낮은 학력의 청년과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청년은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한 경우가 많다.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한 청년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60.0%, 대학 이상이 22.5%로 비빈곤 청년의 고졸 이하 학력 19.9%와 대학 이상 55.3%와 차이가 있으며, 5년 이상의 빈곤을 경험한 청년(25%)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16.9%)에

비해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김태완 외, 2017). 최근에는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명문대 진학 가능성이 낮다는 기사나(정진우, 유지혜, 하준호, 2019), 스펙 대물림(허진무, 김희진, 심윤지, 탁지영, 조문희, 2019), 영구임대 주택의 빈곤 대물림 현상(고희진, 김원진, 2019), 의대와 로스쿨 재학생의 고소득층 쏠림화(이동수, 2019) 등을 다루는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의 삶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유관하다.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은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 생산되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자원의 분포와 복지의 전달이 가족 단위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개인 단위의 복지제도로 개편하려는 노력이 일부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회정책은 가족 또는 가구 단위로 설계되어 있다. 수저론의 등장, 서로 다른 출발선에 대한 논의, 공고화된 계층의 세대 간 대물림, 그리고 가구 단위의 정책 설계는 결국,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생의 기회(life chance)가 다르게 주어질 수 있음을 가리킨다.

이 연구는 청년들의 삶을 생애과정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수요자 중심의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으로, 현재의 청년들이 처했던, 처해 있는 빈곤, 가족구조나 고용 등의 불리(disadvantage) 경험에 주목하여, 그들의 삶으로부터 정책방안을 도출해 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 연구와 양적 연구, 질적 연구를 포괄하는 혼합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책 연구에서는 오늘날 청년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며, 현재의 청년정책들이 삶의 어떤 맥락을 놓치고 있는지, 정책 설계의 어느 지점을 검토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짚어 보았다. 프랑스와 미국의 비교를 통해 공공부조와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미약한 국가에서는 세대 내 불평등이 세대 간 불평등보다 더 커질 수 있음을 서술한 Chauvel(2017)의 논의는 한국의 미래정책이 향해야 할 바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청

년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의 복지국가 또는 미래 사회 사회정책 패러다임 논의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책 제언은 청년을 위한 정책설계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혼합연구에서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여러 불리의 경험이 청년의 삶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파악하였다. 생애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청년의 삶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면밀히 짚어 본 것이다. 양적 연구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자료와 변수를 고려하여 이전의 빈곤이나 주거 문제, 가구주의 실업 경험에 따라 현재 청년의 삶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청년의 삶은 포용적 사회보장의 영역을 고려하여 교육, 고용, 소득, 건강의 차원을 학력, 고용, 소득, 우울로 구체화하여 살펴보았다. 질적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에 활용하는 자료에서 도출하기 어려운 경험들과 경험 간의 상호 관계, 맥락을 살펴보기 위하여 청년들의 현재 상태와 삶이 지난 생애과정의 시간과 공간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분석과 양적, 질적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정책의 설계와 전달에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청년정책 설계에 어떠한 고민이 필요한지를 논의하였다.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1. 연구 구성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구성과 방법을 서술하였다. 청년문제를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과 정책의 한계를 다루고 다차원의 양상으로 발

현되는 심화된 불평등 속에서 생애과정 관점의 청년 연구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생애과정 관점과 관련 선행연구, 청년정책의 동향과 쟁점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생애과정 관점의 핵심과 주요 모델 및 국내외의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불리의 경험과 청년의 삶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제3장 양적 연구에서는 청년의 교육, 소득, 고용, 건강이 지난 생애과정의 경험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제4장 질적 연구에서는 더 총체적 관점에서, 지나온 시간과 처해 온 공간에서 청년이 경험한 불리들은 어떠한 것이며, 그 불리들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청년과 청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체계들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청년기 이전의 시기에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였고 현재 청년기에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등을 심층 분석 하였다. 제5장에서는 각 장의 분석 결과와 함의를 짚어 보고 이를 종합하여, 수요자 중심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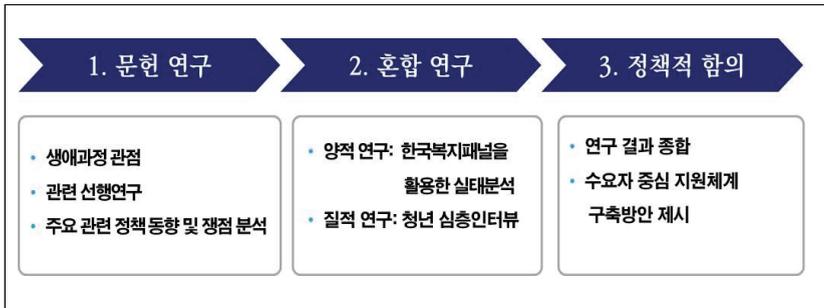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 연구와 양적 분석과 심층 인터뷰로 구성된 혼합연구, 전문가 및 청년 당사자 자문회의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애과정 관점의 내용과 선행연구 그리고 사회정책 및 청년정책의 동향과 쟁점을 정리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및 행정, 정책 자료를 검토하였다.

양적 및 질적 연구의 분석틀과 정책과제 도출의 방향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및 청년 당사자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한국복지패널 가구원 데이터틀을 활용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연구운

리위원회 심의 절차(승인번호: 2019-35)를 거쳐 총 16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혼합연구는 각각의 방법론을 보완하여 더 온전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케 한다는 데 그 이점이 있다(Creswell and Clark, 2017).

본 연구의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1-2-1]과 같다.

[그림 1-2-1] 연구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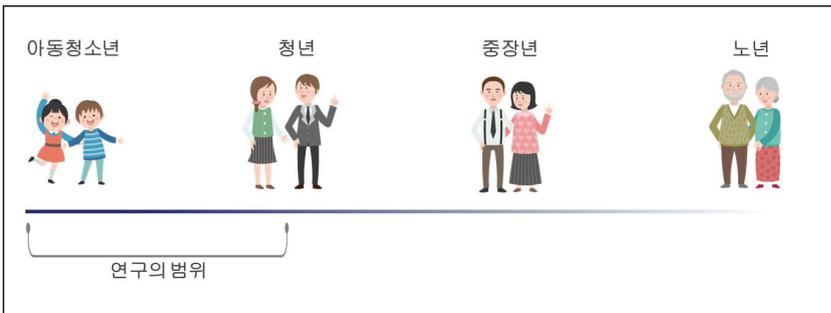
3.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 범위

다수의 청년 연구들은 청년기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두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청년기뿐 아니라 청년이 지나온 시간들을 함께 살폈다. 법과 제도가 규정하는 생애주기와 달리 삶의 어느 시기는 갑자기 시작되고 끝나지 않으며, 현재의 삶은 개인의 경험과 체계, 상황과 선택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 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틀로서 지난 시간 속에서의 경험과 그 시기를 고려하여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생애과정 관점을 활용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의 생애과정이란 청년이 지나온 시간들을 의미한다. 아동,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기에서 발생한 사건과 경험, 다시 말해 타고 났

거나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선택했던 상황들을 살핀 것이다. 물론, 오늘의 청년 문제는 경제성장률, 인구구조 변화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연구 전반 특히, 정책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 또한 고려하였다.

[그림 1-3-1]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고용, 주거 등 삶의 특정 단편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과 달리 삶의 제 측면을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혼합연구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양적 연구에서는 포용적 사회보장의 영역인 고용, 교육, 소득, 건강을 분석하고, 질적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삶 그 자체를 파악하고 드러내는 데에 더 초점을 두었다. 또한, 청년 불평등의 원인을 더 세밀히 들여다 보기 위하여 청년들이 경험했던 불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의 정책 제언은 단순히 청년기 그리고 특정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예방적 차원의 정책과 현재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여러 영역의 정책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단, 이 연구는 만 30세 이하의 청년에 초점을 둔다.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한국복지패널의 추적 기간을 고려할 때 30세 이상의 청년을 분석하게 되면, 청년의 과거 불리 경험은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이며, 질적 연

22 생애과정 관점의 수요자중심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구에서는 양적 연구와 균형을 맞추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는 30세 이상의 청년의 삶은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불리의 경험에 초점을 뒀기에 따라, 연구에서 다룬 불리를 경험하지 않은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생애과정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

제2절 선행연구 고찰

제3절 청년정책의 동향과 쟁점

제4절 소결



제1절 생애과정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

1. 이론의 주요 논의

이 연구는 시공간과 발생의 맥락을 포함하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영향을 미침을 핵심으로 하는 생애과정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생애과정 관점은 국내 연구에서는 그간 인구집단 대상으로는 중년기 이후에 대한, 영역과 관련해서는 건강불평등과 관련한 경험적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생애과정 관점은 사실 인간 발달(Human Development)뿐 아니라 세대, 코호트 연구, 복지국가, 복지 레짐 및 격차 연구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이론이다(Mayer, 2005). 이를테면, Erikson(1980)과 Clausen(1986)은 개인의 내재적 동화에 관심을 두는 인간 발달의 관점에서 생애과정 관점을 활용하였고, Mannheim(1952)은 생애과정 관점을 활용하여 사회적 과정(social metabolism)에서 생애의 구성 요소를 함께 공유하는 코호트는 그들의 사회적 계급을 보여 줌과 동시에 세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침을 논의하였다. 생애과정 관점은 대상과 영역을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이론적 틀인 것이다. 이에 생애과정 관점은 사회 정책의 영역에서 국가 간 불평등의 양상을 비교하는 연구(Mayer, 2005)나 코호트에 따른 생애 임금, 소득 등의 구성이 어떠한지, 복지체제에 따라 세대 간 또는 세대 내 불평등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연

구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Chauvel, 2017, DiPrete, 2002).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생애과정과 삶의 기회(life chance)를 연구한 Mayer(2005)는 생애과정을 출생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활동, 상태, 사건들의 연속이라 보았다. 따라서 개인의 삶은 그들의 사회적 역할이나 위치와 같은 배태된 사회 구조 속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생애과정론자들은 사회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과정(course)에 주목한다. 삶의 모습은 시기,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앤서니 기든스, 2011). 이렇게 볼 때, 최근 제기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문제(김문길 외, 2017)와, 서로 다른 출발선, 기회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생애과정 관점을 적용한 청년 연구의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생애과정 관점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위기나 사건 등에 대한 반응과 선택의 결과가 삶의 궤적이며(한경혜, 2004), 이는 전 생애에 걸쳐 계속된다고 본다. 특히, 생애과정 관점은 다음 네 가지에 주목한다(Elder, 1998). 첫째, 시간과 공간(historical time and place)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삶은 시간과 장소에 내포되어 형성된다. 둘째, 삶의 타이밍(timing in lives)이다. 특정 사건(event)의 영향은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연결된 삶(linked lives)이다. 개인의 삶은 상호 의존적이며, 사회로부터의 영향은 가족과 같은 개인이 가진 관계망과 교차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경제위기의 경험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양육태도와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 넷째, 행위자(human agency) 원칙이다. 이 관점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생애과정을 역사와 사회 환경의 기회와 제약 속에서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 구성한다고 본다.

실증의 차원에서 생애과정 관점은 다음 세 가지 모델을 검증하기도 한

다. 첫째, 결정적 시기 모형(critical period model)이다. 결정적 시기 모형은 제한된 시간 창(limited time window)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 모형에서는 결정적 시기가 지나면 결과(outcome)를 완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본다. 둘째, 민감 시기 모델(sensitive period model)이 있다. 차이점은 결정적 시기 모형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결과를 완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민감 시기 모델에서는 결과를 완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본다(Ben-Shlomo and Kuh, 2002). 따라서 결정적 시기 모형은 주로 생물학적 시스템과, 민감 시기 모델은 발달적 관점과 더욱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 축적 모델(accumulation of risk model)이다. 이 모델에서는 개인의 삶은 생애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익과 불리가 누적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생애과정 연구자들은 같은 코호트라 하더라도 누적된 이익 혹은 불리에 따라 개인의 삶의 궤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O'Rand, 1996; Ross and Wu, 1996; Mayer, K. U., Maas, I., & Wagner, M., 1999; O'Rand, 2002; Dannefer, 2003). 인간 발달학, 조직학, 노년학, 보건학과 같은 학문분과에서 축적된 위험에 주목하여 각 분야의 주요 관심주제들(인지 발달, 경력, 소득, 부, 건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으며(DiPrete and Eirich, 2006), 사회생물학자들은 (불)이익의 효과를 파급 또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로 명명(Wilson, 1975)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세 모델은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리의 중첩을 이해하고, 중첩된 불리가 건강과 발달, 웰빙, 비행과 범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어 온 것이다(한경혜, 주지현, 정다겸, 2009; Elder, 1998; Ben-Shlomo and Kuh, 2002).

우리는 이 세 모형에 대한 엄격한 양적 실증은 실시하지 않는다. 그보

다는 생애과정 관점이 견지하는 핵심에 초점을 두고 청년의 삶을 통찰하며, 이를 바탕으로 함의를 도출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생애과정 관점의 특성들, 즉 시·공간 속에서의 삶의 맥락과 사건의 발생 시기, 축적되거나 상호작용 한 여러 위험 요인들, 가족 구조나 사회적 지지 체계 내에서의 상호작용,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진 개인의 선택과 행동들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다만, 양적 연구에서는 세부 생애과정에서의 경험에 따른 결과를 교차표를 통해 살피고, 질적 연구에서는 여러 불리 경험을 한 청년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기 때문에 세 모형에 대한 탐색적 수준에서의 검증이 가능하다.

정리하면, 생애과정 이론은 개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기회의 제약이 되거나 다른 부정적 경험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본질적으로 생애과정 이론이 관심을 두는 것은 삶의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생애과정 관점을 활용한 연구들은 경험 그 자체와 시기가, 다른 가능성 즉, 불평등한 삶의 기회(unequal life chance)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규명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2. 생애과정 관점 청년 연구의 필요성

언급했듯, 생애과정 관점의 연구는 주로 중장년 이상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제기되는 세대 간, 세대 내 청년 불평등 담론은 생애과정 관점에서 청년 문제를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생애과정 관점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시간과 공간의 중요성은 이전 세대와도 다르고 같은 세대 내에서도 출발선이 다른 청년 불평등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또한, 삶의 타이밍은 상위학교 진학에 있어 청소년기의 중요성이나 안정적 일자리로의 진입에 있어 불안정 노동 경험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뿐 아니라 청년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주변 지지체계의 중요성 및 이행기 선택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청년의 문제를 생애과정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생애과정 관점의 주요 모델인 민감 시기 모델은 청년기 이후 삶에서의 예방적 개입의 중요성을 논의할 수 있고, 위험 축적 모델은 서로 다른 출발선의 문제나 다차원의 불평등 문제, 이를테면 빈곤 가정에서 성장한 청년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처하게 되는 청년의 삶을 다루는 데에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애과정 관점의 청년 연구의 필요성은 세대 간 세대 내 격차 문제를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청년의 사회문제가 무엇인지는 매우 명확하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의 등장 그리고 계층이동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야기되는 불안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은 불공정에 대한 분노로,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표출된다. 한편으로, 청년은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 따라서 경쟁은 더욱 치열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 어렵다. 오늘날 청년들은 교육 성취나 직업능력 면에서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 왔지만 전문직 일자리는커녕 정규직 일자리를 차지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세대 간 불공정이 인식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청년 개개인이 가진 경제적·사회적·인적 자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세대 내 불공정이 부각된다. 자원이 극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사회로 인하여, 각 계층은 소비보다 자녀에게 부를 이전할 수 있는 저축을 선택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순간, 계층별 격차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커진다.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것은 기성세대의 자본이 세습되기 때문으로 인식되고, 다수에게 일자리는 풍부하지만 프레카리아트로 고착화되는 일자리가 주어진다. 사회의 생산

성은 증가해도 저임금 일자리가 지속되는 구조의 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다수의 청년들은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 격차에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태어난 시점의 중요성 즉, 이스털린의 역설과 불리한 경험의 축적 문제, 적절한 타이밍의 개입 및 개인 선택의 문제를 포괄한다.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 청년 불평등의 현황

가. 세대 간 불평등

청년을 하나의 균일한 세대로 보는 입장에서 현재의 청년은 전혀 새로운 집단이다. 이들은 산업화세대 그리고 민주화세대와 다르게 88만원세대, 삼포세대, 생존주의세대 등 암울과 불안으로 표상된다(김홍중, 2015). 현재의 청년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불리한 경험, 즉 과도한 입시 교육, 높은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장기적인 미취업, 불안정한 노동, 주거 빈곤, 연애와 결혼 포기, 가족형성의 지체 등을 토로한다. 오늘날 청년 세대는 이전 세대 청년들이 보여 준 낭만이나 반항, 자유와 유희 등으로 표상되는 '영웅적 청춘'과 구별된다(김홍중,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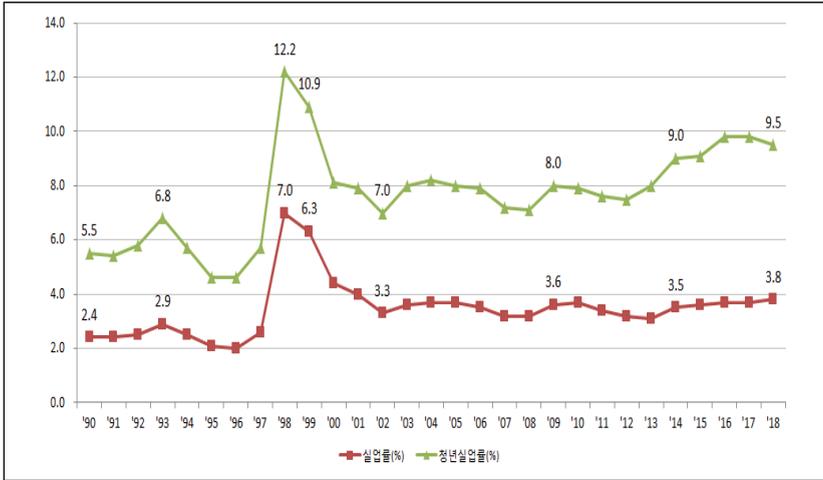
그러나 현재의 청년들이 다른 세대보다 더 불리한 세대라고 하기는 어렵다. 대학이나 취업을 비롯한 안정적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높다고는 하나, 물질적인 수준에서는 그 누구보다 혜택을 누린 세대이다. 한국의 2018년 구매력 기준 일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만 달러를 넘어

섰고, 일본과는 2천 달러 차이에 불과하다(World Bank, 2019). 정치사회도 이제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는 세계 20위로 서구 선진국들과 유사한 수준이며, 아시아권에서는 1위이다(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8).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한국이 이처럼 풍요롭고 안정적인 시기는 일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국 사회는 청년들에게 ‘헬조선’으로 불린다. 청년들에게는 삶의 기회 면에서 기존 세대와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 현황은 매우 좋지 않다. 연간 실업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6년 처음으로 실업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8년 기준 107만 명(실업률 3.8%)에 달한다. 이 중 15~29세 청년실업자는 40만 명대(실업률 9.5%~9.8%)가 지속되고 있다(통계청, 2019a). 그러나 잠재구직자(예: 공무원시험 준비생)와 추가취업 희망자(예: 아르바이트생) 등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는 청년 체감실업률은 24.6%에 달한다(고용노동부, 2019a). 이와 같은 수치는 1990년 청년 실업률 5.5%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국제비교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 현황은 긍정적이지 않다. 2018년 우리나라의 15~24세의 고용률은 26.2%이며 이는 2000년 29.4%보다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2000년 45.3%에서 2018년 42.2%이다. 경제활동인구 비율 차이도 극명하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29.3%에 불과하고, OECD 평균은 47.5%이다. 한편, 실업률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한국이 10.5%이며, OECD 평균이 11.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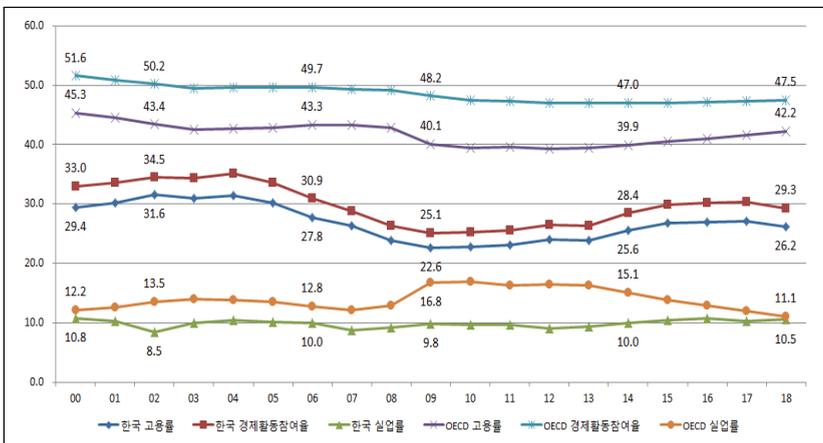
32 생애과정 관점의 수요자중심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그림 2-2-1] 청년 고용 현황 비교_1



자료: 통계청.(2019b).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063에서 2019. 9. 2. 인출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그림 2-2-2] 청년 고용 현황 비교_2



자료: OECD. (2019a). 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각 연도.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D#에서 2019. 9. 2. 인출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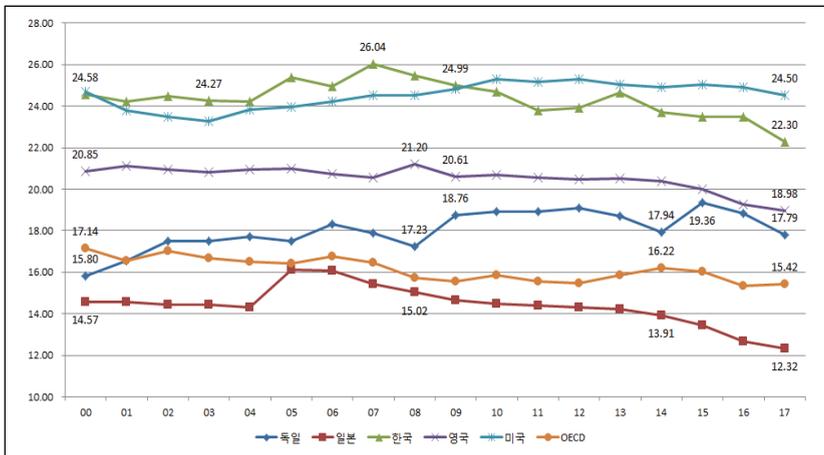
한국의 청년 고용률과 경제활동참여율이 매우 낮은 것은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탓도 있지만, 동시에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진 측면이 크다. 즉, 좋은 일자리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급감 하면서, 더 나은 자격을 갖추고자 청년 스스로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고 있다. 지위 경쟁은 생애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학력의 상향평준화로 인하여 추가적인 스펙 쌓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에 4년제 대졸 청년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2017년 기준 61개월이며 남자의 경우는 74개월이다. 휴학 경험이 있는 대졸 청년은 43.3%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 휴학기간은 27개월이다. 졸업 후에도 노동시장 진입 전까지 스펙 쌓기 활동기간은 지속된다. 대학졸업 후 첫 번째 일자리에 진입하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2개월이며, 청년들은 이 기간에 각종 시험과 자격을 준비한다. 그러나 스펙 쌓기 기간을 지나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도 한국 청년들의 첫 직장 근속기간은 19개월에 불과하다(김유빈, 2018).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로 유추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통계청, 2019c). 2019년 5월 현재 청년(15~29세) 인구는 907만 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439만 명이고(48.4%), 비경제활동인구는 468만 명이다(51.6%).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로 학생인데, 379만 7000명(비경활인구의 81%)이 재학생이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는 71만 4000명이다(비경활인구의 15.3%).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 395만 명(고용률 43.6%)과 실업자 43만 7000명(실업률 9.9%)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취업자의 일자리를 살펴보면, 시간제 일자리 취업자가 19.3%에 달한다. 또한 계약기간이 한시적인 계약직 일자리가 29.1% 그리고 계약기간이 없는 일시적 일자리가 11.8%,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가 2.3%이다. 즉, 청년 취업자의 43%가 불안정 일자리에 속해 있다(통계청, 2019c). 종합하면, 청년은 학교를 졸업하고 안정

적 취업자(224만 명), 불안정 취업자(171만 명), 시험준비자(71만 4000명), 실업자(43만 7000명) 등이 된다. 따라서 청년정책은 43만 7000명의 실업자뿐 아니라 불안정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까지 광범위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오늘날의 청년들은 저임금 일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운데, 이는 계층 상승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기준 청년의 첫 일자리 월평균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100만 원 미만인 16.8%, 100만~150만 원 미만 37.5%, 150만~200만 원 미만 29.6%이다. 즉, 월 200만 원 미만의 일자리가 83.9%나 차지한다(김유빈, 2018). 물론 이는 청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017년 기준 22.3%로 미국과 함께 OECD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은 15.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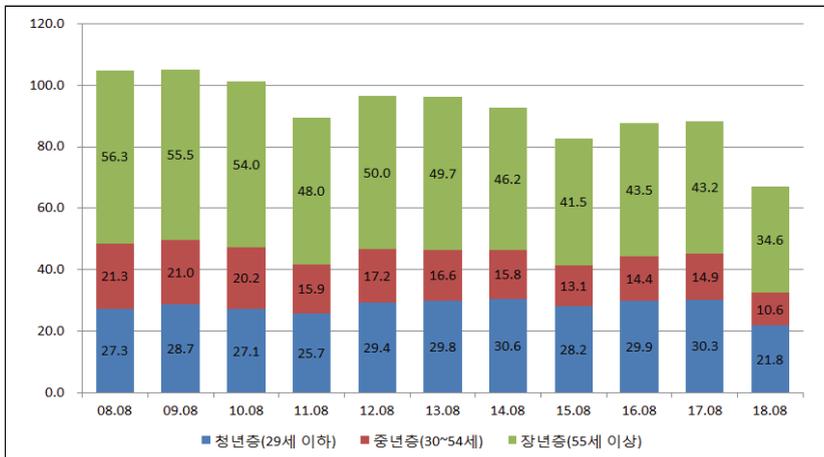
[그림 2-2-3] 저임금 근로자 비율



자료: OECD, (2019b).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EC_I에서 2019. 9. 2. 인출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문제는 저임금 근로자가 고령자와 함께 청년층에 집중되어 분포한다는 것이다. 김하영(2018)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근로자는 55세 이상 고령층과 29세 이하 청년층의 비율이 높다. 청년은 지난 십여 년간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20~30%로, 중년층보다 두 배 이상의 비율을 보인다. 청년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낮은 호봉이나 숙련의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윤윤규, 성재민, 2011). 그러나 청년의 저임금 일자리는 성격이 동일하지 않으며, 저임금 일자리에 진입하는 청년의 특성도 저학력, 여성 등으로 다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인 집단은 좋은 일자리로 이행하기가 힘들다. 더구나 불안정 일자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의 저임금이 일시적이라고 보기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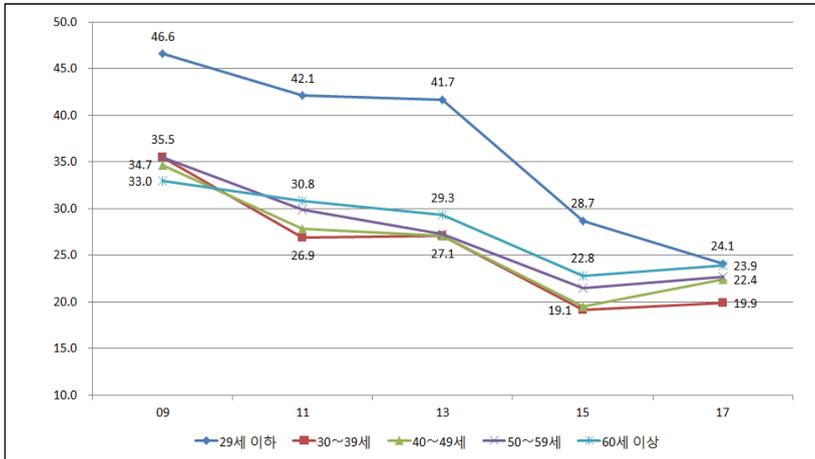
[그림 2-2-4] 연령대별 저임금 근로자 비율



자료: 김하영. (2018). 저임금 근로자 현황. 고용동향브리프, 12월호. p. 20의 그림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작성함.

좋은 일자리의 절대적 감소는 청년의 저임금 일자리가 고착화되는 요인이다. 제조업 및 대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고용 창출력이 감소하고 있고(예: 반도체의 고용유발계수는 3.6명임), 이에 전체 상용근로자 중 대기업 종사자 비율이 2010년 19.2%에서 2017년 17.4%로 감소하였다(이은아, 2018). 또한 숙련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신규채용보다 경력자 중심의 채용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대학을 비롯한 교육체계가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청년들은 대기업, 공공부문 등 안정적이지만 극소수인 일자리를 두고 경쟁만 치열해졌다. 청년들은 자력으로 계층상승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의 ‘본인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대한 질문에서 ‘매우 높다’와 ‘높다’로 응답한 긍정적 비율은 2009년 46.6%에서 2017년 24.1%로 감소하였다(정해식 외, 2018).

[그림 2-2-5] 연령대별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자료: 정해식·김미곤·여유진·김성근·류연규·우선희·김근혜. (2018),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p. 170의 [그림 5-6]을 참고, 통계청. (2019d). KOSIS.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242R&conn_path=I3에서 2019. 9. 2. 인출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셋째, 실업과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에 처한 청년들의 생활은 빈곤으로 귀결된다. 현대경제연구원(2018)은 한국의 청년은 일자리로부터의 소외가 부채 증가, 소득 감소, 소비 제약, 피로 가중이라는 네 가지 특징으로 연결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30세 미만 청년가구주의 부채는 2012년 1,283만 원에서 2016년 2385만 원으로 약 86% 증가하였고, 가구소득은 2013년 이후 점차 하락하였으며, 소비지출도 2013년 2299만 원에서 2016년 1869만 원으로 급속히 감소하는데 주로 식료품, 가정용품, 보건 등 필수적인 소비지출이 감소하였다. 또한 장기간 구직 활동으로 인하여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스트레스성 질환 환자수가 급증하였으며, 우울증은 연평균 증가율이 4.7%에 달한다(현대경제연구원, 2018). 즉,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빈곤과 소비, 주거, 연애, 결혼, 출산, 육아 등 가족 형성의 위기로 연결된다.

벼랑 끝 위기의 청년층은 장년층이 되어도 생활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김태완과 최준영(2017)은 2005년 기준 청년층이 2015년에 29~44세가 된 경우의 빈곤율은 거의 유사하며, 빈곤 청년들은 탈빈곤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사실 빈곤한 청년의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빈곤 청년은 가구 독립을 늦추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청년 빈곤을 파악하기 어렵다. 월평균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 청년 취업자의 켄거루족 비율은 81.9%임에 비해, 월평균소득 301만 원 이상의 고소득 청년 취업자의 켄거루족 비율은 12.0%에 불과하다(오호영, 2017). 저임금 청년이 빈곤에 빠지는 경우는 대다수 청년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이다.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2014년 기준 21.2%이며, 이는 연령을 기준으로 볼 때 노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김태완, 최준영, 2017). 빈곤 청년이 경험하는 위기는 소득 빈곤만이 아니다. 청년의 주거 빈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 1인 가구의 주택 유형은 보증부 월세가 58.3%이며,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 면적은 11평 미만의 주택이 60% 이상이다. 또한 주거비가 부담되는(월소득 대비 임대료가 20% 이상) 청년은 빈곤 청년 중 73%에 달한다(변수정, 조성호, 이지혜,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청년들이 자립하기를 꺼린다고 오해한다. 빈곤층과 쉼겨루족 사이에서 합리적 선택의 옵션이 없는 청년에게 결혼 지연, 미혼과 비혼, 출산포기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자기애가 강한 집단으로 표상되고 있는 것이다(서성민 외, 2016; 정현상, 2016; 최연실, 2014).

나. 세대 내 불평등

오늘날 청년들이 모두 다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험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김홍중(2015)은 허쉬만이 제시한 조직의 퇴보에 대한 이탈, 충성, 항의라는 세 가지 대응 전략을 참고하여, 청년들의 마음에 생존주의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독존(獨存)주의, 공존(共存)주의, 탈존(脫存)주의라는 이념형적 마음가짐이 있다고 보았다. 생존주의는 오늘날 청년들의 시대적 정신이다. 생존주의는 이미 주어진 조건으로서의 직업과 가족이라는 두 차원의 삶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살아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마음가짐이다. 이에 반하여, 독존주의는 생존주의 경쟁을 거부하고 자족적인 삶, 즉 초식남(草食男), 나홀로족, 니트족 혹은 싱글족과 같은 생활 양식을 따르는 삶이다. 공존주의는 생존주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마음이다. 스스로 무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적 삶을 추구한다. 협동조합과 같은 이타적 경제나 타인과의 공생을 추구하며 사회문제에 비판적으로 개입한다. 그리고 항의가 아닌 이탈의 방식으로 가장 무력한 대응은 탈존주의이

다. 생존주의하의 직업, 가족, 개인의 삶의 조건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며, 탈존주의적 허무와 비관, 자살, 우울, 범죄 등의 형태로 표출된다.

이렇게 다른 마음가짐들을 가진 청년들을 단순히 하나의 집단으로 그리는 것은 무용하다. 특히 청년은 그 어느 세대보다 세대 내 격차가 심하다. 생존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한 이들과 기회의 평등에서조차 배제된 가난한 20대에게 한국 사회는 전혀 다른 사회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청년은 이 간격이 어느 세대보다 크다. 삶의 조건의 격차는 개인이 위치한 환경에서 저마다 차별화된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청년들은 부모가 부자일수록 보수적 사회를 지지한다(한귀영, 2016). 부모가 부자인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생존경쟁에 참여하고 있고, 경쟁에 참여한 이들의 최대 관심은 공정성이다.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우에는 독존주의적 선택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니트(NEET)이다. 니트는 15-29세 청년 중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인구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18%이며,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김기현, 2017b). OECD(2016)에 따르면, 니트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직업, 본인 교육 수준, 성별, 이민자 배경 등 사회인구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OECD 평균 25-29세 청년 중 중학교 졸업 이하 청년의 니트 비율은 42%에 달하지만, 고등교육을 이수한 청년의 니트 비율은 13%에 불과하다(채창균, 양정승, 김민경, 송선훈, 2018에서 재인용).

〈표 2-2-1〉 주요 국가의 청년 니트(NEET) 비중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OECD
2008	18.5	11.4	14.6	14.8	14.0	11.6	8.7	9.9	16.4	19.2	16.2	13.7
2009	19.0	12.2	16.9	15.7	15.6	11.6	11.0	12.0	22.3	21.2	16.8	15.4
2010	19.2	12.0	16.1	15.9	16.6	12.0	10.3	12.6	23.3	23.0	18.3	15.7
2011	18.8	11.7	15.9	15.5	16.4	11.0	9.1	11.8	24.0	23.2	21.8	15.7
2012	18.5	11.5	15.2	16.3	16.6	9.9	9.7	11.9	25.3	24.6	27.0	15.4
2013	18.1	10.8	1.60	15.6	16.3	9.7	9.4	12.3	27.2	26.1	28.5	15.6
2014	(17.8)	9.8	15.1	14.4	16.3	9.2	9.5	13.0	24.3	27.7	28.3	15.2
2015	(18.6)	-	14.4	13.7	17.2	8.6	9.1	14.3	22.8	27.4	26.2	14.6
2016	(18.9)	-	14.1	13.2	17.2	9.6	8.2	13.2	-	26.0	23.5	13.9

주: 2014년~2016년 한국 청년 니트(NEET) 비중은 2014년부터 OECD에 결과를 제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OECD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추정된 결과임.

자료: OECD. (2017).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indicator를 활용하여 분석한 김기현(2017b).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KLI패널 워킹페이퍼, 8, p. 8에서 재인용함.

우리나라 니트를, 청년 중 18.9%, 177만 명으로 추정하였을 때, 취업 준비자가 45.3%로 가장 높고, 휴식 또는 구직포기자 27.7%, 진학준비자 7.0%, 가족돌봄 및 가사활동 5.0%, 질병이나 장애 4.1% 순이다. 즉, 외국과 달리 실업 상태의 청년 니트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청년 니트 비율이 높은 편이고, 이들은 대개 저소득이나 낮은 교육 수준의 청년집단이라기보다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고등교육 졸업자이다(김기현, 2017b; 오재호, 2018). 하지만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를 단순히 자발적인 취업 준비생 성격의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전히 우리나라 니트의 결정요인은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크다. 낮은 가구 소득, 부모와의 동거가 니트의 결정요인이고, 취업 경험이 없거나 낮은 자아존중감은 니트에 속할 확률을 높인다(김기현, 2017b).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청년층이 취약한 사회경제적 배경 때

문에 발생하며, 따라서 더욱 표적 집단화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청년 니트와 함께 주목해야 하는 청년집단은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프레카리아트이다. 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2017)이 한국 청년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안정한’ 청년과 ‘다소 불안정한’ 청년은 줄어들었지만 ‘매우 불안정한’ 청년과 ‘불안정하지 않은’ 청년의 규모는 늘어나 청년 노동시장 안정성 정도가 양극화되고 있다. 그리고 불안정한 청년이 되는 확률은 남성, 저연령, 저학력에서 높았으며, 직업 중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판매종사자, 산업으로는 교육, 숙박,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군에서 높다고 보고하였다. 청년의 불안정 노동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도 주지 못한다. 현재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34세 이하의 4년제 대졸 미취업자 중 69%는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2015. 5. 28일 자에서 재인용; 정지선, 주휘정, 2015). 이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단지 비정규직 일자리 중 하나의 형태가 아니다.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자신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인식하기보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라는 다른 범주로 인식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 일자리로 진입해야 할 상당수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여전히 취업 준비생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을 결정하는 개인 수준의 요인들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교육이나 스펙 등의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되었지만, 불안정 노동과 안정 노동 진입을 설명하는 요인들의 효과 크기(effect size)는 통상 제시되지 않는다. 사실 교육 수준의 경우, 2018년 청년들의 대학 진학률이 69.6%임을 고려하면(교육부, 2019) 오늘날 교육 연수에 따라 고용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되

기 어렵다. 청년들의 다수가 대학 졸업자이고, 청년들의 욕구와 능력은 과거에 비해 평준화되어 있다. 청년이 쌓고 있는 스펙에서 지역별 격차나 성별 격차는 그리 크지 않다. 청년 취업자의 성별, 학력별 임금 수준도 그리 큰 차이는 아니다. 2017년 기준, 대졸 이상 청년 취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청년 취업자의 임금 차이는 약 10% 수준으로 월 20만~30만 원에 불과하다(통계청, 2019e).

하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 개인 간 보상은 현저히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 오늘날 청년들은 역량 측면에서는 상당히 동질적이다. 따라서 단순히 성별이나 교육 수준에 의한 집단적 격차라기보다 개인 간 취업의 기회와 보상의 격차이며, 그 격차가 매우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분배의 정당성 문제, 불평등과 불공정이 대두된다(이원재, 2015). 불안정 고용과 안정 고용에서 나타나는 청년들의 격차는 그들이 타당하다고 여길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다.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 일자리에 성공한 청년과 성공 못한 청년의 삶의 질은 크게 벌어지는데, 그 성공과 실패 요인은 개인의 노력이나 성취에 있지 않다. 같은 대학을 같은 성적으로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임의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임의성은 가족 배경과 사회경제적 차이, 세습자본주의 고착화로 계층상승의 기회가 줄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 부모로부터 지원되는 자원이 부족한 빈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력감뿐 아니라, 현재의 생존을 위해 급하게 선택하는 일자리 또는 가족부양이라는 현실에서 선택하는 일자리로 인하여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경로에 들어선다. 빈곤 청년들의 고려 사항은 가족의 빚, 부양, 갈등 등 가족 관련 요인, 불안감과 무기력감 같은 개인 심리, 부족한 인적, 사회적 자본, 주거불안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이다. 이러한 장벽으로 인하여 다른 청년과 공평하게 경쟁하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을 뿐이다(최상미, 유효은, 김한성, 2019).

〈표 2-2-2〉 성별 학력별 청년 취업자의 임금 수준

(단위: 천 원, %)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남자	여자	고졸	전문대 졸	대졸 이상	남자	여자	고졸	전문대 졸	대졸 이상	남자	여자	고졸	전문대 졸	대졸 이상
2000	833	859	821	830	917	1,077	999	1,044	1,037	1,184	1,126	999	1,044	1,037	1,184
2005	1,200	1,201	1,199	1,174	1,306	1,532	1,458	1,416	1,430	1,703	1,586	1,458	1,416	1,430	1,703
2010	1,427	1,446	1,418	1,365	1,563	1,841	1,728	1,640	1,702	2,031	1,941	1,728	1,640	1,702	2,031
2011	1,575	1,609	1,557	1,523	1,712	1,942	1,856	1,770	1,833	2,103	2,011	1,856	1,770	1,833	2,103
2012	1,618	1,641	1,606	1,535	1,768	2,017	1,933	1,818	1,900	2,181	2,088	1,933	1,818	1,900	2,181
2013	1,672	1,709	1,652	1,605	1,808	2,087	2,002	1,900	1,967	2,237	2,162	2,002	1,900	1,967	2,237
2014	1,748	1,775	1,733	1,746	1,800	2,192	2,106	2,065	2,074	2,308	2,267	2,106	2,065	2,074	2,308
2015	1,763	1,788	1,749	1,725	1,876	2,218	2,122	2,052	2,109	2,341	2,302	2,122	2,052	2,109	2,341
2016	1,819	1,862	1,794	1,772	1,801	2,282	2,187	2,133	2,150	2,397	2,365	2,187	2,133	2,150	2,397
2017	1,855	1,928	1,809	1,790	1,824	2,352	2,247	2,170	2,233	2,472	2,446	2,247	2,170	2,233	2,472
증감률	2.0	3.5	0.8	1.0	5.3	3.1	2.7	1.7	3.9	3.1	3.4	2.7	1.7	3.9	3.1

자료: 통계청 (2019e), 2019 청소년 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1/index.board?bmode=read&aSeq=374490&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 2019. 9. 2. 인출하여 자료가 재구성함.

청년의 세대 내 불평등의 심화는 세습자본주의의 성격에 기초한다. 단지 청년 대상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가족 환경과 같이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조건과 이 조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불공정한 보상의 격차 때문이다. 각자도생의 생존주의에 희망이 있는 이들은 경쟁을 선호한다. 그러나 각자도생조차 한계에 다다른 청년들이 보이는 불행은 탈존주의 선택으로 이어지며, 그 선택의 직접적인 사회지표는 자살률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2017년 잠시 리투아니아가 1위가 되었으나 2018년 다시 OECD 자살률 1위로 되돌아갔다(이종선, 전슬기, 2019). 통계청의 ‘2018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자살자는 총 1만 3670명으로 전년 대비 1,207명 증가하였다. 하루 평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는 37.5명이다. 무엇보다 자살은 10대와 30~40대 등 젊은 연령층에서 크게 늘고 있다(이종선, 전슬기, 2019). 자살 증가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조건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이들이 갖게 되는 무력감과 비관이 가장 취약한 청년세대 집단들에게 자살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2-2-3〉 성연령별 자살자 수 및 자살률 추이(2008-2018년)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명, %)

	자살자 수	자살률										
		전체	1-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이상	
2008년	12,858	26.0	0.0	4.6	22.6	24.7	28.4	32.9	47.2	72.0	112.9	
2017년	12,463	24.3	0.0	4.7	16.4	24.5	27.9	30.8	30.2	48.8	70.0	
2018년	13,670	26.6	0.0	5.8	17.6	27.5	31.5	33.4	32.9	48.9	69.8	
2017년 대비	증감	1,207	2.3	0.0	1.0	1.2	3.0	3.6	2.5	2.7	0.1	-0.3
	증감률	9.7	9.5	2.3	22.1	7.2	12.2	13.1	8.2	8.9	0.2	-0.4

자료: 통계청. (2019f). 2018년 사망원인통계 p.18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2. 생애과정 관점 관련 선행연구

생애과정 관점을 논의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연구로는 Dannefer(2003)와 O’Rand(2006), DiPrete와 Eirich(2006)가 있다. 이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개인은 부정적 사건이 발생하거나 불리한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초기의 어려움은 점차 악화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Dannefer(2003)는 실업, 임금 수준은 낮은 직업, 장애 또는 나쁜 건강 상태와 같은 부정적인 노동 성과와 관계가 있으며, 자원수준이 낮은 개인이 나쁜 건강 상태가 될 확률이 높음을 실증하였다. O’Rand(2006)는 생애과정에서의 누적적인 혜택(advantage)과 불리한 연속적인 과정으로 나타나며 이는 유아기와 아동기에 시작되어 개인마다 다양한 생애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갈래로 진행된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과정 관점을 적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가장 주된 이유는 양적으로 축적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2000년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생애과정 관점의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과거의 경험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한 연구들이 아동기의 빈곤, 경제적 어려움과 청년 및 성인기의 경제적, 심리사회적, 건강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또, 이러한 연구들은 생애 초기의 부정적 조건과 경험들은 기회를 제한하거나 장벽으로 작용하여 성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Barbarin et al., 2006; Bradley & Corwyn, 2002; Dearing, 2008; Williamson, Salkie, & Letourneau, 2005).

이르테먼, Lakey, Barnes, Parry(2001)는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생애과정에서 축적된 어려움이 청년의 취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혀냈다. 낮은 학력과 장애, 돌봄 문제 등의 중첩이 취업에 불리로 작용

하였음을 밝힌 것이다. 또, 영국 가계 패널 조사(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BHPS) 18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을 연구한 Muffels(2013)는 저숙련 노동을 하는 청년들은 숙련 노동 청년들에 비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며, 취약한 정체성의 증점은 고용안정성과 소득안정성에 지속적인 불이익을 야기함을 규명하였다. Gibbs, Fergusson, & Horwood(2012)는 10세까지의 가족의 소득, 물질적 환경(material circumstances), 생활 수준이 30세 시점의 교육 성취,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18-30세경의 범죄 경험과 이것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교육의 성취는 고등교육의 이수, 대학 재학 경험, 학사 학위의 획득으로 측정되었으며, 경제적 성과는 개인의 연간 총소득, 상병, 복지 의존(welfare dependence), 경제적 어려움(economic hardship), 유급근로로 측정되었다. 18-30세경의 범죄는 재산·폭력으로 인한 범죄, 체포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 보았으며, 정신건강은 DSM-IV에서 규정한 주요 우울증(major depression)과 불안, 약물남용과 정신건강 문제의 수로 측정되었다. 불안 장애(Anxiety disorder)는 CIDI 척도를 활용하여 일반화된 불안장애, 사회 공포증, 특정 공포증, 광장공포증, 공황장애가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정신건강 문제의 수는 주요 우울증, 불안장애, 약물남용 중에서 총 몇 개의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공변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아동기의 가족의 낮은 소득은 낮은 교육 성취, 빈곤한 경제 상황,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변인, 즉 부모의 교육 수준, 결혼 연령, 학력, 계획 임신 여부, 인종 등을 고려한 경우, 아동기 시기의 가족의 높은 소득 수준은 30세 시점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0세 시점에서의 연간 총소득, 복지의존, 유급근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며, 우울, 불안, 약물

남용, 정신건강의 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가난과 물질적 박탈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결과를 경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울과 약물남용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Dearing, 2008; Lundberg, 1997; McLeod and Shanahan, 1996; McLaughlin, Juliana. Mohok, 2011; Melchior, Moffitt, Milne, Poulton, & Caspi, 2007; Poulton et al., 2002)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또, 아동기에 경험하는 가족의 낮은 소득은 성인기의 낮은 소득과 짧은 근로시간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ncan, Telle, Ziol-Guest, & Kalil, 2009; Duncan, Ziol-Guest, & Kalil, 2010; Hobcraft & Kiernan, 2001). Duncan 외(2009)의 연구에서는 미국과 노르웨이 자료를 분석하여 두 국가 모두에서 아동기에 경험하는 가족의 저소득이 성인기의 낮은 소득과 짧은 근로시간과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Hobcraft와 Kiernan(2001)은 아동기의 가난은 청년기의 저소득과 사회주택(social housing)에 거주할 가능성을 높임을 발견하였다.

관련된 몇몇의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남재욱, 김영민, 한기명(2018)은 고졸 청년노동자가 저임금, 비숙련, 장시간 노동시장에 속하게 된 이유를 원가족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서의 대학 비진학 선택과 노동시장 진입 과정 문제에서 찾았다. 김태완과 이주미(2018)는 청년 빈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회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살펴본 바 있다.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한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과의 차이를 실증 분석 하였는데, 연구 결과 아동기 빈곤 경험이 교육 수준과 경제활동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 내고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아동과 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김문길 외(2017)의 연구에서는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의 6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하여 청년이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력 수준에 따른 안정된 일자리 취업, 임금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원가족과의 동거 여부에 따른 빈곤 수준과 물리적 주거환경의 차이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난 포괄적 정책이 필요하며 생애주기별 빈곤 문제에 대한 고려를 위해 사회지출 구조의 검토가 요구됨을 제안하였다.

과거의 경험과 청년의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보통 청년의 우울은 과거의 부정적 경험보다는 현재의 고용지위, 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황, 주거와 연관하여 살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소득 아동의 우울과 불안감이 높고, 빈곤기간이 길고 아동기 초기에 경험하며, 그 정도가 심할수록 우울 불안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김광혁(2010)의 연구와, 20대 청년의 우울감과 자살 생각은 스트레스, 경제적 박탈 경험, 미취업, 부모의 사회적 지지 결여 등이 주된 영향을 미침을 실증한 김지경과 이윤주(2018)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년의 우울은 지난 생애과정의 경험과 유관할 것으로 유추된다.

제3절 청년정책의 동향과 쟁점

1. 개요

하나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은 매우 포괄적이다. 아동과 노인에 대해서도 개별 사업들은 보호, 돌봄, 지원 등으로 정책의 목표

를 분류하는데, 헌법 제34조의 생존권, 즉 ‘인간다운 생활’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의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으로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내용을 구성한다. 그리고 소득보장은 최저보장과 최저임금을 참고하여 수급권의 수준을 결정하고, 서비스보장은 건강, 주거, 고용, 교육 등의 분야에서 수급권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그러나 청년정책은 그 대상에서부터 사회보장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모호하다. 각 정부부처의 사업은 청년을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분류하지도 않거니와 청년 연령의 기준도 제각기 다르다. 청년정책은 그 종류나 예산을 분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 청년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나 독자적인 분류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배제하지 않는 수준의 정책들이어서 종합적인 분석도 어렵다(최하예, 황성수, 2019). 또한 청년정책이라는 것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기업채용 인센티브 등 대학과 기업에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청년 대상 직접 지원 사업은 정부가 홍보하는 청년 예산 중 1.5%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이진우, 이건혁, 2017).

이렇게 청년정책은 법적 근거나 집행 체계가 매우 모호하다. 김기현(2017a)은 청년정책의 모호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첫째, 청년은 법적 보호나 정책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청년은 성인기의 일부 또는 청소년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 왔고, 여성이나 노인 또는 아동처럼 전통적 취약계층에 해당되지도 않기 때문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둘째, 최근까지 청년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청년정책 전반을 전담하거나 총괄, 조정하는 행정부처가 없었다. 셋째, 청년정책은 정부의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 중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취업 및 창업사업, 보건복지부는 자산 형성 사업 또는 사회서비스사업, 교육부는 장학금사업, 여성가족부는 여성 청년 지원,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원 사업 등 개별 사업에 청년 대상을 포함하여 관련 예산이나 정책을 독립해서 분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다만, 청년정책의 종류와 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다.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소개하는 청년정책은 중앙정부 162건, 지방자치단체 3561건이며, 이 사업들은 크게 취업지원, 창업지원, 생활복지, 주거금융 유형으로 구분된다(온라인 청년센터, 2019a).

청년정책은 대체로 일자리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약도 다름 아니라 산업혁신과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여 청년 맞춤형 일자리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2만 8000명,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 소요 기간 단축 및 장기근속 유도,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1만 개 창출이다(관계부처합동, 2018). 물론 고용은 청년정책의 시작점이다. 일자리는 소득, 주거, 결혼 그리고 빈곤 문제의 해결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청년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등치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다른 세대와 형평하지 않다. 청년의 생애주기적 과제로서 일자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다른 세대보다 크지만, 사회보장 측면에서 고용보장이 절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은 안정된 일자리를 공급하는 활성화 측면과 함께, 복지급여의 관대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실업과 불안정 노동이 만연한 오늘날 청년은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용,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이다. 이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정책과 함께, 현재 삶의 기본적 조건들을 보장하는 정책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년에게도 복지국가의 5대 사회보장 영역인 고용, 소득, 주거, 교육,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을 5대 사회보장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2. 영역별 청년정책의 동향과 쟁점

가. 청년고용정책의 동향과 쟁점

문재인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의 체계는 2018년 3월에 발표한 청년고용 촉진방안(관계부처합동, 2018)에 담겨 있다. 구체적인 정책은 (1) 기업·청년 인센티브 패키지, (2) 청년의 취업 준비 지원, (3)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업·청년 인센티브 패키지는 기업과 청년에게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이다. 취업 준비 지원은 고용서비스 제공에서 청년센터 등 더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며,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은 취업성공패키지와 일자리 매칭 활성화 그리고 개인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2019년 약 2조 3000억 원 규모의 청년고용정책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은 <표 2-3-2>와 같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약 1조 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6745억 원, 청년취업성공패키지 3710억 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1597억 원 순이다(경실련, 2019). 각 정책을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온라인 청년센터를 바탕으로 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2 생애과정 관점의 수요자중심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표 2-3-1〉 문재인 정부 청년고용촉진정책의 구체적 내용

기업·청년 인센티브 패키지	청년의 취업 준비 지원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 ② 고용증대세제 개편 ③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④ 재직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⑤ 여유 있는 직장탐색기간 보장 ⑥ 희망사다리 장학금 연계 강화 및 부담 경감 ⑦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⑧ EITC 대상 확대 ⑨ 중기 청년 주거비 저리 융자지원	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② 온라인 청년센터 구축 ③ 오프라인 청년센터 설치 ④ 채용공고 시 선발기준 정보 공개 ⑤ 선발 결과 피드백 문화 정착 ⑥ 청년대상 훈련 및 취업지원 확대 ⑦ 훈련사다리 신설 ⑧ 산업 수요 반영한 훈련 촉진 ⑨ 장애청년 훈련 확대 ⑩ 스마트플랫폼 구축 ⑪ 진로지원 개선방안 마련	① 취업성공패키지 심층적·전문적 상담 제공 ② 취업성공패키지 평가지표·위탁비 지급체계 개편 ③ 워크넷 개인 맞춤형 서비스 ④ 워크넷 머신러닝 기반 자동추천 ⑤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고용지원 ⑥ 청년일자리사업 조기집행 및 청년사업 비중 확대 ⑦ 성과평가 시 청년일자리효과 반영 ⑧ 고용위기지역 우선 선정 ⑨ 근로시간 단축 추진 ⑩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 ⑪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8). 청년고용촉진방안. 고용노동부.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표 2-3-2〉 청년고용지원 예산의 현황

(단위: 억 원)

청년 일자리 예산	2019년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9,971	4,25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745	3,417
청년취업성공패키지	3,710	5,02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597	-
해외취업지원	560	526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	281	235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260	319
한국잡월드운영	212	192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211	246
청년센터운영	53	76
합계	23,600	14,298

자료: 경실련. (2019). 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 자료집에서 재인용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1) 청년내일채움공제²⁾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입직한 청년에게 자산 형성 방식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청년 2년형과 3년형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이다. 학력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1~5인 미만 기업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청년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 원)와 기업(400만 원, 정부 지원)이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며, 청년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 원)와 기업(600만 원, 정부 지원)이 공동으로 적립하여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는 것이다. 기업은 채용유지지원금을 2년 500만 원, 3년 750만 원 지원한다.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³⁾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또는 추가로 채용한 우선 지원 대상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

2) 정책 내용은 고용노동부(2019c)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3) 정책 내용은 고용노동부(2019d)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됨)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1)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2) 기업 전체 근로자 수(피보험자 수) 증가이다. 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른데, 30명 미만 규모 기업은 청년 1명 이상, 31명에서 99명 규모 기업에서는 청년 2명 이상, 100명 이상 기업은 청년 3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이다. 지원 수준은 지원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며,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한다.

3) 청년취업성공패키지⁴⁾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 참여자의 특성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간 3단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진행되었다. 이는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 직업훈련, 일 경험 등 직업능력 증진(2단계) → 취업 알선(3단계)」을 단계에 따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2019년 기준 22만 7000명으로, I 유형은 만 18세~34세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영세업자(연간매출액 1억 5000만 원 미만) 및 특정취약계층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 비진학 청년이다. II 유형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청년이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다. 패키지 I 유형의 경우, (1단계) 상담 및 진단 시기에는 최대 25만 원, (2단계) 직업능력 증진 기간에는 훈련비로 300만 원과 참여수당 최대 40만 원(6개월)을 지급한다. 그리고 3단계에는 취업 또는 창업 성공축하금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패키지 II 유형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되, 수당만 20만 원과 40만 원, 훈련비 200만 원으로 차이가 있다.

4) 정책 내용은 온라인 청년센터(2019b)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4) 청년구직활동지원금⁵⁾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노동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월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이 제도가 2020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급하는 1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2유형이 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으로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취업 경험 요건으로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인 자에게 선발형으로 수당을 지급하며, 청년은 중위소득 50% 이상 120% 이하 중에서 선발한다. 2유형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통합화이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외취업지원,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한국잡월드운영,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센터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정책 인지도 결과를 살펴보면, 대다수 청년들은 정부의 청년고용지원 사업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16; 이윤주, 김기현, 하형성, 손원빈, 2017에서 재인용). 그중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업은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 습득용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이며, 그다음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순이다. 청년들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청년고용촉진 사업들이 청년들에 대한 직접 지원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년고용지원을 위한 예산은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훈련기관이나 중소기업 등을 통한 간접 지원

5) 정책 내용은 고용노동부(2019e)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이며 실질적 혜택이 아니라는 것이다(경실련, 2019).

청년들의 고용문제는 일자리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저임금 일자리는 구인난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다. 즉, 청년들이 선택하지 않는 일자리는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이며, 이러한 일자리는 이미 매우 많다. 따라서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훈련이나 고용장려금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불분명하다. 직접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이 정부재원을 통해 단기적으로 취업의 인센티브만 제공하는 고용정책보다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용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 고용의 문제가 단지 취업 알선 프로그램의 부족이나 교육훈련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의 청년노동시장 과제는 어떻게 보상의 격차를 줄이는가이다. 따라서 청년의 열악한 노동시장 보상을 보충하여 자산을 형성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리고 시간적으로 강요된 취업보다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이 청년들의 장기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청년 소득보장 정책의 동향과 쟁점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을 위한 대표적 공공부조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소득보장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연금이 있을 뿐이며, 청년에 대한, 중앙정부 단위의 소득보장 정책은 없다. 따라서 청년을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구제하는 사회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 대상이 중장년 이상과 노인가구이다. 2018년 기준 수급자는 생계급여의 경우 123만 명, 의료급여 140만 명, 주거급여 153만

명, 교육급여 31만 명이다. 전체 일반수급자 중 65세 이상 인구는 32.8%, 중년기(40~64세)는 34.9%이고, 청년기(20~39세)는 16만 5000명 약 10% 규모이다. 청년수급자는 청년인구 대비 1.2%에 불과하여, 연령대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세대별 수급자 비율은 노인 7.1%, 청소년 5.7%, 학령기 3.6%, 중년기 2.8%이며, 가장 낮은 비율이 청년 1.2%이다. 청년은 빈곤한 인구 비율이 특히 낮은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 및 가구독립 지연 등으로 수급자 비율이 낮은 것이다(보건복지부, 2019a).

상황이 이러하지만, 추가적인 청년소득보장 사업은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유일하다. 이 사업은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 중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탈수급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이다. 근로, 사업소득인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0% 이상인 수급 청년에게는 3년 동안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소득의 1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저축하게 하고,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3년 평균 1422만 원 최대 2145만 원을 적립하도록 돕는다. 3년이 지나면 적립금을 일시 지급하는데,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즉 생계급여를 중지할 경우 공제액과 장려금을 모두 지급한다(온라인 청년센터, 2019c). 따라서 이 사업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수급 자격에서 벗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소득보장 사업의 취지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청년 주거보장 정책의 동향과 쟁점

청년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성인기로 이행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주거는 독립의 요건이 된다. 또한 청년의 주거는 복지와 빈곤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좀 더 의

존하고,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므로 빈곤율이 낮다. OECD 국가별로도 청년의 주거 형태에 따른 빈곤은 크게 차이가 난다. 북유럽에서는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낮고 청년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활한다. 핀란드의 경우 청년의 주거 독립은 41%를 차지한다. 이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OECD, 2016). 반면 주거비 부담은 높는데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는 최근 이러한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 연령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년 주거지원정책은 만 19~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 금융 지원,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된다(변수정 외, 2018).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형 그리고 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 30만 실 공급 계획을 마련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7). 또한 주택 구입을 위한 자산형성과 자금 지원,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도 구체화하였다.

1) 청년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주택⁶⁾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에는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공지원주택, 대학생 기숙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은 만 19세~39세 청년 중 주택이 없는 사람을 기본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 등 상황에 따라 공공임대, 공공지원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급한다.

6) 정책 내용은 관계부처합동.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국토교통부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표 2-3-3〉 공공임대주택 25만 실(연 5만) 공급 및 기숙사 5만 명 지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평균
합계	7	5.5	5.7	5.9	5.9	30	6
청년 공공임대(호)	2.0	2.5	2.7	2.9	2.9	13	2.6
청년 공공지원(실)	2.4	2.4	2.4	2.4	2.4	12	2.4
대학생 기숙사(명)	2.6	0.6	0.6	0.6	0.6	5	1

주: 1) 청년 공공지원주택은 호수 기준으로는 연 1만 2000호씩 공급(6만 호×2=12만 실)함.

2) 기숙사는 사업이 확정되었으나 미입주한 물량이 포함됨.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국토교통부.

현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의 핵심 정책은 공공임대로서 행복주택과 전세임대이다. 청년행복주택은 총 7만 호를 제공할 계획이며, 행복주택은 철도 용지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지은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만 19~39세의 미혼인 무주택 청년이고,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과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은 본인과 부모 소득의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 사회초년생은 해당 세대의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본인은 80% 이하)에 해당될 때 입주 대상이 된다.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이다.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는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중 공급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여 전세금을 지급하고, 청년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이다. 임대받은 청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증금과 매월 전세금 이자를 지급한다.

청년 공공지원주택은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20만 호 중 6만 호를 이용하여 12만 실을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에게 특별 공급 하는 것이다. 대상은 만 19~39세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이며,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시세의 70~85%의 임대료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대학생 기숙사 확충은 금융 지원 및 건축규제 완화로 캠퍼스 내외 기숙사의 입주 인원을 5만 명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된 정책 수단은 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이다.

2) 청년 금융 및 정보 지원⁷⁾

주거복지로드맵은 자가나 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보탬이 되도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여,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또한 청년 전세대출 지원 강화를 통해서 19세~25세에 해당하는 단독세대주에게도 전세자금 대출(한도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통해서 취업 준비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월 30만 원 내)하는데, 점차 월 대출한도를 확대(30만 원→40만 원)한다. 청년 주거정보 제공은 관련 정보를 쉽게 얻도록 하기 위해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대학교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주거복지센터, 지자체가 대학, 청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주거 상담 및 교육을 추진한다.

현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은 시민사회로부터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정부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확대, 주거취약계층 주거 복지 강화 등은 획기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도 현실이며, 대상층을 확대하면서 대기자 명단 없이 신청으로 모집하다 보니, 절실한 청년 수요자에게 공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른 개선점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7) 정책 내용은 관계부처합동.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국토교통부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라. 청년 교육보장 정책의 동향과 쟁점

현 정부의 청년 교육보장 정책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인 국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등록금·생활비를 대출하는 학자금 대출이다(정책위키, 2019). 2018년 기준 전체 대학생 338만 명 중 54.1%에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장학금 120만 명, 학자금대출 63만 명), 저소득 청년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양정승(2018)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은 특히 저소득 청년들이 대학 졸업 이후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 저소득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고, 선망 직장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첫 취업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는 낮았다. 고용 성과 개선은 저소득층 가구 지원뿐 아니라 청년지원을 통한 직접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저소득 청년의 휴학 경험과 아르바이트 경험을 낮추고 재학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였다. 그런데 이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층의 부담은 여전히 높다. 예컨대, 대학생의 반값등록금 수혜율은 2017년의 경우 23%에 불과하여, 여전히 체감도가 낮다(교육부, 2018).

마. 청년 건강보장 정책의 동향과 쟁점

청년문제는 고용, 빈곤, 주거와 더불어 건강 측면, 특히 심리·정서적 건강 영역에까지 닿아 있다. 청년정책이 단지 취업지원정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청년의 삶’을 지지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의 기본적 욕

구인 건강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은 시·군·구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층을 포괄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은 주로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지경, 이윤주, 2018).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건강보장의 사각지대인 20세 이상 모든 청년들도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전 건강검진 대상자는 40세 이상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20~30대 직장 및 지역 가입자였다. 사실 청년들은 여러 가지 건강 위험요인에 둘러싸여 있다.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뿐 아니라 만성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소화계 질환 등이 청년에게도 나타나고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윤소하 의원 보도자료, 2017).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건강검진과 센터의 서비스 외에 특별한 정책수단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3. 시사점: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의 정합성 검토를 중심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주된 방향은 고용이지만 좋은 일자리 제공은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구조 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이 더 많은 고용을 통해 더 나은 경제적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지 않다. 경제적 성장과 소득 증대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성장의 고른 분배를 차지할 만큼의 기여도가 높거나 정치적인 목소리를 획득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음과 같은 주장이 대두된다. 청년이 지닌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생존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이 먼저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변화의 맥락과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 없이, 권리성 급여에만 주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쟁점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가. 청년 사회보장은 '일'을 전제로 하는가?

고용이 양극화되고 있다. 기술 혁신이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는 매우 높은 수준의 지식정보 숙련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반면, 다수의 일자리는 휘발성이 강한 프레카리아트 집단을 창출할 것으로 예견된다. 청년의 사회 진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는 16.81%로 비중이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지만(산업통계분석시스템, 2019), 2015년 이후 매년 소멸하는 일자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9g). 지난 수십 년간 고용 창출의 일등 공신이었던 서비스업도 고용을 흡수하는 여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서비스업도 점차 극대화된 생산성 향상을 보여 주고 있어 고용 잠재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 혁신은 상당한 수준으로 사회적 후생을 높이기 때문에 고용을 위해 속도를 늦추기는 어렵다. 미래 사회가 단지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 비싼 비용과 높은 세금으로 유지하는 저생산성을 감수할 수는 없다. 모든 청년을 최첨단 기술 분야의 숙련 인력으로 만들 수 없다면, 현재 청년들의 고용 훈련은 쓸모없을 가능성도 있다. 청년 추가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로 중소기업에 연 9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취업매칭의 성과를 유도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고용지원정책은 현재의 청년가구 및 개인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한계 기업의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청년들을 유인하는 단기적인 성과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인 취업 성과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1년 고용 유지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며, 고용지원금에 의한 인건비 지원 일자리도 저임금 일자리를 유지하다 지원금 종료와 함께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청년구직수당도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받기 위하여 강력한

활성화 조치들을 수용해야 하는데, 청년들이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은 첫 직장이 안정적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대상이 니트에 초점을 둔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발생한 비정규직 중심의 불안정 노동 증가가 주요 원인이므로, 일시적 지원과 단기적 취업지원은 오히려 장기적 진로 설계와 역량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김문길, 이주미, 2017).

청년 고용은 두 가지 구분된 접근이 필요하다. 하나는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지원이다. 한계기업의 불안정 일자리가 아니라 고용안정과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공공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에 청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공공 및 사회적 일자리는 임금 측면에서는 더 나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가치나 개인의 성취 측면에서 보상이 되는 일자리로서 청년들의 취업선호도가 높다. 공적 재원으로 지원하는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이에 공익을 위한 일자리에 고용촉진사업을 집중하여 청년에게 사회적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보편적으로 청년의 삶의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장기적으로 더 나은 삶의 기회를 확장하여, 스스로 혁신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에 단순한 '고용지원정책'보다는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소득 및 서비스 보장 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취약계층 청년 대상 소득 및 서비스 보장

청년 세대 내 갈등은 여러 양상이 있지만 계층 간 갈등이 골이 가장 깊다. 부모의 계층지위가 세습되는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청년은 균일하지

않다. 자산이 부족한 청년은 더욱더 불리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부모의 도움 없는 청년들이 중산층에 진입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기회의 격차보다는 보상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취업하고 나면 스스로 더 좋은 일 자리로 옮겨 나아가라는 정책 로드맵보다는, 저임금 노동시장의 청년들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소득을 보충하고 자산을 형성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공적이전 소득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문길과 이주미(2017)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30세 미만의 가구주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고, 60세 이상의 가구주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부채는 30세 미만 청년 가구주 가구의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고 60대 노인 가구주 가구의 부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등의 공적이전 소득의 효과 대비 청년은 이전소득에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2013년 이후 빈곤 위험은 18~25세 청년을 꼭짓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지는 L자형에 가까운 곡선이다. 청년은 실업률이 높고, 니트와 저임금 불안정 노동 집단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적이전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 2014년 공적이전의 빈곤완화 효과는 청년 9.7%, 근로연령 성인은 16.5%로 큰 차이를 보인다(김문길, 이주미, 2017).

청년정책의 우선 대상은 청년 1인 가구이다. 이들의 빈곤율은 2014년 기준 21.2%이며, 빈곤과 더불어 주거 빈곤 및 불안정 고용이 집중되는 집단이다(김태완, 최준영, 2017). 따라서 빈곤 청년에게 가장 주요한 소비지출인 주거비에서라도 청년 자립이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는 행복주택의 경우도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다(관계부처합동, 2017). 따라서 공공임대와 전세임대 등 공공의 주거지원이 청년 빈곤층에 우선 배정되기 어렵다. 서비스 보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필수 생

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증대하는 효과를 지닐 수 있다. 무상보육과 교육비 그리고 훈련비와 주거비와 같은 추가적인 소비가 공공서비스로 대체되면, 소득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 사회보장인가? 적극적 복지인가?

청년정책이 위험회피적인 개입만 고려하면, 저임금 불안정 고용이나 주거 빈곤 등과 같은 사후 대응만을 다루게 된다. 청년은 한정된 기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주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기회의 차별 시정을 요구한다. 차별적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 주도의 보편적 복지로 해결되기 어렵다. 청년의 적극적 복지, 참여, 건강한 생활방식, 권리와 의무 등 청년의 사회정책은 의사결정의 탈중심화와 당사자 기여가 필수이다.

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선호는 무상복지와 같은 급여는 아니다. 김영미(2018)에 따르면, 청년지원정책과 일자리지원정책 지출에 대해 청년들은 현재 수준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9.5%와 59.7%이며,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1%가 찬성했다. 그러나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산업시대의 고임금 안정적 일자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미 그러한 일자리는 시한을 초과하였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지위 획득이 목표인 일자리가 아니라 삶 전반에서 만족과 행복을 향유하게 하는 자리이다. 좋은 일자리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반영한다. 이는 복지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청년은 과거 복지국가의 급여 중심의 전달체계에 만족하지 못한다.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에서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청년급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청년은 사명감 혹은 일의

가치를 중요히 여기기보다 일과 삶의 균형과 새로운 경험, 가치를 높이 여긴다(오재호, 2018). 청년은 끊임없이 학습하고, 직업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한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라는 정체성은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내기도 하며, 소유보다는 체험을 소중히 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의 권리를 획득하고자 한다.

따라서 청년세대를 타자화함으로써 복지국가의 대상으로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개별화된 정체성에 부합하는 정책의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예컨대, 서울시는 청년들이 정책 기획부터 예산 편성까지 주도하는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시행하였고 2019년에는 335억 원 규모로 그 내용을 확정하였다(고현실, 2019). 청년자율예산제는 서울시 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제도로서, 5개월간 서울청년시민위원 500여 명이 숙의,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83개 청년 사업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청년들이 편성한 예산은 서울형 중소기업 복리후생 계좌(50억 원), 서울형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46억 6000만 원) 등이 높은 득표를 얻었다. 이 밖에 노동 안정 수당, 유급병가제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된 바 있다.

제4절 소결

오늘의 청년들은 이전 세대와 출발선이 다르면서도, 또한 각자 다른 출발선에서 있다. 이들이 게임의 공정함에 민감한 것은, 그만큼 공정함이 매우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게임의 결과에 따른 보상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정책은 청년을 미래의 준비자 정도로만 간주하고 공정한 출발선에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청년정책은

게임의 결과와 상관없이 적절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좀 더 다가설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왜 불행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격차와 미래의 불확실성이다. 아무리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미래의 희망이 보이면 현재를 극복할 수 있다.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현재의 삶이 모두 다 겪는 어려움이라면 이 또한 불행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제는 현재와 미래 두 가지의 실패이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고통의 근원은 불평등이다. 청년 세대가 경험하는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불안함도 단순히 불안정 노동과 이로 인한 저임금이 아니다. 88만원 세대론과 같이 청년 내 계급불평등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청년의 현재는 자기개발에 따른 성취가 강조되는 현재이며, 자격증, 학점, 인턴, 어학연수 등 이른바 스펙 관리에 고달프고, 이에 취약한 청년들은 생활고로 인하여 그 스펙 관리에 오롯이 투자할 수 없음에 좌절하는 불평등이다. 취약계층 청년의 미래는 불안정 노동에서 벗어나기 힘든 자신과 가족 부양의 고달픈 삶을 예견한다(우석훈, 박권일, 2007).

세대 간 경제적 불평등의 맥락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최준욱, 정도진, 박성환, 김종현, 강평경, 2018). 첫째, 자원과 환경 측면에서의 불평등이다. 한정된 자원을 한 세대가 고갈시키면, 다음 세대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환경과 재정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문제로 설명된다. 둘째, 연금이나 국가부채 등으로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적 측면이다. 과연 누가 부담하고 누가 더 혜택을 받는가의 문제이다. 셋째, 세대별로 다른 경제 상황에 직면한다는 논이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노동시장도 수요와 기회의 격차가 발생한다. 넷째, 세대 불평등이 사용되는 주요한 측면 중 하나는 세대 간 이동 가능성의 차이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는 무엇보다 셋째와 넷째 조건에 있다. 오늘날의 청년은 부모 세대와 비교할 때, 최초로 가난한 세대이다. 물론 이를 세대 간 불평등으로 인식하기는 힘들다. 경제성장의 근본적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한 세대가 누리는 물질적 혜택이 다른 세대와 같아야 한다는 결론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산업화 세대들은 분명 더 나은 물질적 삶을 성취하고 영위할 수 있었지만, 탈산업화 저성장 세대는 그 책임을 이전 세대에만 묻기는 어렵다. 즉, 경제성장률의 차이를 세대 간 분배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 간 재분배나 불평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보다는 한 세대의 갈등을 구성하는 조건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정체되기 시작하면 점차 상대적 지위에 주목한다. 청년들의 대학 진학과 입시 경쟁, 일자리 경쟁 그리고 희소성을 차지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욕구 등은 풍요의 역설을 보여 주며, 과도한 지위 경쟁은 상호 간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자크 아탈리, 2018). 생존주의는 청년들이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지위 경쟁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청년정책은 새로운 생산과 분배 체제에 맞추어 청년 사회보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청년정책은 고용촉진이 아닌, 삶의 기본권 보장이어야 하며, 그 내용은 청년들이 적극적인 사회구성원 역할을 저마다 맡도록 하는 적극적 사회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포용과 적극적 평등의 대상으로서의 청년, 권리보장의 절차적 참여 주체로서의 청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 수급권자로서의 청년 등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이 가족 배경의 열악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청년이 혼자서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개인 중심의 수급권이 사회보장 각 영역에 구체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 3 장

불리의 경험과 청년의 삶:
양적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3

불리의 경험과 청년의 삶: << 양적 분석

제1절 개요

‘청년’은 연령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년’의 시작은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신입생으로, 혹은 교육과정을 마치고 사회인으로 출발선에 서 있는 시기를 말한다. 그러나 설레는 출발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가능성의 시기로 청년을 바라보기에 지금 우리 사회 청년의 삶은 고달프다. 물론 비싼 등록금, 주거 불안정, 청년 실업, 집단 무력감 등의 부정적 상황이 모든 청년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다른 연령집단과 같이 청년층 내에서도 격차가 있다. 성별과 학력에 따라서 다르고 가족 배경 등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3장에서는 청년의 삶을 교육(학력), 고용, 소득, 건강으로 구체화하고, 과거의 불리 경험과 청년의 현재를 살펴본다. 청년의 부정적 경험 그리고 불평등이 있다는 현상 그 자체보다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격차를 줄여 나갈지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 교육과 고용, 소득과 건강은 청년의 다차원적 삶의 구성요소이자 포용적 사회보장의 영역(보건복지부, 2019b)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을 지닌다.

[그림 3-1-1] 양적 분석 영역



제2절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⁸⁾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1차 조사가 시작되어 2019년 현재 13차 조사까지 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며 가구 일반 사항 외에 소득, 자산, 부채, 지출, 생활 여건, 인식, 고용, 사회복지급여수급, 건강 등이 조사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다만, 한국복지패널은 조사 목적에 따라 저소득층을 과대표집 하였으므로 분석 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8) 청년의 고용, 소득, 건강을 살펴볼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자료로는 청년패널, 교육고용패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복지패널, 노동패널 등이 있다. 다양한 분석 자료 중, 본 절의 분석 목적을 고려하여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구 특성에 대한 자료가 비교적 다양하게 장기적으로 수집되었고, 신체적 건강 및 정신건강,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와 관련한 특성까지 파악할 수 있는 복지패널이 분석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표본 수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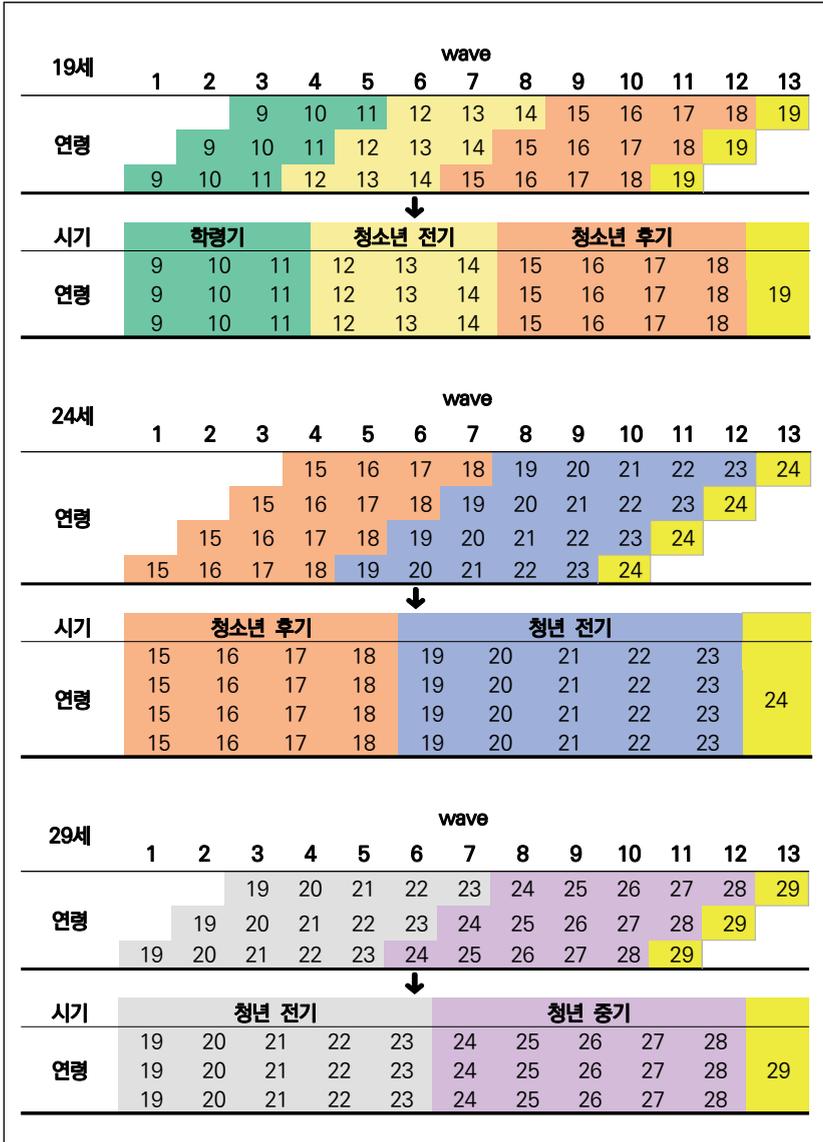
2. 분석 대상

청년 연령에 대한 논의는 학자별로도 다르고 법과 제도에 따라서도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청년의 연령은 만 19세~34세까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의 활용 가능성과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입학, 졸업 시점, 노동시장 진입 완결 예상 시점 및 선행연구들에서의 청년기 구분을 고려하여 만 19세, 24세, 29세 청년을 중심으로 양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만 30세 이상의 청년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이유는 이들의 과거 불리 경험은 이 연구가 적용하는 분석 방법과 한국복지패널의 추적 기간을 고려할 때 살피기 어렵기 때문이다.

19세, 24세, 29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전 시기의 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19세 청년의 경우 9세부터 18세까지, 즉 학령기와 청소년 전기, 후기를 살펴볼 수 있으며, 24세 청년은 15세부터 23세까지인 청소년 후기와 청년 전기를, 29세 청년은 19세부터 28세까지인 청년 전기와 중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9세~11세까지를 학령기, 12세~14세를 청소년 전기, 15세~18세는 청소년 후기로 구분하고, 19세에서 23세는 청년 전기, 24세에서 28세는 청년 중기로 구분한다.

한국복지패널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님에 따라,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사례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패널 자료를 아래 그림과 같이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11차~13차 연도의 19세 510명, 10차~13차 연도의 24세 564명, 11차~13차 연도의 29세 346명을 분석 대상으로 확보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재구조화 작업은 Ju(2009)를 참고하였다. 또, 통계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13차 표준 횡단면분석 가중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림 3-2-1] 분석 자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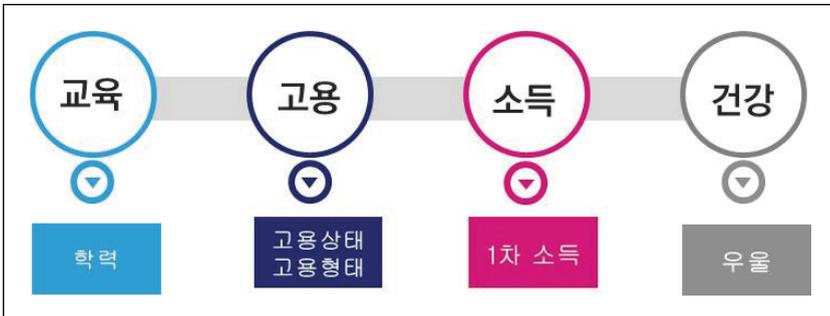


3. 변수 구성 및 분석 방법

가. 청년의 삶: 교육, 고용, 소득, 건강

청년의 교육, 고용, 소득, 건강은 학력, 고용(고용 상태, 고용 형태), 1차 소득, 우울로 구체화하였다. 학력은 (1) 고졸 이하와 (2) 전문대학 재학, 중퇴, 졸업, (3) 4년제 대학교 재학, 중퇴,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고용은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는 고용 상태와 상용, 임시일용 및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 및 고용주로 구분하는 고용 형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소득은 개인 단위의 소득을 측정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과 사업·부업소득, 재산소득의 합인 1차 소득으로 파악하였으며, 건강은 우울을 측정하였다.

[그림 3-2-2] 교육, 고용, 소득, 건강 측정



〈표 3-2-1〉 청년의 삶: 교육, 고용, 소득, 건강의 측정

영역	변수	내용
교육	학력 (재학 상태)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학 재학, 중퇴, 졸업 ③ 4년제 대학교 재학, 중퇴, 졸업 이상
고용	고용 상태	[본인 기준] ① 취업 ② 실업 ③ 비경제활동인구
	고용 형태	① 상용직 ② 임시,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③ 자영업, 고용주
소득	소득 수준	1차 소득(primary income):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재산소득의 합
건강	우울	CESD-11 우울척도 총점

나. 불리 경험

생애과정의 불리 경험은 가구 빈곤 경험, 빈곤의 지속, 가구주 실업 여부, 주거 불안정 경험(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비 과부담), 부모의 최종 학력을 통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가구 빈곤 경험은 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경상소득 중위 6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또한, 빈곤의 지속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년을 포함하여 지난 3년의 기간 중 2번 이상, 4년 또는 5년의 기간 중 3번 이상 빈곤 상태를 경험한 경우를 지속빈곤이라 보았다. 이러한 빈곤의 지속은 OECD(2006)의 측정 방식을 참고한 것이다. 주거 불안정은 물리적 측면의 최저주거기준과 경제적 측면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으로 측정하였다. 최저주거기준은 국토해양부가 2011년에 공고한 최소주거면적, 필수 설비, 구조, 성능, 환경 기준을 참고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조·성능·환경 기준, 필수 설비 기준, 방 개수 기준, 면

적 기준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준 미달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구조·성능·환경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국토교통부(2018)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표(주거실태조사)에서도 면적과 필수 설비를 중심으로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였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주택 구조성능 및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응답 문항을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활용하여 면적과 필수 설비를 중심으로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다.

주거비 부담은 소득 대비 임대료를 나타내는 RIR(Rent for Income Ratio)을 활용하였다. 주거비는 주택 구입비를 제외한 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로 정의하였으며, 자가 가구와 전세 가구의 경우, 월세로 지출되는 비용이 별도로 없으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비용과 자가 가구의 주택자금대출 이자 비용을 포함하였다. 즉, 주거 관련 부채 연간 이자를 사용하여, 이를 월 단위로 계산하였다. 정리하면, 주거와 관련한 비용으로 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주택 관련 이자를 합산하여 가구별 월 주거비 지출을 파악하였으며, 지출이 가처분소득 대비 30% 이상일 때 주거비 과부담으로 보았다.

부모의 학력은 무학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4년제 대학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청년의 고용 형태는 상용직, 임시직 또는 일용직 또는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 또는 고용주로 구분하였다. 한편, 각각의 불리 경험은 연령에 따라 투입 여부가 상이하다(〈표 3-2-3〉참조). 영역별 변수 및 구분은 다음 〈표 3-2-2〉와 같다.

〈표 3-2-2〉 불리 경험

구분		내용
빈곤	빈곤	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경상소득의 중위 60% 미만
	빈곤의 지속성	① 비빈곤 ② 단기빈곤 ③ 지속빈곤
가구주 실업		가구주의 실업 여부
주거 불안정	최저주거기준	① 시설: 단독 사용 상하수도, 입식 부엌, 단독 사용 수세식 화장실, 단독 사용 목욕시설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면적: 최소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지속성	① 경험 없음 ② 단기경험 ③ 지속경험
	주거비 과부담	월 주거비 지출이 가처분소득의 30% 이상
부모 학력		① 무학/초등학교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 ⑤ 4년제 대학 이상
청년의 고용 형태		① 상용직 ② 임시,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③ 자영업, 고용주

주: 학령기(9~11세), 청소년 전기(12~14세)의 지속빈곤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속경험의 기준은 지난 3년 동안 2번 이상의 경험이며, 청소년 후기(15~18세)는 지난 4년 동안 3번 이상의 경험임. 또한 청년 전기(19~23세)와 청년 중기(24~28세)의 기준은 지난 5년 동안 3번 이상의 경험임.

다. 청년시기별(19세, 24세, 29세) 분석 내용

19세, 24세, 29세 분석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19세는 학력과 우울을 분석하며, 24세는 학력, 고용, 소득 수준, 우울을, 29세는 고용, 소득 수준, 우울을 분석하였다. 19세경의 학력은 대학 입학 등 개인에 따라 교육이 끝난 시점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고졸 이하나 대학 재학 등 현재의 상태를 살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분석에 포함하였다. 즉, 19세의 학력은 대

상에 따라 재학 상태의 측정이라 볼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대학 졸업 뿐 아니라 대학 재학과 중퇴도 조사하므로 그러한 분석을 할 수 있다. 24세는 모든 결과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29세의 경우, 19세경의 생애 경험부터 파악함에 따라 아동청소년기 영향력이 큰 학력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3-2-3〉 연령별 분석 내용

19세		24세		29세	
구분	불리 경험	구분	불리 경험	구분	불리 경험
학력	빈곤 가구주 실업 주거 불안정 부모 학력	학력	빈곤 가구주 실업 주거 불안정 부모 학력	고용	빈곤 가구주 실업 주거 불안정
우울	빈곤 가구주 실업 주거 불안정	고용	빈곤 가구주 실업 주거 불안정	소득 수준	빈곤 가구주 실업 청년 본인의 고용 형태 주거 불안정
		소득 수준	빈곤 가구주 실업 청년 본인의 고용 형태 주거 불안정	우울	빈곤 가구주 실업 주거 불안정
		우울	빈곤 가구주 실업 주거 불안정		

제3절 분석 결과

1. 기초분석

가. 주요 특성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19세 43.1%, 24세 58.0%, 29세 51.8%였으며, 여성은 19세 56.9%, 24세 42.0%, 29세

48.2%였다. 학력은 19세 청년은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40.6%, 대학교 재학, 중퇴, 졸업 39.8%, 전문대 재학, 중퇴, 졸업 19.6% 순으로 나타났으며, 24세 청년은 대학교 재학, 중퇴, 졸업 45.7%, 전문대 재학, 중퇴, 졸업 27.7%,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26.6%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29세 청년은 대학교 재학, 중퇴, 졸업에 해당하는 비율이 49.8%로 거의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비율은 21.4%로 19세와 비교하여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용 상태의 경우 19세 청년은 학업, 진학준비 중인 경우가 많아 75.2%가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였으며, 22.7%가 취업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24세와 29세는 취업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7.0%, 78.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고용 상태가 취업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고용 형태를 살펴보았는데, 19세 청년 중에서는 상용직이 약 30%, 나머지가 임시, 일용직이었으며, 24세 청년은 50.8%가 상용직이었고 45.8%가 임시, 일용직으로 나타났다. 29세 청년은 66%가 상용직, 27.9%가 임시, 일용직이었으며, 6.1%가 고용주나 자영업에 해당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 상태라는 응답과 상용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여전히 임시, 일용직에 머무르고 있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 소득의 경우에는 19세 청년의 평균소득은 연간 267만원, 24세 청년은 1012만원, 29세 청년은 2238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울의 경우, CESD-11 측정지표의 평균값은 19세, 24세, 29세 청년이 각각 1.99, 2.49, 2.15점으로 24세 청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증 진단을 받을 정도로 점수가 높은 청년은 19세 5.9%, 24세 7.0%, 29세 6.9%로 확인되었다.

〈표 3-3-1〉 주요 특성

(단위: %, 점, 만 원)

구분		19세	24세	29세	
교육	청년 학력	고등학교 중퇴, 졸업	40.6	26.6	21.4
		전문대 재학, 중퇴, 졸업	19.6	27.7	28.8
		대학교 재학, 중퇴, 졸업	39.8	45.7	49.8
고용	청년 고용 상태	취업	22.7	57.0	78.8
		실업	2.1	4.2	3.5
		비경활	75.2	38.8	17.7
	청년 고용 형태	상용직	29.1	50.8	66.0
		임시, 일용직, 무급가족종사	70.9	45.8	27.9
		고용주, 자영업	0	3.4	6.1
소득	청년의 소득(연간)	267.14 (524.41)	1012.19 (1068.59)	2238.41 (2487.41)	
건강	우울 평균 ⁹⁾	1.99(3.9)	2.49(4.14)	2.15(3.27)	
	우울증	5.9	7.0	6.9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남자	43.1	58.0	51.8
		여자	56.9	42.0	48.2
	부 최종 학력	무학/초등학교	6.4	6.6	12.3
		중학교 졸업	7.2	13.6	22.4
		고등학교 졸업	47.3	50.2	42.0
		전문대	6.1	9.4	5.9
		4년제 대학 이상	33.0	20.2	17.3
	모 최종 학력	무학/초등학교	4.0	5.2	18.7
		중학교 졸업	6.9	13.0	22.4
		고등학교 졸업	58.5	61.1	50.6
		전문대	10.7	10.0	0.8
		4년제 대학 이상	19.8	10.7	7.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9) 최대 33점까지 분포할 수 있으며 우울증 기준점수(cut off)는 16점 이상으로, 우울증에 해당하는 청년의 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나. 빈곤 경험

1) 빈곤 여부

가구 균등화 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연령에 따른 빈곤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19세 청년의 9세부터 18세까지 가구 빈곤 경험을 살펴보면 소폭 차이는 있으나 가구 빈곤 경험이 20% 내외 비율로 지속되어 아동빈곤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세 청년은 청소년 후기부터 청년 전기까지(15세~23세)의 빈곤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 경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세 청년의 빈곤 경험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24세, 29세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 경험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은 가구 빈곤은 개인의 소득이 아닌 가구 소득을 통해 측정하기 때문에, 연령 증가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여 소득이 변화된 결과로 보인다. 주요 특성(〈표 3-3-1〉 참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4세와 29세 청년은 각각 57%, 78.8%가 취업 상태이다.

〈표 3-3-2〉 19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빈곤 경험

(단위: %)

구분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빈곤 경험	20.2	22.7	21.2	23.9	20.4	23.0	23.0	21.0	19.8	2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3〉 24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빈곤 경험

(단위: %)

구분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빈곤 경험	21.7	19.4	17.9	14.9	12.4	11.2	11.4	10.1	8.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4〉 29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빈곤 경험

(단위: %)

구분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빈곤 경험	23.5	20.8	15.0	16.7	11.9	10.6	7.5	8.0	6.3	8.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다음으로 학령기, 청소년 전기, 청소년 후기, 청년 전기, 청년 중기의 빈곤 경험을 살펴보았다. 19세 청년은 학령기에 32.2%, 청소년 전기에 30.7%, 청소년 후기에 32.3%가 빈곤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4세 청년은 청소년 후기에 32.5%, 청년 전기에 19.8%가 빈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세 청년은 청년 전기에 32.7%, 청년 중기에 18.0%가 한 번이라도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5〉 빈곤 경험_19세

(단위: %)

구분		19세
학령기 (9~11세)	경험	32.2
	경험 없음	67.8
청소년 전기 (12~14세)	경험	30.7
	경험 없음	69.3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32.2
	경험 없음	67.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6〉 빈곤 경험_24세

(단위: %)

구분		24세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32.5
	경험 없음	67.5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19.8
	경험 없음	80.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7〉 빈곤 경험_29세

(단위: %)

구분		29세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32.7
	경험 없음	67.3
청년 중기 (24~28세)	경험	18.0
	경험 없음	82.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2) 빈곤의 지속성

빈곤 경험 기간의 경우, 19세 청년은 9세부터 18세까지 지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비율이 약 7%로 나타났고, 54.7%가 빈곤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구 빈곤 경험 기간은 평균 약 2년으로 나타났다. 24세 청년은 63.7%가 15세부터 23세까지 가구 빈곤 경험이 없었고, 약 0.5%의 청년이 9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구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빈곤 경험 평균 기간은 1.11년이었다. 29세 청년은 62.9%가 빈곤 경험이 없었고, 2.5%의 응답자가 19세부터 28세까지 10년간 가구 빈곤을 경험하였으며, 빈곤 경험 평균 기간은 0.98년으로 나타났다.

〈표 3-3-8〉 빈곤 경험 기간

(단위: %, 년)

연령	기간	%, 년
19세	0년	54.7
	10년	6.9
	평균 기간	2.02
24세	0년	63.7
	10년	0.5
	평균 기간	1.11
29세	0년	62.9
	10년	2.5
	평균 기간	0.9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생애과정을 세분화하여 빈곤의 지속 실태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세 청년 중 학령기에 3년 중 2년 이상 빈곤한 지속빈곤을 경험한 비율은 18.5%였으며 67.6%는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전기에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69.3%, 지속빈곤을 경험한 비율은 19.8%였으며, 청소년 후기의 지속빈곤 경험 비율은 16.2%, 빈곤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7.8%로 확인되었다. 24세 청년은 청소년 후기와 청년 전기에 지속빈곤을 경험한 비율, 즉 4년 중 3년 혹은 5년 중 4년 이상 빈곤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2.6%와 7.3%로 나타났으며, 빈곤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7.5%와 80.2%였다. 29세 청년도 24세 청년과 비슷하게 청년 전기와 중기에 각각 9.8%와 3.8%의 응답자가 지속빈곤을 경험하였으며, 67.3%와 82.0%가 빈곤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지속성의 횡수는 연속과 불연속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가구 빈곤을 세부 생애과정의 전체 기간의 빈곤 진입과 탈출이 아니라 각 생애

과정 단계(연령 구간)를 중심으로 빈곤 경험을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의 축적 기간이 짧아 불연속빈곤과 단기빈곤, 장기빈곤과 지속빈곤의 구별이 어려운 한계점을 고려하여 그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단기빈곤과 지속빈곤을 중심으로 햇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표 3-3-9〉 세부 생애과정별 빈곤 경험 기간_19세

(단위: 년, %)

구분		년, %
학령기 (9~11세)	비빈곤	67.6
	단기빈곤	13.9
	지속빈곤	18.5
청소년 전기 (12~14세)	비빈곤	69.3
	단기빈곤	10.9
	지속빈곤	19.8
청소년 후기 (15~18세)	비빈곤	67.8
	단기빈곤	16.0
	지속빈곤	16.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10〉 세부 생애과정별 빈곤 경험 기간_24세

(단위: 년, %)

구분		년, %
청소년 후기 (15~18세)	비빈곤	67.5
	단기빈곤	19.9
	지속빈곤	12.6
청년 전기 (19~23세)	비빈곤	80.2
	단기빈곤	12.5
	지속빈곤	7.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11〉 세부 생애과정별 빈곤 경험 기간_29세

(단위: 년, %)

구분		년, %
청년 전기 (19~23세)	비빈곤	67.3
	단기빈곤	22.9
	지속빈곤	9.8
청년 중기 (24~28세)	비빈곤	82.0
	단기빈곤	14.2
	지속빈곤	3.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다. 가구주의 실업 경험

가구주의 실업 경험을 살펴본 결과, 19세 청년의 경우 4.1%가 10세경 가구주의 실업을 경험하였으며, 24세의 경우 4.6%가 16세경, 29세 청년의 경우 4.7%가 19세경 가구주의 실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2〉 19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가구주 실업 경험

(단위: %)

구분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가구주 실업 경험	2.1	4.1	3.1	1.0	1.4	2.2	1.8	2.3	0	1.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13〉 24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가구주 실업 경험

(단위: %)

구분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가구주 실업 경험	2.9	4.6	3.0	1.2	1.2	1.7	1.0	1.2	1.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14〉 29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가구주 실업 경험

(단위: %)

구분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가구주 실업 경험	4.7	1.5	0	0.8	0	1.2	0.8	1.9	1.4	1.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다음 표들은 세부 생애과정별 가구주 실업 경험을 살펴본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19세 청년이 학령기와 청소년 전기 그리고 후기에 가구주 실업을 경험한 비율은 각각 6.2%, 4.3%, 4.7%였으며, 24세 청년 중 청소년 후기와 청년 전기에 가구주 실업을 경험한 비율은 8.4%와 4.3%였다. 29세 청년 중에서는 청년 전기와 중기에 각각 4.8%와 5.9%의 비율로 가구주의 실업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15〉 가구주 실업 경험_19세

(단위: %)

구분		%
학령기 (9~11세)	경험	6.2
	경험 없음	93.8
청소년 전기 (12~14세)	경험	4.3
	경험 없음	95.7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4.7
	경험 없음	95.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16〉 가구주 실업 경험_24세

(단위: %)

구분		%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8.4
	경험 없음	91.6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4.3
	경험 없음	95.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17〉 가구주 실업 경험_29세

(단위: %)

구분		%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4.8
	경험 없음	95.2
청년 중기 (24~28세)	경험	5.9
	경험 없음	94.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라. 주거 불안정 경험

1) 최저주거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은 앞서 정의 내린 것과 같이 필수 설비와 주거 면적 기준으로 판별하였다. 연령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은 19세, 24세, 29세 모든 청년 집단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92 생애과정 관점의 수요자중심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표 3-3-18〉 19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

(단위: %)

구분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	12.0	11.1	6.9	9.1	6.7	6.7	4.7	5.1	3.4	2.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19〉 24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

(단위: %)

구분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	8.8	9.2	6.4	5.2	5.9	5.7	5.2	4.0	3.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20〉 29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

(단위: %)

구분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	16.5	16.5	14.4	9.8	12.0	7.1	5.3	6.5	5.4	6.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세부 생애과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의 경우, 19세 청년 중 학령기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경우는 14.0%, 청소년 전기는 12.1%, 청소년 후기는 8.5%로 나타났다. 24세 청년은 청소년 후기에 13.7%, 청년 전기에 11.8%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9세 청년은 청년 전기와 중기에 각각 23.0%와 13.6%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2017)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이 2017

년 기준 5.9%인 것을 고려할 때, 청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3-21〉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_19세

(단위: %)

구분		%
학령기 (9~11세)	경험	14.0
	경험 없음	85.9
청소년 전기 (12~14세)	경험	12.1
	경험 없음	87.9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8.5
	경험 없음	91.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22〉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_24세

(단위: %)

구분		%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13.7
	경험 없음	86.3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11.8
	경험 없음	88.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23〉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_29세

(단위: %)

구분		%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23.0
	경험 없음	77.0
청년 중기 (24~28세)	경험	13.6
	경험 없음	86.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다음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 기간을 살펴보면, 19세 청년 중 10.7%가 학령기 3년 중 2년 동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했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전기에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했던 경험은 6.1%로 확인되었다. 24세와 29세 청년의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단기경험의 비율이 지속경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24〉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 기간_19세

(단위: %)

구분		%
학령기 (9~11세)	경험 없음	85.9
	단기경험	3.3
	지속경험	10.7
청소년 전기 (12~14세)	경험 없음	87.9
	단기경험	6.0
	지속경험	6.1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없음	91.5
	단기경험	8.9
	지속경험	1.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25〉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 기간_24세

(단위: %)

구분		%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없음	86.3
	단기경험	9.1
	지속경험	4.6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없음	88.2
	단기경험	9.0
	지속경험	2.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26〉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 기간_29세

(단위: %)

구분		%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없음	77.0
	단기경험	15.3
	지속경험	7.7
청년 중기 (24~28세)	경험 없음	86.4
	단기경험	10.4
	지속경험	3.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2) 주거비 과부담

먼저 연령에 따른 주거비 과부담을 가장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세 청년은 10세경 5.1%의 주거비 과부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4세 청년은 15세와 16세 시기에 주거비 과부담을 경험한 비율이 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9세 청년은 22세경 주거비 과부담을 경험한 비율이 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27〉 19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주거비 과부담 경험

(단위: %)

구분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주거비 과부담	3.1	5.1	4.2	4.2	1.8	4.3	3.1	2.6	4.9	2.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28〉 24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주거비 과부담 경험

(단위: %)

구분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주거비 과부담	3.5	3.5	2.6	2.3	1.3	2.6	2.4	2.8	1.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29〉 29세 청년의 연령에 따른 주거비 과부담 경험

(단위: %)

구분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주거비 과부담	3.4	1.7	2.3	4.2	2.3	2.0	2.7	1.6	2.0	2.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세부 생애과정별 주거비 과부담을 분석하면, 19세 청년은 학령기에 9.6%, 청소년 전기에는 8.0%, 청소년 후기에 10.4%가 주거비 과부담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4세 청년은 청소년 후기와 청년 전기에 주거비 과부담을 경험한 비율이 각각 10.9%와 7.6%였으며, 29세 청년 응답자의 경우에 청년 전기와 중기에 각각 9.3%와 8.8%가 주거비 과부담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30〉 주거비 과부담 경험_19세

(단위: %)

구분		%
학령기 (9~11세)	경험	9.6
	경험 없음	90.4
청소년 전기 (12~14세)	경험	8.0
	경험 없음	92.0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10.4
	경험 없음	89.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31〉 주거비 과부담 경험_24세

(단위: %)

구분		%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10.9
	경험 없음	89.1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7.6
	경험 없음	92.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32〉 주거비 과부담 경험_29세

(단위: %)

구분		%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9.3
	경험 없음	90.7
청년 중기 (24~28세)	경험	8.8
	경험 없음	9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2. 청년의 불리 경험과 학력, 고용, 소득, 우울

여기서는 불리의 경험에 따라 청년의 학력, 고용 상태와 소득 수준, 우울감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지하였듯, 학력의 경우 대학교 입학과 졸업과 관계가 있는 19세와 24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을 고려하면 19세는 학업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 재학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의 경우 24세와 29세를, 우울감은 세 연령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확인하였다.

가. 청년의 불리 경험과 학력

1) 빈곤 경험과 청년의 학력

빈곤 경험은 세부 생애과정별 지속빈곤과 단기빈곤 그리고 비빈곤으로 나누어 학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9세부터 18세까지의 경험을 살펴 볼 수 있는 19세 청년의 경우에 빈곤 경험에 따른 학력 상태 차이가 가장 잘 드러났다. 특히 청소년 전기보다 학령기와 청소년 후기에 지속빈곤 경험을 한 경우 19세 시점에서 고등학교 졸업 상태에 머물러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와 청소년 전기, 청소년 후기에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의 전문대나 4년제 대학교 재학 비율은 67.5%, 64.0%, 65.0%였으며 각각의 시기에 지속빈곤을 경험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보고한 비율이 65.4%, 58.0%, 70.7%로 매우 높았다.

〈표 3-3-33〉 빈곤 경험 기간과 학력_19세

(단위: %)

구분		19세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재학, 중퇴, 졸업	4년제 대학 재학, 중퇴, 졸업
학령기 (9~11세)	비빈곤	32.5	19.6	47.9
	단기빈곤	48.3	26.1	25.6
	지속빈곤	65.4	11.9	22.7
청소년 전기 (12~14세)	비빈곤	36.0	18.3	45.7
	단기빈곤	46.6	33.6	19.8
	지속빈곤	58.0	18.1	23.9
청소년 후기 (15~18세)	비빈곤	35.1	18.9	46.1
	단기빈곤	35.6	26.4	38.0
	지속빈곤	70.7	16.2	13.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24세 청년의 경우 청소년 후기와 청년 전기의 빈곤 경험에 따른 청년의 학력을 확인하였다. 24세의 경우에는 청소년 후기의 지속빈곤 경험 유무에 따라 고졸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4세의 청년 중 청소년 후기에 빈곤 경험이 없었던 경우에는 빈곤 경험이 있었던 경우에 비해 4년제 대학 이상의 비율이 약 13%포인트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 후기의 빈곤은 4년제 대학 이상의 진학을 낮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3-34〉 빈곤 경험 기간과 학력_24세

(단위: %)

구분		24세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재학, 중퇴, 졸업	4년제 대학 재학, 중퇴, 졸업
청소년 후기 (15~18세)	비빈곤	25.2	24.2	50.6
	단기빈곤	27.3	33.5	39.1
	지속빈곤	26.7	35.6	37.7
청년 전기 (19~23세)	비빈곤	24.4	27.7	47.9
	단기빈곤	26.7	33.9	39.4
	지속빈곤	39.5	20.8	39.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2) 가구주 실업 경험과 청년의 학력

가구주의 실업 경험과 청년의 학력 상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세 청년의 경우 학령기, 청소년기 모두 가구주 실업 경험 유무에 따라 학력 상태에 차이가 있었다. 가구주의 실업을 경험한 경우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보다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비율이 높았다.

〈표 3-3-35〉 가구주 실업 경험과 학력_19세

(단위: %)

구분		19세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재학, 중퇴, 졸업	4년제 대학 재학, 중퇴, 졸업
학령기 (9~11세)	경험	44.6	23.7	31.7
	경험 없음	38.7	18.6	42.7
청소년 전기 (12~14세)	경험	62.9	33.6	3.5
	경험 없음	38.9	18.3	42.9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51.9	41.5	6.6
	경험 없음	38.6	17.4	44.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청소년 후기와 청년 전기를 살펴볼 수 있는 24세 청년의 경우에는 청소년 후기에 가구주 실업을 경험한 경우에는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비율이 10%포인트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청년 전기의 가구주 실업 경험은 24세 청년의 학력에 영향이 크지는 않았는데, 이는 24세경에는 이미 학력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3-3-36〉 가구주 실업 경험과 학력_24세

(단위: %)

구분		24세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재학, 중퇴, 졸업	4년제 대학 재학, 중퇴, 졸업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37.1	24.2	38.7
	경험 없음	24.8	28.1	47.1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28.1	16.1	55.8
	경험 없음	25.2	28.4	46.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3) 주거 불안정 경험과 청년의 학력

분석에 따르면, 빈곤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경험이 있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반해 한 번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 비율이 높았다. 19세 청년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이 없는 청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경험한 청년이 적게는 8%포인트, 많게는 두 배 가까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보고한 비율이 높았다. 주거비 과부담 경험이 있는 19세 청년 또한 그렇지 않은 청년과 비교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보고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3-37〉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과 학력_19세

(단위: %)

구분		19세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재학, 중퇴, 졸업	4년제 대학 재학, 중퇴, 졸업
학령기 (9~11세)	경험 없음	39.0	19.0	42.0
	단기경험	58.4	7.6	34.0
	지속경험	47.4	23.6	29.0
청소년 전기 (12~14세)	경험 없음	40.3	20.0	39.7
	단기경험	41.3	21.6	37.1
	지속경험	55.7	16.8	27.6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없음	38.8	19.8	41.5
	단기경험	57.2	18.5	24.2
	지속경험	77.6	8.2	14.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38〉 주거비 과부담 경험과 학력_19세

(단위: %)

구분		19세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재학, 중퇴, 졸업	4년제 대학 재학, 중퇴, 졸업
학령기 (9~11세)	경험	58.6	20.2	21.2
	경험 없음	38.7	19.1	42.3
청소년 전기 (12~14세)	경험	44.7	30.4	24.9
	경험 없음	41.0	18.9	40.1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44.6	25.0	30.4
	경험 없음	40.1	19.1	40.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청소년 후기와 청년 전기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24세 청년은 청소년 후기(15~18세)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이 길수록 고등학교 졸업 이하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전기(19~23세)의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경우와 주거비 과부담을 경험한 경우에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보고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대학생의 주거 빈곤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3-39〉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과 학력_24세

(단위: %)

구분		24세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재학, 중퇴, 졸업	4년제 대학 재학, 중퇴, 졸업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없음	24.9	27.7	47.4
	단기경험	28.9	33.0	38.1
	지속경험	34.7	14.8	51.0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없음	25.4	28.7	45.9
	단기경험	35.4	19.6	45.0
	지속경험	8.1	33.1	58.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40〉 주거비 과부담 경험과 학력_24세

(단위: %)

구분		24세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재학, 중퇴, 졸업	4년제 대학 재학, 중퇴, 졸업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21.6	23.2	55.3
	경험 없음	26.3	28.0	45.7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12.6	23.4	64.0
	경험 없음	26.7	28.4	44.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4) 부모 학력과 청년의 학력

부모 학력과 청년 학력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19세의 경우, 아버지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의 학력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부모인 경우에 청년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비율이 높았으며, 부모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19세 청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4년제 대학 재학 이상 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세 청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의 학력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41〉 아버지 최종 학력과 청년의 학력_19세

(단위: %)

구분		청년의 학력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재학, 중퇴, 졸업	4년제 대학 재학, 중퇴, 졸업
부 학력	무학/초등학교	48.9	7.6	43.4
	중학교 졸업	58.0	26.1	15.9
	고등학교 졸업	40.7	26.3	22.0
	전문대	30.3	11.6	58.1
	4년제 대학 이상	37.0	12.6	50.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 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42〉 어머니 최종 학력과 청년의 학력_19세

(단위: %)

구분		청년의 학력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재학, 중퇴, 졸업	4년제 대학 재학, 중퇴, 졸업
모 학력	무학/초등학교	52.0	21.0	27.0
	중학교 졸업	55.9	38.6	5.5
	고등학교 졸업	37.3	22.3	40.4
	전문대	48.4	5.8	45.8
	4년제 대학 이상	38.5	12.3	49.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 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43〉 아버지 최종 학력과 청년의 학력_24세

(단위: %)

구분		청년의 학력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재학, 중퇴, 졸업	4년제 대학 재학, 중퇴, 졸업
부 학력	무학/초등학교	28.4	44.5	27.1
	중학교 졸업	25.3	28.6	46.1
	고등학교 졸업	22.6	31.0	46.4
	전문대	31.6	23.0	45.4
	4년제 대학 이상	34.5	15.4	5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 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44〉 어머니 최종 학력과 청년의 학력_24세

(단위: %)

구분	청년의 학력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재학, 중퇴, 졸업	4년제 대학 재학, 중퇴, 졸업	
모 학력	무학/초등학교	28.0	43.2	28.8
	중학교 졸업	28.3	34.7	37.0
	고등학교 졸업	23.4	28.3	48.3
	전문대	24.7	29.7	45.6
	4년제 대학 이상	43.9	6.0	5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나. 청년의 불리 경험과 고용

청년의 고용은 취업 여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취업 상태는 불안정 노동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경제활동 상태도 마찬가지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와 구직난 끝에 취업을 포기한 경우는 근로 의사 없음에 따른 비경제활동 상태는 질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청년의 불리 경험과 고용 상태에 대한 분석 결과의 해석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 빈곤 경험과 청년의 고용

빈곤 경험과 청년의 고용 상태를 살펴보면, 24세 청년의 경우 청소년 후기에 단기빈곤을 경험한 청년은 취업(49.1%)과 비경활(49.3%)의 비율이 비슷하였고 지속빈곤을 경험한 청년의 취업 비율은 62.5%로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58.0%)과 단기빈곤을 경험한 청년(49.1%) 모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청년 전기에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의 취업 비율은 56.6%로 지속빈곤을 경험한 청년의 취업 비율 49.4%

보다는 높았으며, 단기빈곤을 경험한 청년의 취업 비율(60.1%)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복합적 분석 결과는 취업이 불안정 고용 상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 전기 빈곤 비경험 집단 중 취업 상태인 집단(56.6%)은 청소년기 이후 지속된 청년 전기의 고용 상황과 빈곤 경험 없이 안정적 일자리로 진입한 청년들이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9세 청년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29세 청년의 경우, 청년 전기와 청년 중기의 빈곤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데, 분석에 따르면 청년 전기 또는 청년 후기에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의 취업비율이 지속빈곤을 경험한 청년의 취업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4세와 29세 청년 모두 청년 전기에 지속빈곤을 경험한 청년 중 절반 정도가 비경험 상태였는데, 이는 니트, 학업이나 취업 준비, 근로의사가 없는 청년과 빈곤이 맞닿아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비경험 청년의 빈곤화와 빈곤청년의 비경험화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지속빈곤과 비경험의 문제는 청년기 소득보장의 필요성과 연결된다.

〈표 3-3-45〉 빈곤 경험과 고용 상태_24세

(단위: %)

구분		24세 고용 상태		
		취업	실업	비경험
청소년 후기 (15~18세)	비빈곤	58.0	4.4	37.6
	단기빈곤	49.1	1.6	49.3
	지속빈곤	62.5	8.8	28.7
청년 전기 (19~23세)	비빈곤	56.6	3.9	39.5
	단기빈곤	60.1	7.1	32.8
	지속빈곤	49.4	4.4	46.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46〉 빈곤 경험과 고용 상태_29세

(단위: %)

구분		29세 고용 상태		
		취업	실업	비경황
청년 전기 (19~23세)	비빈곤	82.1	5.3	12.7
	단기빈곤	87.0	1.4	11.6
	지속빈곤	55.7	0	44.3
청년 중기 (24~28세)	비빈곤	80.5	5.1	15.4
	단기빈곤	78.1	2.1	19.9
	지속빈곤	41.3	0	58.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앞서 취업 상태의 복합적 분석 결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24세 청년 중 단기빈곤이나 비빈곤 경험 청년에 비해 지속빈곤을 경험한 청년은 임시, 일용직의 고용지위를 가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29세 청년의 경우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청년 전기에 빈곤을 경험한 청년보다 그렇지 않은 청년이 상용직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청년 중기에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의 70%가 상용직인 것에 비해 지속빈곤을 경험한 청년은 31.9%만이 상용직이고, 나머지 68.1%의 청년이 임시, 일용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 노동의 보편화 경향 속에서도 빈곤을 경험한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불안정 노동에 처하게 되는 경향성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3-47〉 빈곤 경험과 고용 형태_24세

(단위: %)

구분		고용 형태		
		상용직	임시,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 고용주
청소년 후기 (15~18세)	비빈곤	49.9	45.2	4.9
	단기빈곤	64.4	35.6	0
	지속빈곤	35.1	64.9	0
청년 전기 (19~23세)	비빈곤	53.7	42.1	4.2
	단기빈곤	44.8	54.4	0.8
	지속빈곤	29.1	70.9	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48〉 빈곤 경험과 고용 형태_29세

(단위: %)

구분		고용 형태		
		상용직	임시,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 고용주
청년 전기 (19~23세)	비빈곤	66.9	25.6	7.5
	단기빈곤	69.6	29.1	1.3
	지속빈곤	49.2	47.2	3.7
청년 중기 (24~28세)	비빈곤	70.5	22.6	6.9
	단기빈곤	42.0	58.0	0
	지속빈곤	31.9	68.1	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2) 가구주 실업 경험과 청년의 고용

가구주 실업 경험이 있는 청년이 24세, 29세 연령에서 취업 상태에 속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 형태는 청년기에 가구주 실업을 경험한 경우, 상용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고용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 그리고 임시, 일용직 안에서도 매우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불리 판단, 해석할 수는 없지만, 청년 전기에는 가구주가 실업에 처한 경우, 자신이 실질적 가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용직의 안정된 직장을 구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부모의 실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9세 청년에 대하여는 더 이른 시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해석에 제한이 있으나 현재의 고용 형태와 관계있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청소년 후기에 가구주 실업 경험이 있는 청년은 상용직보다 임시,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고용 형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9〉 가구주 실업 경험과 고용 상태_24세

(단위: %)

구분		고용 상태		
		취업	실업	비경활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73.1	4.9	22.0
	경험 없음	55.8	3.4	40.8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56.1	0	43.9
	경험 없음	56.1	4.3	39.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50〉 가구주 실업 경험과 고용 상태_29세

(단위: %)

구분		고용 상태		
		취업	실업	비경활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93.7	4.2	2.1
	경험 없음	80.9	4.0	15.1
청년 중기 (24~28세)	경험	89.5	0	10.5
	경험 없음	79.3	4.1	16.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51〉 가구주 실업 경험과 고용 형태_24세

(단위: %)

구분		고용 형태		
		상용직	임시,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 고용주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48.3	51.7	0
	경험 없음	52.0	44.0	4.0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83.2	16.8	0
	경험 없음	51.2	45.0	3.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52〉 가구주 실업 경험과 고용 형태_29세

(단위: %)

구분		고용 형태		
		상용직	임시,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 고용주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62.1	37.9	0
	경험 없음	67.0	26.8	6.3
청년 중기 (24~28세)	경험	76.3	18.6	5.1
	경험 없음	64.8	28.7	6.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3) 주거 불안정 경험과 청년의 고용

먼저, 물리적 측면의 주거 불안정을 나타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청년의 고용을 살펴보았다. 24세 청년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경험한 경우 비경활이나 실업상태보다 취업한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의 경우, 청소년 후기 및 청년 전기에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상용직에 속한 비율이 높았다. 또,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의 임시, 일용직 비율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지속 경험한 청년의 임시, 일용직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불안정 경험이 있는 24세의 청년의 고용 상태와 고용 형태는 고용 상태나 고용 형태로만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 측면을 내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4세는 입직의 초입 시점으로 주거 불안정 상태는 그 자체가 청년이 처한 실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다.

한편, 29세 청년은 ‘청년 전기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단기경험이 있는 경우와 청년 중기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이 없는 경우 취업 비율이 높았으며’, 지속적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이 있는 청년은 비경황의 상태에 속한 비율이 23.9%, 27.3%로, 경험이 없는 청년 14.9%, 16.2%보다 높았다.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이 없는 청년이 상용직에 속한 비율이 높고 임시, 일용직, 무급종사자에 속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세는 취업이 완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24세의 주거 불안정 경험과 고용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와는 다르게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53〉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과 고용 상태_24세

(단위: %)

구분		24세 고용 상태		
		취업	실업	비경황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없음	53.9	5.0	41.1
	단기경험	66.5	0	33.5
	지속경험	95.9	0	4.1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없음	54.7	4.4	40.9
	단기경험	65.6	4.1	30.4
	지속경험	92.8	0	7.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54〉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과 고용 형태_24세

(단위: %)

구분		24세 고용 형태		
		상용직	임시,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 고용주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없음	48.8	47.0	4.2
	단기경험	50.9	48.8	0.3
	지속경험	69.4	30.6	0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없음	50.5	45.4	4.0
	단기경험	44.9	54.8	0.3
	지속경험	77.4	22.6	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55〉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과 고용 상태_29세

(단위: %)

구분		29세 고용 상태		
		취업	실업	비경황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없음	80.5	4.6	14.9
	단기경험	83.6	2.0	14.4
	지속경험	76.1	0	23.9
청년 중기 (24~28세)	경험 없음	80.0	3.8	16.2
	단기경험	69.6	3.8	26.6
	지속경험	72.7	0	27.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56〉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과 고용 형태_29세

(단위: %)

구분		29세 고용 형태		
		상용직	임시,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 고용주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없음	67.3	27.4	5.3
	단기경험	64.9	24.8	10.3
	지속경험	59.7	40.3	0
청년 중기 (24~28세)	경험 없음	66.4	27.1	6.5
	단기경험	61.7	38.3	0
	지속경험	60.0	40.0	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의 주거 불안정을 의미하는 주거비 과부담과 청년의 고용 상태와 고용 형태를 살펴보았다. 24세 청년은, 청소년 후기 또는 청년 전기에 주거비 과부담 경험이 있을 경우, 취업 비율이 각각 43.8%, 57.7%였다. 24세 청년의 주거비 과부담 경험에 따른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청소년 후기와 청년 전기 모두 주거비 과부담의 경험이 없는 경우 상용직 비율이 높았으며,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시, 일용직의 비율이 높았다.

〈표 3-3-57〉 주거비 과부담 경험과 고용 상태_24세

(단위: %)

구분		24세 고용 상태		
		취업	실업	비경황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43.8	6.7	49.5
	경험 없음	58.3	4.1	37.6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57.7	0	42.3
	경험 없음	56.5	4.6	38.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58〉 주거비 과부담 경험과 고용 형태_24세

(단위: %)

구분		24세 고용 형태		
		상용직	임시,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 고용주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35.1	57.1	7.8
	경험 없음	51.8	45.1	3.1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23.7	74.5	1.8
	경험 없음	53.4	43.0	3.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29세 청년은 청년 전기와 중기에 주거비 과부담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취업 비율이 높았으며,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주거비 과부담 경험이 없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상용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도 언급했듯, 29세의 청년은 청년 전기부터의 경험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한 청년들이 겪는 주거비 과부담의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거 불안정과 고용의 관계는 물리적 측면의 주거 불안정보다 경제적 측면의 주거 불안정과 더 밀접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지출 부담 완화의 중요성 함께, 물리적 측면의 주거 불안정 지표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표 3-3-59〉 주거비 과부담 경험과 고용 상태_29세

(단위: %)

구분		29세 고용 상태		
		취업	실업	비경황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84.8	0	15.2
	경험 없음	80.2	4.2	15.6
청년 중기 (24~28세)	경험	86.3	0	13.7
	경험 없음	77.9	4.9	18.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60〉 주거비 과부담 경험과 고용 형태_29세

(단위: %)

구분		24세 고용 형태		
		상용직	임시,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 고용주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50.1	49.9	0
	경험 없음	68.1	25.5	6.3
청년 중기 (24~28세)	경험	53.7	46.3	0
	경험 없음	66.9	26.5	6.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다. 청년의 불리 경험과 소득

1) 빈곤 경험과 청년의 소득

여기서는 24세 청년과 29세 청년의 과거 빈곤 경험에 따른 1차 소득을 살펴보았다. 24세 청년과 29세 청년 모두 빈곤을 경험한 청년에 비해 빈곤 경험이 없는 청년의 소득 수준이 높았으며, 빈곤 경험이 길수록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4세 청년은 청년 전기에 단기빈곤을 경험한 청년의 소득이 비빈곤과 지속빈곤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1〉 빈곤 경험과 소득 수준_24세

(단위: 만 원, sd)

구분		24세 소득 수준
청소년 후기 (15~18세)	비빈곤	1,551.7(825.5)
	단기빈곤	1,530.5(772.1)
	지속빈곤	1,245.2(511.9)
청년 전기 (19~23세)	비빈곤	1,499.7(845.4)
	단기빈곤	1,627.6(723.2)
	지속빈곤	1,034.5(650.9)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sd)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62〉 빈곤 경험과 소득 수준_29세

(단위: 만 원, sd)

구분		29세 소득 수준
청년 전기 (19~23세)	비빈곤	2,830.0(1,970.3)
	단기빈곤	2,662.4(1,314.9)
	지속빈곤	2,531.3(1,143.6)
청년 중기 (24~28세)	비빈곤	2,855.4(1,957.9)
	단기빈곤	2,187.8(1,334.2)
	지속빈곤	1,597.8(683.4)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sd)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2) 가구주 실업 경험과 청년의 소득

가구주의 실업 경험 또한 빈곤과 마찬가지로 한 번도 가구주의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 집단의 소득 수준이 그렇지 않은 그룹과 비교하여, 24세 청년 전기를 제외하고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63〉 가구주 실업 경험과 소득 수준_24세

(단위: 만 원, sd)

구분		24세 소득 수준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없음	1,533.3(105.2)
	경험	1,377.9(256.9)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없음	1,484.8(97.3)
	경험	1,985.5(193.5)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sd)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64〉 가구주 실업 경험과 소득 수준_29세

(단위: 만 원, sd)

구분		29세 소득 수준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없음	2,794.9(1,846.6)
	경험	2,443.9(1,007.3)
청년 중기 (24~28세)	경험 없음	2,750.9(1,975.4)
	경험	2,598.2(684.7)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sd)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3) 주거 불안정 경험과 청년의 소득

주거 불안정 경험에 따른 소득 수준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이 있거나 주거비 과부담 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 지속 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5〉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과 소득 수준_24세

(단위: 만 원, sd)

구분		24세 소득 수준
청소년 후기 (15~18세)	비경험	1,510.9(789.6)
	단기경험	1,584.8(880.4)
	지속경험	1,383.0(683.3)
청년 전기 (19~23세)	비빈곤	1,528.3(829.1)
	단기경험	1,242.4(952.5)
	지속경험	1,227.6(791.9)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sd)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66〉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과 소득 수준_29세

(단위: 만 원, sd)

구분		29세 소득 수준
청년 전기 (19~23세)	비경험	2,853.8(1,958.7)
	단기경험	2,334.7(1,137.6)
	지속경험	2,811.9(1,355.0)
청년 중기 (24~28세)	비경험	2,797.9(1,981.4)
	단기경험	2,463.5(742.3)
	지속경험	1,900.4(1,056.4)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sd)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67〉 주거비 과부담 경험과 소득 수준_24세

(단위: 만 원, sd)

구분		24세 소득 수준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없음	1,308.9(637.7)
	경험	1,527.3(805.6)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없음	1,107.9(807.1)
	경험	1,519.5(838.3)

주: 괄호안은 표준편차(sd)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68〉 주거비 과부담 경험과 소득 수준_29세

(단위: 만 원, sd)

구분		29세 소득 수준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없음	2,223.3(1,608.6)
	경험	2,827.6(1,833.3)
청년 중기 (24~28세)	경험 없음	2,025.9(1,141.1)
	경험	2,806.1(1,965.8)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sd)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4) 본인의 고용 형태와 청년의 소득

고용 형태에 따른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상용직이 임시, 일용직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았다. 24세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은 상용직, 고용주·자영업, 임시·일용직 순으로 높았으며, 29세 청년은 고용주, 자영업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표준편차도 매우 커 집단 내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9〉 본인의 고용 형태와 소득 수준

(단위: 만 원, sd)

구분	소득 수준	
	24세	29세
상용직	1,820.7(910.5)	2,975.8(1,060.6)
임시,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1,137.9(675.2)	1,536.8(967.4)
고용주, 자영업	1,321.8(629.3)	5,594.5(5,241.2)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sd)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라. 청년의 불리 경험과 우울

1) 빈곤 경험과 청년의 우울

빈곤 경험에 따른 우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빈곤 경험이 있고, 그 기간이 긴 경우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그 차이는 약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9세 청년과 24세 청년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9세 청년은 우울 수준이 비빈곤보다 지속빈곤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하여 크지는 않았다. 분석 결과는 지속빈곤과 우울과의 연관성, 특히 지속빈곤의 장기적 영향에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앞서 살펴본 빈곤 경험과 청년 소득의 문제를 고려할 때, 지속빈곤 경험과 청년의 소득과 우울은 상호 간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유추된다.

〈표 3-3-70〉 빈곤 경험과 우울 수준_19세

(단위: 점, sd)

구분	우울 수준	
학령기 (9~11세)	비빈곤	1.63(2.56)
	단기빈곤	1.44(3.10)
	지속빈곤	3.31(6.04)
청소년 전기 (12~14세)	비빈곤	1.71(2.87)
	단기빈곤	1.71(4.13)
	지속빈곤	3.24(5.61)
청소년 후기 (15~18세)	비빈곤	1.56(2.89)
	단기빈곤	2.65(4.71)
	지속빈곤	3.24(5.43)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sd)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71〉 빈곤 경험과 우울 수준_24세

(단위: 점, sd)

구분	우울 수준	
청소년 후기 (15~18세)	비빈곤	2.06(2.26)
	단기빈곤	2.72(3.99)
	지속빈곤	4.38(4.75)
청년 전기 (19~23세)	비빈곤	2.27(2.77)
	단기빈곤	1.98(3.02)
	지속빈곤	6.84(5.54)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sd)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72〉 빈곤 경험과 우울 수준_29세

(단위: 점, sd)

구분	우울 수준	
청년 전기 (19~23세)	비빈곤	2.06(2.08)
	단기빈곤	2.14(2.54)
	지속빈곤	2.80(3.03)
청년 중기 (24~28세)	비빈곤	2.09(2.50)
	단기빈곤	2.38(1.67)
	지속빈곤	3.96(3.75)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sd)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2) 가구주 실업 경험과 청년의 우울

가구주 실업 경험에 따른 우울 역시, 경험이 있는 청년에 비해 그렇지 않은 청년의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19세의 청년의 우울은 청소년 전기와 청소년 후기에 가구주 실업을 경험한 경우가 학령기에 경험한 경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가정 내 위기 상황은 청년의 정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9세 청년은 청년 중기에 가구주 실업 경험이 없는 청년이 있는 청년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29세의 우울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3-3-73〉 가구주 실업 경험과 우울 수준_19세

(단위: 점, sd)

구분		우울 수준
학령기 (9~11세)	경험 없음	1.70(2.82)
	경험	1.27(3.09)
청소년 전기 (12~14세)	경험 없음	1.77(3.19)
	경험	3.04(3.85)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없음	1.79(3.42)
	경험	4.03(4.90)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sd)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74〉 가구주 실업 경험과 우울 수준_24세

(단위: 점, sd)

구분		우울 수준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없음	2.10(2.75)
	경험	4.78(4.20)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없음	2.40(2.99)
	경험	2.93(3.53)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sd)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75〉 가구주 실업 경험과 우울 수준_29세

(단위: 점, sd)

구분		우울 수준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없음	1.99(2.08)
	경험	3.97(3.33)
청년 중기 (24~28세)	경험 없음	2.13(2.42)
	경험	1.28(1.21)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sd)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3) 주거 불안정 경험과 청년의 우울

주거 불안정과 청년의 우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이 있거나 주거비 과부담 경험이 있는 19세 청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울 수준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4세와 29세 청년은 경향성이 혼재되어 있지만, 29세 청년은 청년 중기 최저주거기준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2배 이상 우울 수준이 높았고, 24세 청년은 청소년 후기의 주거비 과부담 경험 집단에서 우울 수준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3-3-76〉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과 우울 수준_19세

(단위: 점, sd)

구분		우울 수준
학령기 (9~11세)	경험 없음	1.83(3.25)
	단기경험	1.21(1.72)
	지속경험	2.54(3.75)
청소년 전기 (12~14세)	경험 없음	1.79(3.44)
	단기경험	4.53(6.24)
	지속경험	2.71(3.13)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없음	1.91(3.66)
	단기경험	2.09(2.87)
	지속경험	5.74(4.24)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sd)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77〉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과 우울 수준_24세

(단위: 점, sd)

구분		우울 수준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없음	2.50(3.06)
	단기경험	2.41(2.62)
	지속경험	1.53(1.56)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없음	2.60(3.13)
	단기경험	1.56(2.48)
	지속경험	2.42(4.14)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sd)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78〉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과 우울 수준_29세

(단위: 점, sd)

구분		우울 수준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없음	2.10(2.33)
	단기경험	2.34(2.05)
	지속경험	2.07(1.97)
청년 중기 (24~28세)	경험 없음	2.15(2.48)
	단기경험	1.72(1.68)
	지속경험	4.56(3.45)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sd)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79〉 주거비 과부담 경험과 우울 수준_19세

(단위: 점, sd)

주거비 과부담 경험		우울 수준
학령기 (9~11세)	경험 없음	1.68(3.14)
	경험	3.91(4.27)
청소년 전기 (12~14세)	경험 없음	1.94(3.49)
	경험	2.47(4.64)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없음	1.82(3.35)
	경험	3.53(5.67)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sd)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80〉 주거비 과부담 경험과 우울 수준_24세

(단위: 점, sd)

주거비 과부담 경험		우울 수준
청소년 후기 (15~18세)	경험 없음	2.27(2.96)
	경험	4.17(3.09)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없음	2.55(3.19)
	경험	1.94(2.18)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sd)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표 3-3-81〉 주거비 과부담 경험과 우울 수준_29세

(단위: 점, sd)

주거비 과부담 경험		우울 수준
청년 전기 (19~23세)	경험 없음	2.17(2.26)
	경험	1.76(2.27)
청년 중기 (24~28세)	경험 없음	2.27(2.57)
	경험	1.0(1.16)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sd)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제4절 소결

3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졸업, 대학 진학, 취업 시점을 고려하여 19세, 24세, 29세 청년을 분석하였다. 학력은 19세 청년과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고용과 소득 수준은 24세와 29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우울은 19세, 24세, 29세 청년의 우울 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를 연령과 영역별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력은 청소년 후기의 빈곤 경험이 청년의 4년제 대학 진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세 청년은 학령기(9~11세), 청소년 전기(12~14세), 청소년 후기(15~18세)까지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과거 빈곤 경험과 지속된 빈곤이 낮은 학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4세 청년은 청소년 후기(15~18세)와 청년 전기(19~23세)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 19세 청년과 마찬가지로 빈곤의 경험은 물론 그 지속 기간이 길수록 대학교 진학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구주의 실업을 경험한 경우 전문대나 4년제 대학보다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

력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24세 청년은 청소년 후기에 가구주 실업을 경험한 경우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4년제 대학 재학 이상 학력의 비율이 10%포인트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후기와 청년 전기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24세 청년은, 청소년 후기(15~18세)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이 길수록 고등학교 졸업 상태에 머무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전기(19~23세)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경우, 주거비 과부담을 경험한 경우에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보고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대학생의 주거 빈곤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부모의 학력은 대물림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한편, 고용은, 24세와 29세 청년 모두 청년 전기에 지속빈곤을 경험한 청년 중 절반 정도가 비경활 상태였는데, 이는 니트, 학업이나 취업 준비, 근로 의사가 없는 청년과 빈곤이 맞닿아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비경활 청년의 빈곤화와 빈곤청년의 비경활화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빈곤과 비경활의 문제는 청년기 보장의 필요성과 연결된다. 또, 빈곤을 경험한 청년의 임시, 일용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불안정 노동의 보편화 경향 속에서도 빈곤을 경험한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불안정 노동에 처하게 되는 경향성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거 불안정과 고용의 관계는 물리적 측면의 주거 불안정보다 경제적 측면의 주거 불안정과 더 밀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출 부담과 고용과의 관계뿐 아니라, 물리적 측면의 주거 불안정 지표 보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년의 소득 수준은 청년의 불리 경험에 따른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24세 청년과 29세 청년 모두 빈곤을 경험한 청년에 비해 빈곤

경험이 없는 청년의 소득 수준이 높았으며, 빈곤 경험이 길수록 소득 수준이 낮았다. 다만, 24세 청년은 청년 전기에 단기빈곤을 경험한 청년의 소득이 비빈곤과 지속빈곤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실업 경험 또한 빈곤과 마찬가지로 한 번도 가구주의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 집단의 소득 수준이 그렇지 않은 그룹과 비교하여 대부분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 불안정 경험에 따른 소득 수준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이 있거나 주거비 과부담 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 지속 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고용 형태에 따른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상용직이 임시, 일용직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았는데, 24세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은 상용직, 고용주·자영업, 임시·일용직 순으로 높았으며, 29세 청년은 고용주, 자영업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표준편차도 매우 커 집단 내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불리 경험은 청년 특히, 청년 중기까지의 우울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빈곤 경험에 따른 우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빈곤 경험이 있고, 그 기간이 긴 경우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차이는 약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세 청년과 24세 청년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9세 청년은 우울 수준이 비빈곤보다 지속빈곤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하여 크지는 않았다. 분석 결과는 지속빈곤과 우울과의 연관성, 특히 지속빈곤의 장기적 영향에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앞서 살펴본 빈곤 경험과 청년 소득의 문제를 고려할 때, 지속빈곤 경험과 청년의 소득과 우울은 상호 간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유추된다. 가구주 실업 경험에 따른 우울 역시, 경험이 있는 청년에 비해 그렇지 않은 청년의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19세의 청년의 우

울은 청소년 전기와 청소년 후기에 가구주 실업을 경험한 경우가 학령기에 경험한 경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가정 내 위기 상황은 청년의 정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9세 청년은 청년 중기의 가구주 실업 경험이 없는 청년이 있는 청년과 비교하여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29세의 우울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 불안정과 청년의 우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험이 있거나 주거비 과부담 경험이 있는 19세 청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울 수준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4세와 29세 청년을 분석한 결과, 경향성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다만, 24세 청년은 청소년 후기의 주거비 과부담 경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29세 청년은 청년 중기 최저주거기준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2배 이상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실시한 분석은 기초 분석에 해당하느바, 인과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연구모델을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청년의 과거 불리 환경의 지속적 경험은 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한 선택의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의 삶은 본인의 책임이자 선택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경험이나 부모 세대의 영향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청년의 현재와도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청년기 보장은 그 이전 시기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청년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장

불리의 경험과 청년의 삶:
질적 분석

- 제1절 개요 및 분석 방법
- 제2절 분석 결과
- 제3절 소결



4

불리의 경험과 청년의 삶: << 질적 분석

제1절 개요 및 분석 방법

4장에서는 양적 연구에서 도출하기 어려운 경험들과 경험 간의 상호 관계, 맥락을 고려하여 청년들의 현재 상태와 삶이 지난 생애과정들로부터 어떻게 연결, 형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더 총체적 관점에서, 지나왔던 시간과 처해 왔던 공간에서 청년이 경험한 불리들은 어떠했으며, 그 불리들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청년과 청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체계들은 어떻게 기능해 왔는지,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구성해 왔는지를 심층 분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1) 생애과정, 즉 과거의 누적된 불리 경험이 현재 청년기 삶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고, (2) 과거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경험은 어떠하며, (3) 청년기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원에 대한 욕구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만 19세부터 30세 사이의 국내에서 출생, 성장한 청년 중, 빈곤 경험, 가족구조, 불안정 노동, 건강 등을 포함하여 여러 사회적 불리를 경험하였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청년 연령을 그와 같이 설정한 것은 양적 연구와 유사하게 하고자 함에 따른 것이다.

과거에 경험하였던 불리는 <표 4-1-1>과 같이 구분하였으며, 불리의 경험이 2개 이상일 경우 조사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일반적으로 생애과정 관점을 활용한 연구들은 불리 경험의 축적에 대해 다루는데 본 연구 또한 불리 경험들의 상호작용이나 누적된 불리가 청년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족구조, 빈곤 경험, 불안정 노동, 건강문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리를 고려하였고 그 외에도 연구자가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조건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표 4-1-1〉 조사 대상자 참여 기준

불리 경험	조사 대상자 참여 기준
가족구조	부모가 이혼, 별거하였거나 사별의 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중학교 이하 학력인 경우 가구의 주 소득원이 실직을 경험한 경우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건강상 문제를 경험한 경우
빈곤 경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었던 경험이 있는 경우 법정 한부모수급권 가정이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 가정이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자신의 가정이 가난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불안정 노동	현재 비정규직 일자리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현재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건강문제	만성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 자신이 음주 및 흡연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이나 학력 등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한다고 느끼는 경우
기타	연구진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추가 참여 조건을 선정하여 진행함

본 조사는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이뤄졌으며, 조사 참여자 모집을 위해 연구진들은 유관단체와 관련 전문가를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 대상자를 추천받았으며,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자발적 연구 참여자 모집도 함께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쉼터, 사회복지기관, 청년단체 등을 통해 적합한 참여자 추천을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를 통해 다른 참여자를 추천받는 눈덩이 표집 방법(snowball sampling)도 함께 사용하였다. 단, 과도하게 특정 연령

대가 과표집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령 및 성별을 안배하여 연구 참여를 신청하였는데 선정되지 않은 사례도 일부 있었다.

참여자 모집은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되는 자료에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 시점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심층면접을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심층면접 내용을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총 16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수행되었다. 조사의 모든 과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절차(승인번호: 2019-3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뤄졌다.

연구진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의 일정에 맞춰 전화통화로 가급적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심층면접의 일시와 장소를 선정하였다. 심층면접 장소는 참여자 면접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유료 회의실이나 혹은 조용한 카페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질적 연구에 관한 훈련을 받고 심층면접 수행의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학 교수 2인이 각각 대면으로 수행하였다. 조사 참여자에게 연구진은 참여자 섭외 시 사전에 공지하였던 조사 방법과 개요 등에 대해 면접 전 대면하여 충분히 재설명하였고, 이를 숙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인터뷰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조사 참여자의 불리 경험을 다루게 되어 개인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심층면접 내용은 자료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참여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녹음하였고, 녹음의 개시와 종료를 명확히 알렸다. 인터뷰는 참여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최대 120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2회로 나뉘어서 인터뷰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한 번에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사 참여자와 연구진이 합의한 경우에는 120분을 초과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제공하였다. 인터뷰의 주요 질문은 다음 <표 4-1-2>과 같다.

<표 4-1-2> 연구 문제에 따른 인터뷰 질문

<p>연구 문제 1. 생애과정의 불리 경험과 현재 청년기의 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금까지 살아오며 귀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가족 내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부모의 건강, 직업, 학력, 관계 등)• 성장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학교, 사회복지기관, 이웃, 공공기관 등)• 귀하는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소득을 위해 어떤 일을 해 보셨습니까?• 귀하는 현재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p>연구 문제 2. 과거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경험과, 현재 삶의 관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 과정에서 본인 혹은 가족이 복지서비스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제공받았다면 그 경험은 어땠습니까?• 성장 과정에서 본인 혹은 가족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은 적이 없었다면, 혹시 과거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p>연구 문제 3. 청년기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원에 대한 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하께서는 현재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가 종료된 이후 연구진은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였고, 이후 인터뷰 질문 구성이나 참여자 선정 등에 반영하였다. 각 연구진은 인터뷰 종료 이후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고 수시로 토의하였으며, 인터뷰 녹음자료는 개인식별정보(이름, 소속 등)나 개인정보를 유추할 만한 내용은 삭제하고 전체 내용을 전사하였다. 또한, 필사 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나 파악하기 어려운 단어 및 어절은 표시하여 연구진이 녹음자료를 재차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필사본의 완성도를 높였다. 인터뷰 전사본은 면접을 수행한 2인의 연구진이 각자 자신이 인터뷰한 내용을 비교하고 접

검함으로써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완성된 전사자료는 효율적인 자료의 관리와 분석을 위해 질적 연구 소프트웨어 Atlas.ti 8을 활용하였다.

연구진은 Braun &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의 방법을 이용하여 전사본을 반복해서 읽고 자료에 대한 느낌과 해석을 메모하고, 전사본의 각 어절과 문장에 대해 초기 코드를 생성하였으며, 연구진은 생성된 코드들을 비교하며 새로운 코드로 통합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각 코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점차 상위범주로 통합하면서 연구 질문에 해당하는 소주제와 대주제를 도출하였다. 이후 인터뷰를 수행한 연구진 2인을 포함해 전체 연구진이 함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자료 해석에 대해 토의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제2절 분석 결과

조사 참여자의 개별 특성은 <표 4-2-1>과 같다.

<표 4-2-1> 조사 참여자 개별 특성

연번	이름(가명)	성별	나이	직업	학력	거주 지역
1	A	여	22	대학생	대학교 재학	부산
2	B	남	27	대학생	대학교 재학	대전
3	C	여	19	대학생	대학교 재학	대전
4	D	남	19	아르바이트	고등학교 재학	대전
5	E	남	28	청년일자리	대학교 중퇴	대전
6	F	여	27	회사원	대학교 졸업	서울
7	G	여	20	대학생	대학교 재학	대전
8	H	여	24	회사원	대학교 졸업	인천

연번	이름(가명)	성별	나이	직업	학력	거주 지역
9	I	남	23	사회복무요원, 아르바이트	대학교 중퇴	경기
10	J	남	19	대학생	대학교 재학	경기
11	K	남	19	검정고시 준비	고등학교 중퇴	경기
12	L	남	26	사회복무요원	대학원 재학	경기
13	M	여	20	대학생	대학교 재학	서울
14	N	여	23	배우	대학교 졸업	서울
15	O	남	22	대학생	대학교 재학	대전
16	P	여	30	회사원	대학교 중퇴	충북

A는 현재 지방에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22세 여성이다. 그는 출생 당시 조부모, 고모, 숙부, 부모님 등으로 구성된 대가족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에는 평범한 가족이었지만 부모의 성격 차이로 초등학교 3학년 무렵 갈등이 시작되었고, 부부폭력을 목격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 당시 어머니가 가출하게 되었고 이후 아버지의 알코올 문제가 시작되었으며, 중학교 3학년까지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폭력 피해를 지속적으로 겪었다. 1살, 6살, 8살 아래의 여동생들이 있었으며, 당시 아버지로부터의 폭력은 주로 A와 1살 아래 동생을 향했기에 집에서 폭력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중3 당시 어머니가 찾아와 잠시 어머니가 거주하는 곳으로 멀리 옮겼고 전학까지 갔지만 학교생활이 힘들어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온 후 친구 집의 도움을 받아 6개월간 지내고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후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며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었고, 대학 진학 후 아버지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 원래 종교가 없었으나,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언니의 도움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종교기관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고 현재 일상의 대부분을 종교기관에서 보내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비록 공적 지원체계는 작동하지 않았지만, 중3 때 만난 교사, 이웃(친구 부모), 종교지도자, 종교기관을 통해 알게 된 언니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 현재는 취업 준비 중이다.

B는 지방에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27세 남성으로 늦게 대학에 진학하여 현재 1학년에 재학 중이다.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이 해장국집을 운영하다가 사업부도 이후 아버지는 경비원으로 일하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일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타인과 비교당하고 폭언을 자주 들었다고 한다. 초등학교 시절 따돌림을 겪었고, 중학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교사의 폭력 등을 지속적으로 당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징병검사 과정에서 자살충동 등이 확인되며 우울장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신병훈련 과정에서 공황발작으로 호흡곤란이 오면서 자신이 공황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누구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뒤늦게 대학에 진학하기로 마음먹고 보육교사가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C는 지방에서 4년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9세 여성이다. 부모, 13살 터울이 있는 오빠 등 4인 가족이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소득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 아버지는 산업재해로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고, 이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어머니는 식당 일용직으로 계속 일해 왔다. 아버지는 각막이식 후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며 다시 시력이 악화되었고, 현재는 시각장애 1급 상태이다.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허리 부상을 입은 뒤 일하기 어려운 여건이며, 어머니 역시 류머티즘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친구

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부모가 적극적으로 믿고 지원해 주었던 것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특목고에 진학하게 되며 기숙사 생활을 하였으며, 학창 시절, 부모가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민간기관을 통해 저소득 가구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늘 캠프 프로그램(1박 2일 정도로 운영) 의무참여가 조건이었던 것이 불만이였다. 대학 수능 점수가 좋지 않아 목적인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지만, 만약 자신이 재수하게 된다면 수급자 탈락이 될까 봐 재수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태이다.

D는 지방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19세 남성으로 고등학교를 1년 유급한 상태이다. 그는 어린 시절 부부폭력을 목격하였고, 6살 때 어머니의 가출 이후 어머니와 함께 유년기를 보냈다. 어머니가 사기 등의 혐의로 장기 복역(6년 형)을 하게 되며 외조부와 13살 때부터 함께 생활했는데, 외조부로부터 상시로 폭행을 당했다. 폭행을 견디다 못해 15살 때 가출을 하고 9개월간 거리 생활을 하다가 절도를 했다. 당시 절도했던 카페 주인이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을 통해 가출청소년 쉼터를 소개받았고 경찰에 선처를 요청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후 쉼터에서 4년간 생활해 왔고, 이를 통해 외조부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6월 쉼터에서 퇴소한 이후 현재 고시원에서 주거하고 있으며, 가출로 인해 출석일수가 부족하여 고등학교를 1년 유급하여 현재 고3 재학 중인 상황에서 호프집 아르바이트로 최저임금의 수입을 얻고 있다. 학교생활을 하며 야간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것이 무척 힘든 상태라고 하였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입대하고 이후 계획은 그때 가서 생각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는 퇴소 후 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동 주민센터를 찾아갔지만, 불친절한 응대와 사무적인 태도 때문에 더 이상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였으며, 쉼터의

지원이 있었기에 현재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E는 지방에서 대학교 중퇴 후 현재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28세 남성이다. 유아기 당시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어머니가 가출한 이후 시골에 계신 할머니에 의해 양육되기 시작하였다. 할머니가 혼자 두 형제를 양육하였는데 할머니가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서 밤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시골집에 방임되었다. 7세에 아동보호시설로 입소하였으며, 입소 이후 시설 내에서의 폭력, 초등학교에서의 폭력 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고, 폭력 피해로 무척 괴로웠다고 한다. 아동시설의 사회복지사 도움으로 대안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며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갈 수 있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삶에서 선택 가능한 영역이 생겼다는 기쁨을 맛보았다고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만 18세가 되어 퇴소한 이후 비슷한 시설 퇴소아동과 함께 원룸에서 생활하였는데 당시 일상생활 관리가 되지 않아 1년 만에 혼자 방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이다. 자활사업,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가 2012년(21세) 당시 대학 진학 후 3년 만에 대학생살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 중퇴하게 되었다. 이후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보호처분 청소년을 돌보며 자신에게 사회복지 분야가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을 계속할 계획을 갖고 있다.

F는 수도권에서 2년제 대학을 졸업 후 서울에서 정규직 회사원으로 재직 중인 27세 여성이다. 그는 지방의 대학교수였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유복한 유년기를 보냈으나 초등학교 학생이던 당시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한 이후 급격히 빈곤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먼 친척의 도움으로 서울로 거주를 옮기게 되었고 어머니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학업을 꾸준히 수행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에 충분히 집중하기는 어려웠다고 한다. 아동청소년기 또래관계에서 따돌림 경험이 있었고

이후 사회적 관계가 다소 위축되었다고 한다. 이후 대학에서는 취업을 위해 공부에 전념하였으며, 졸업 이후 공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회사원으로 재직 중이다.

G는 지방에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20세 여성이다. 그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 엄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어머니는 주민센터 복지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복지기관에서 아르바이트로 소득활동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 중이다. 초등학교부터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문제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별거하였고, 엄마와 할머니와 함께 생활을 해 왔으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들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청소년기에도 학교에서 따돌림 피해를 당하고 이후 또래 관계에서 위축되었다고 한다. 인생에서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힘들었으며 가정에서 엄마가 공부를 강요하여 어머니와의 갈등도 적지 않았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현재라고 하였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 우연한 기회에 해외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도 있었고 친구도 사귀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생활비 소액 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늘 부담이 큰 상태라고 하였다.

H는 서울 4년제 대학 졸업 후 수도권 회사에서 비정규직 회사원으로 재직 중인 24세 여성이다. 그는 한부모 가정 자녀로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조부모나 다른 친척들과도 거의 왕래가 없고 지원받은 적이 없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으며 그 이후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위축되게 되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느 정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으나, 또래 관계에서의 위축과 어려움은 지속되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어머니와 이혼했고 당시 알코올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으며 서울의 4년제 대학에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으

로 지원하여 진학하게 되었다. 대학생활은 비교적 원만하게 보였고, 비록 아동청소년기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었으나 생활력이 강한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복지 지원을 요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최근 유럽으로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러한 경험이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하였고, 앞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I는 수도권에서 사회복지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23세 남성이다. 5세 전부터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폭력을 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직장에서의 문제로 인해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으며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어머니가 외도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하기도 하였다. 부모님의 폭력과 갈등 상황에서 5살 많은 누나와 함께 울거나 피신해 있는 날이 많았다. 아버지의 폭력은 I에게도 가해졌으며, 아동기에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어머니와 집을 나가 도망 다니면서 학교를 결석하는 일이 잦았다. 학교에서도 산만하고 장난이 심해 선생님들에게 지적을 많이 받는 학생이었다. 잦은 결석과 문제행동으로 학교생활도 순탄하지 않았으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흡연, 음주를 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 비행행동을 하게 되었다.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유방암 투병 중에서도 I를 믿어 주고 비행행동을 수습해 주는 지지를 제공해 주셨으며, 선생님의 신뢰와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비행행동을 중단하게 되는 변화를 경험했다.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심각한 폭력 끝에 이혼했으며, 그 후 아버지는 유흥업소를 출입하며 돈을 흥청망청 쓰다 결국 파산하게 되었고, 어머니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전문대학에 진학했지만 등록금과 생활비를 스스로 대출받아 감당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1학년 2학기 때 자퇴를 했다. 대학 중퇴 후

호텔, 마트 등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었다. 복무 중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겸직허가를 받아 주말에 호텔 뷔페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복무를 하며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전역 후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할 계획을 가지게 되었다. 아버지의 음주와 폭력의 대물림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려운 불리의 경험 속에서도 어머니, 누나, 담임선생님, 친구들과 그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그간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으며, 긍정적으로 사고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J는 수도권에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19세 남성이다. 부모님과 9살, 10살의 나이 차이가 있는 2명의 형과 함께 살고 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생활하다가 7~8세 무렵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부채를 많이 지게 되어 한때 집에 난방이 끊기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J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모두 돈을 벌지만 빛이 낡은 빛으로 인해 궁핍한 생활을 해 왔다. 중학교 때 돈을 벌 쓰기 위해 친구들을 털 만나고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집돌이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무기력한 생활을 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지역 안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으셔서 다양한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발성과 성취감을 고취할 수 있었다. 또한 종교기관에서 가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도움을 제공받으며 위로와 지지를 받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공감과 지원 노력으로 교육비 지원과 장학금 추천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활동을 하는 경험을 했다. 집 안에서 혼자 음식을 해 먹으면서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요리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갖게 되었다. 현재 지역 안에서 청소년 관련 센터를 이용하며 요리를 활용하여 자원봉사 등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본인의 어려웠던 경험에 기반하여 자신도 여전히 어렵지만 다른 어려운 사람을 공감하며 후원을 약속하

는 등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K는 수도권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고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19세 남성이다. 부모님은 K가 기억이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다. 부모님은 성격이 맞지 않았고, 아버지가 술을 먹은 뒤 폭력을 가했으며 이 폭력은 상호 간의 폭력이 되었으며, K는 몇몇의 폭력장면을 기억하고 있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지냈지만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지내게 되면서 어머니의 친구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어머니 친구와 그 가족들이 진짜 가족처럼 잘 대해 주었으며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되었다. 이후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을 겪게 되면서 가정이 다시 깨지게 되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다. 사춘기의 방황과 아버지의 폭력, 가족의 해체, 경제적 어려움 등 고난이 한꺼번에 밀어닥쳐 왔다. 많이 외로웠고 힘들었지만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고, 재미있게 하던 축구도 그만두게 되었으며, 고등학교도 적성과 관계없이 학비가 들지 않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등하교 시 필요한 교통비도 제대로 받기 어려워 만 15세가 되기 전부터 전단지 등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서 쓸 돈을 스스로 벌기도 했지만 경제적 결핍은 돈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다. 자퇴 후 약 1년 동안 쉬는 날 없이 배달아르바이트를 해서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았지만 5개월 만에 허무하게 다 써버렸다. 방황하던 중 종교기관을 다니게 되었고, 이 기관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소개받고 이용하게 되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해서 현

재 검정고시 멘토링 지원을 받아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아직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L은 수도권에서 대학원에 다니다가 현재 사회복지무원으로 복무 중인 26세 남성이다. L은 부산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2명의 형과 함께 평범한 생활을 이어오다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신장장애로 진단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어머니도 아버지의 투석치료 등을 위해 정규적인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당시 대학생이던 큰형이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L은 농구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선수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고,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서 힘을 낼 수 있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운동선수로 대학도 진학했지만, 대학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지원 없이 노력과 실력만으로 운동선수 생활을 해 낼 수 없었고, 3학년 때 운동선수의 길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 후 학교에서의 모든 경제적 지원이 끊겨 학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해 왔다. 부족한 생활비로 하루 한 끼만 먹기도 하면서 건강이 많이 약해졌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직 이수를 하고 좋은 성적을 받는 등 노력의 결과를 가질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성취감도 맛보았다. 성실함을 인정받아 교수님으로부터 대학원 진학을 권유받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이때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망설였지만, 큰형이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라고 응원을 해 주어 결심할 수 있었다. 대학원을 다니며 조교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는 등 바쁘게 지냈지만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더 큰 꿈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사회복지무원으로 복무 중인데, 복무가 끝난 뒤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유학을 가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M은 서울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20세 여성이다. 지방의 작은 군에서 태어났으며, 할머니와 부모님, 3살 많은 오빠와 함께 살았다. 부모님은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는 청각장애, 어머니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지만 기술이 있어 성실히 경제활동을 해 오셨다. 아버지는 일을 하느라 바빴고, 어머니는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가진 부모님이 주변 사람들로 부터 무시받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자라왔으며, 이로 인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지역 내 민간 배움터를 이용하면서 처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진로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가족과 친척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에 있는 원하는 전공의 대학으로 진학하여 삼촌 집에서 지내고 있다. 1학년 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을 갖지 못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친구들과 만날 시간과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디자인이라는 전공을 살려 프리랜서처럼 외주를 받아 돈을 벌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싶지만 주거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N은 지방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에서 연기 분야의 일을 찾아 도전하고 있는 23세 여성이다. N은 부모님과, 1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으며, 아버지의 음주 문제와 폭력으로 4세 무렵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진단을 받는 등 자녀들을 돌보기 어려워 직접 양육하지 못하고, 본인의 아버지에게 자녀들을 맡겼다. 할아버지가 N과 동생의 주 양육자가 되어 주셨는데, 건강도 약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키워 주셨다. 가정위탁보호의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지역 내 사회복지관에서도 교육지원이나 심리적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큰아버지가 함께 살게 되면서 큰아버지의 음주와 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견디다 못해 가출을 하고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다. 어머니의 집에서 지내다가 다시 어머니가 이혼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앞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도 스스로 해결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민간 재단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대학 졸업 후 서울에 올라오면서 주거비 지원과 생활비 지원을 받아 전공을 살려 연기자라는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현재 뮤지컬이나 연극 등의 무대에 서는 일을 하고 있으며, 오디션에 합격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O는 지방에서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22세 남성이다. 부모님과 누나와 함께 지내다가 연구원으로 일하던 아버지가 IMF 이후 실직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급격히 어려워졌다. 6세 무렵 어머니가 아무런 말 없이 집을 나간 뒤로 다시 보지 못했으며 그때 이혼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돌봄으로 어머니의 부재를 크게 느끼진 않았었지만 9살 때 아버지의 재혼으로 계모와 2명의 동생과 함께 지내면서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계모는 동생들과 차별하였으며, 이에 대해 아버지는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로 인해 O는 상처와 충격을 받았으며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소심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위로와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다만 고등학교 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임선생님이 경제적 상황을 알고 민간 재단의 장학금 신청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

고 지원해 주셨다. 청년이 된 지금은 소심한 성격 덕분에 바르게 자랄 수 있었다고 회고하지만, 한창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자기관리를 계획적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군대도 다녀와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지만 아직 전공 분야에서 명확한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의 삶도 누군가 이끌어 주고 관리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P는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0세 여성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남동생과 함께 생활했다. 아버지는 공단에 재직하고 있었고 어머니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가정의 소득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술에 취해 있었고 경마에 빠져 있었으며, 어머니는 심한 낭비벽을 가지고 있어 가정경제는 늘 어려웠다. 가정의 소득 수준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적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비 등을 제때 내지 못해 학교에서 지원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으며, 부모님의 돌봄을 적절히 받지 못하여 늘 학교에 지각하는 등 생활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음주 문제로 지방으로 좌천되는 상황에 처하면서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부모님은 술과 돈 때문에 늘 싸웠으며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부모님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집 밖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으며 용돈을 벌기 위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다. 부모님과 좋은 관계 맺기의 경험을 가질 수 없었기에 선생님 등 어른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수능시험에서 기대했던 성적이 나오지 않아 원했던 대학과 학과에 가지 못했으며, 아버지의 강요로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에 진학했으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휴학과 학사경고 받기를 반복하였다. 휴학 중 대안학교에서 1년간 인턴으로 일한 경험 속에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으며, 결국 4학년 2학기 때 자퇴를 결정하였다.

우연한 기회에 디자인 일을 배우게 되었고 기술을 습득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도피하듯 결혼을 했으나 남편의 음주와 폭력 문제로 이혼하게 되었다. 부모님이 이혼을 반대하였지만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영향으로 경제관념이 약하고 자기관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청년들에 대한 금융교육과 지방의 빈집을 개조해 청년들에게 제공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청년정책이 유행 따라 변화하는 것에 대해 불편감이 있으며, 청년들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1. 생애과정의 불리 경험과 그 영향

조사 참여자들의 불리 경험은 크게 빈곤, 가정에서의 어려움, 학교 및 교육환경에서의 불리함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4-2-2>와 같다. 빈곤 경험은 가정에서의 불리 경험과 중첩되어 있었으며, 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교육기회의 박탈과 폭력 등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참여자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4-2-2> 생애과정의 불리 경험과 그 영향

소주제	개념
빈곤 경험	부모의 불안정한 소득활동
	가구 내 주 소득원이 무너지짐
	불안정한 주거 공간
	빈곤으로 인해 사회적 편견을 느낌
	경제관념이 없는 소비활동이 이뤄짐

소주제	개념
가정에서의 불리 경험	부모의 갈등 혹은 폭력에 노출됨
	보호자의 알코올 문제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당함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함
	가족 내에서 차별을 경험함
학교 및 교육환경의 불리 경험	학교폭력 경험
	교사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감옥 같은 학교생활 경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원하는 사교육을 받지 못함
	자신의 진로가 경제적 이유로 변경됨
불리 경험 으로 인한 영향	마음의 상처와 분노
	폭력을 세상의 원리로 체화함
	비행행동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함
	일상생활을 짓누름

가. 빈곤 경험

빈곤 경험은 (1) 부모의 불안정한 소득활동, (2) 가구 내 주 소득원이 무너지짐, (3) 불안정한 주거 공간, (4) 빈곤으로 인해 사회적 편견을 느낌, (5) 경제관념이 없는 소비활동이 이뤄짐 등의 5개 개념이 확인되었다. 5개의 각 하위 개념들은 분절적이라기보다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부모의 불안정한 소득활동은 가구 내 소득원, 특히 아버지의 실직이나 산업재해 등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빈곤으로 인해 불안정한 주거공간에서 삶이 영위되고 있었으며 빈곤 경험은 사회적 편견을 늘 인식하는 삶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가난한 삶 가운데 부모가 경제관념이 부족한 소비활동을 한 것을 탓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1) 부모의 불안정한 소득활동

부모의 불안정한 소득활동은 빈곤의 중요한 양상 중 하나였다. A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주로 건축설계와 관련한 일을 하였으나, 일자리가 비정기적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오징어 찢는 일’을 하면서 생계비를 보태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였다. F는 아동기에 아버지가 돌연사하게 되며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보험, 공인증개사, 자영업 등 여러 일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였다. F의 아버지는 대학교수였으나, 아버지와의 사별 이후 어머니 혼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대학을 졸업하였고 교사 자격도 있었으나,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통해 소득활동을 하였으나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때 아버지는 건물을 설계하는 일을 하셨었고. 정기적으로 직장에 나가지는 않으셨지만, 일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면 설계하고 돈 받으시고 저희 어머니는 주로 일은 안 하셨지만, 가끔, 가끔이 아니라 한 번 취직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거를 오래 하지는 않으셨던 거 같아요. 또 집에 계실 때에는 오징어 찢는 일이 있었는데 오징어를 많이 받아 오셔서 다 찢어서 다시 주면 킬로 수 대로 돈을 받고.... (A)

엄마는 진짜 다양한 일을 하셨어요. 교사 자격증도 있으셔서 기간제 교사 그런 비슷한 일들도 하시는 거 같았고요. 오래 못 하니깐 보험도 배워서 하시고, 공인 증개사 공부도 하시고 부동산도 하시고 다..... 거의 하실 수 있는 거는 다 하셨던 거 같아요. 진짜 수입이 불규칙하고요. 스터디 카페? 독서실 비슷하게 하는 그런 거 운영을 하셨는데 너무 임대료가 높고, 사람들이 매번 꾸준히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안 오기도 하잖아요. 그럼 적자가 심했어요. (F)

부모의 낮은 사회적 지위는 불안정 노동과 연관되어 있었다. F의 어머니

니는 고학력이었음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면, G의 부모는 이혼 후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F의 어머니는 보험업, 부동산 중개업 등과 같은 일을 찾았다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G의 어머니는 공장이나 복지도우미와 같은 공공 일자리에 취업하였으며, G는 어머니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한 원인으로 '대학이 우선'인 사회에서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꼽고 있었다. K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 소득원이었던 어머니의 저학력 상황에서 일용직 일자리를 찾았어야 하였으며, 주로 공장 청소, PC방 청소, 헬스클럽 청소 등을 하면서 일당을 받는 일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 가구 내 주 소득원이 무너지기

가구 내 주 소득원의 건강 상실이나 사망은 직접적으로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가구 내 주 소득원이 무너지는 상황은 건강 상실이나 사별, 수감 등의 다양한 상황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이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가족의 삶을 지진처럼 뒤흔드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C의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응집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버지가 섬유공장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인해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이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며 건설 일용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허리 부상까지 당하게 되면서 경제적 상황이 급속도로 어려워졌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아버지는 각막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충분한 회복 기간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상황 때문에 회복 기간 없이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였다.

아빠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무직인데 공사장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요즘은 너무 더워서 나가셔도 일찍 들어오시고, 아니면 안 나가세요. 아빠가 시각장애 1급이시라 거의 안 보인다고 하세요. 제가 태어날 때 태어나기 한, 오빠 중학교 때쯤 눈을 다치셨으니까... 사고로..... 아빠 일하는 데가 섬유공장 이런 데였는데 여기 눈에 뜨거운 게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산업재해로요. (C)

D의 경우 어머니가 주 소득원이었으며,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D와 함께 가출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사업을 하면서 경제사범이 되었고 이로 인해 어머니가 수감되게 되면서 경제적 여건이 급격히 어려워지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6학년 때 도망을 다니시다가 엄마가 자수를 했어요, 경찰에. 그래서 이제 엄마가 교도소에 들어가시고, 저희는 어머니 가신 날 바로 다음 날에, 그때가 졸업하고 한 3일 뒤였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3일 뒤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랑 집을 다 싸고, 안양으로 왔죠, 14살 졸업하고 나서 2월에. (D)

L은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어머니가 아버지의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어머니는 ‘아르바이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형이 주 소득원으로 활동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보고하였다.

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셔서 일을 제가 중학교 때부터 못 하셨고, 어머니도 지금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어머니가 뭘 정규직으로 뭘 일을 하기에는 힘들어서 이제 아르바이트 식으로 알바를 좀 하셨고. 결국에는 친형이 이제 가장의 역할을 좀 대신해서.... (L)

위의 사례들은 주로 주 소득원의 경제 상황이 취약하던 상태에서 주 소득원이 여러 이유로 인해 무너지게 되며 더욱 빈곤이 악화되었음을 설명한다면, F와 J는 주 소득원의 소득 상실 상황이 이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가족을 뒤흔들고 있음을 보여 준다. F의 경우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고, 부모의 관계가 좋았던 유년기를 보냈다고 회고하였으나 아버지가 10세 당시 새벽에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하게 되며 갑자기 가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였다. F의 보고는 가구 내 주 소득원의 붕괴가 가족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구가 기존에 어떠한 사회경제적 지위였는지에 무관하게 클 수 있음을 보여 준다.

2002년 1월쯤에 아버지가 OO로 출장을 가시게 됐는데요 그때 일어나시다가 새벽에 일어나시다가 심근경색으로……. 그래서 응급실로 바로 가셨는데도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행복했던 게 다 무너졌다고 생각이……. 2-3학년 때? 엄마도 굉장히 절망하셨었죠. (F)

이는 J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진다. J는 아버지가 OO 관련 전공을 하고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하였으나, 외환위기 당시 해고되었고 이후 경제적 여건이 급격히 취약해졌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기존의 직업능력으로 재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거환경을 열악한 곳으로 옮기면서도 부채가 늘었다고 하였다. 부채가 늘면서 신용도가 다시 낮아지게 되었고, 이는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되며 아버지의 재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연구원으로 일하시다가 IMF 이후로 다 잘리셨어요. 이때 집을 팔고, 제가 원래는 OO동이라고 해서 거기서 살다가 OO동으로 이사 와서 (중략) 빚이 1억 있었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부수적으로 나온 게, 좀 많이 생겼던 게 거의 5~6천 된 거 같아요. 이자만 거의 한 달에 100만 원정도. 그걸로 인해서 엄마, 아빠 신용이 낮아지니까 제1금융권에서 못 하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티브이에서 광고하는 그, 막 개네들한테 일단은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계속 금리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부모님 월급은 많이 빚으로, 이자로 나갔었고.... (J)

3) 불안정한 주거공간

빈곤 상황은 주거의 불안정을 가져왔다. 주거 불안정은 잦은 이주경험으로 연결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아동기의 안전하지 않은 삶과 연결되었다. H는 임대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어머니와 2명의 자녀가 함께 생활하기에 10여 평의 주거공간은 매우 비좁았을 뿐만 아니라 들끓는 바퀴벌레로 상징되는 것처럼 쾌적하지 않았던 주거환경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쾌적하지 않았던 것보다 H에게 어려웠던 것은 비좁은 주거 공간 때문에 청소년기에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였다.

고등학교 초반까지 임대아파트에 살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또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많아 가지고 되게 좁은 방에 2층 침대로 동생이랑 잤거든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크면서 서로의 공간이 없었으니까, 나이대로 따지면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어야 했는데 항상 같이 있는 시간이니까……. (H)

P는 현재 재개발된 지역이지만 과거 산동네였던 곳에서 옮겨 다니며 생활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10번 가까이 이사를 다녔다고 하였다. P는 태어나서 10세가 될 때까지 거의 매년 이사를 하며 주거지를 옮겨야 했다. 크지 않은 동네 안에서 이사를 해서 친구 관계에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으며, 그로 인해 주거지가 안정되기 힘들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OO동에서 태어났거든요 제가. OO동에 지금은 재개발 다 되었는데 산동네가 있었잖아요. OO동 산동네에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거 같아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산동네를 옮겨서 살았어요. 되게 많이 이사했었던 거 같아요. 한 10번 가까이는 했었어요. (P)

주거 불안정은 아동기의 안전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주거 불안정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거주공간이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남편의 폭력에 대처하는 일반적 양상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는 것이었는데, 이때 안정적인 주거가 마련되지 않아 모텔, 찜질방을 전전하거나 원가족에게 맡기는 등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참여자의 인터뷰 결과 확인되었다. D는 6살 때 어머니가 가출하기 전까지 아버지가 사설도박장 같은 곳을 데리고 다녔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D와 6세 때 가출하게 되었는데, 가출 이후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주로 모텔에서 거주하였다고 했다. E 역시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어머니가 가출한 이후 유아기를 할머니 집에서 보냈는데, 할머니 집에서 혼자 방치되었던 적이 많다 보니 불장난을 하다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에 노출된 경험도 있다고 하였다. I 역시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찜질방에서 지내거나 친구네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을 정도로 거주공간이 불안정하였다.

저는 그때 유치원에 다녀야 될 나이였는데, 유치원도 안 다니고 집에만 계속 틀어박혀 있었죠. 약간 방치되어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아빠는 저를 데리고 OO이야기 같은 사설 도박장이랑 오락실이나 피시방이나 데리고 가서 그러고 있었고. (중략) 그때 나와서 돌아다녔어요. 막 포항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안동도 갔다가, 의성도 갔다가 그렇게 택시를 타면서 돌아다니면서 모텔에서 지냈죠. (D)

한 번 처음으로 라이터를 접했는데 라이터를 켜 줄 모르니까 종이를 태웠어요, 어떡하다 터져서. 그때 불이 났었어요, 집에. 그 위가 다 나무로 되어 있는 기와집이었는데 그 나무가 다 그을렸어요. 끄기는 주변 사람들이 꺼 준 거 같아요. 그 불났다는 거 밖에 기억이 안 나고 불나고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E)

4) 빈곤으로 인해 사회적 편견을 느낌

아동기의 빈곤 경험은 삶의 일상을 짓누르는 편견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까지 빈곤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이러한 가족의 상황이 친구 관계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편견으로 작용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10대 이전에 자신은 빈곤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동에게 편견이 작용할 것을 우려한 어른들이 가족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스스로 위축되는 상황도 확인되었다.

G는 외할머니로부터 누가 물어보면 아버지의 부재를 알리지 않도록 교육받았다고 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가까운 친구에게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할머니가 늘 당부했던 다짐이 생각나서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을 느꼈다고 하였는데, 이는 빈곤이나 여러 사회적 불리 상황으로 인해 편견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가족의 방어에 해당하였다.

초등학교 때 단체 생활을 많이 하면서 애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부터 저희 집이 조금 다르다는 거를…… 약간 다른 느낌?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님이 정확하게 엄마랑 할머니가 같이 살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아빠가 같이 안 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 명한테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근데 개가 소문을 냈던 건 아닌 거 같은데……. (G)

빈곤이나 사회적 불리가 편견이라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주로 10대부터였다고 보고하였다. J는 중 1학년 때, H는 초등학교 5학년 때, N은 중

학생 때부터 자신의 상황이 일상에서 들키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늘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특히 친구 관계에서 편견을 느꼈다. J는 일상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경험하였다고 하였고, H는 가까웠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면서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하였고, N은 평소 입고 다니는 옷 등으로 친구들과 구별되는 경험이 있었다고 하였다.

중1 올라갈 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재네들보다는 내가 좀 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그게 조금 많이 상처가 되었던 거 같아요. 한창 사춘기기도 했고.... (J)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 임대아파트 옆에 바로 있는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의 사정이 거의 비슷했어요. (중략) 또 그런 거를 인식할 나이가 아니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한참 멀어지는 동네로 중학교를 가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좀 약간 그걸 느꼈던 거 같아요.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이랑 그게 좀 많이 차이가 있다고 느꼈어서 (중략) 행색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초등학교 때 봐 왔던 친구들이랑 중학교 그 친구들이랑 좀 많이 달랐던 거 같아요. 그 경제적인 차이가 좀 많이 느껴졌던... 근데... 그 친구들을 좀 따라가려고 했던 거 같아요. (중략) 가족 얘기를 하면 좀 약간 피했던 거 같고.... (N)

5) 경제관념이 없는 소비활동이 이뤄짐

일부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저소득의 상황에서 더욱 빈곤의 악순환으로 연결되었던 이유 중 하나로 부모가 경제관념이 없는 소비활동을 했던 것을 꼽았다. I는 아버지가 유흥업소 등에서 돈을 ‘홍청망청’ 쓰기 시작하며 안정적이던 가구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하였고, 이러한 소비 행태는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어도 지속되었다고 하였다. P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경제적 관념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였다. 아버지는 돈이

생기면 규모 있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술 사 먹고', 어머니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생활하였다고 했다. 그 원인으로 아버지는 막내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졸업 후 형제들 대학 보내느라 어린 시절부터 타지에서 홀로 직장생활을 하였는데, 두 분 모두 경제생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부재하여 바른 경제관념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OO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그 집을 놔뒀으면 됐는데 아버지 욕심으로 그 집을 팔고 좀 더 큰 전셋집으로 옮겼다가 아버지가 그때부터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해서 가지고... 불건전업소 같은 데 가서 가지고 돈을 막 뿌리기도 하고, 몇천만 원씩. (I)

있을 건 다 있고 할 건 다 했던 거 같아요. 가난의 이유가 소득이 없었던 게 아니라 소비 때문이었으니까 (중략) 엄마는 경제관념이나 살림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이게 없었던 거죠. 아버지가 막내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벌면은 규모 있게 쓴다거나 이런 적이 없고.... (P)

나. 가정에서의 불리 경험

조사 참여자들이 가정에서 겪은 불리 경험과 관련하여 (1) 부모와의 갈등 혹은 폭력에 노출됨, (2) 보호자의 알코올 문제, (3)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당함, (4)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함, (5) 가족 내에서 차별을 경험함 등의 5가지 개념이 도출되었다.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아동청소년기에 다수의 참여자들은 가정폭력 목격, 학대 피해, 방임 등을 비롯하여 보호자의 알코올 문제나 가족 내에서의 차별 경험을 겪었고 이는 이후 여러 부정적 영향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부모의 갈등 혹은 폭력에 노출됨

다수의 참여자들은 아동청소년기에 부모의 갈등과 폭력, 특히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고 이러한 폭력 목격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대처기제를 활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참여자들은 어머니에 대한 폭력이 공포로 여겨졌고, 이를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어수단이 사용된 경우도 있었고, 한편, 아버지의 폭력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또 다른 가족구성원(본인 혹은 어머니)이 아버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순환적 양상도 확인되었다.

A는 어머니의 종교기관 출석을 못마땅해하는 아버지가 종교기관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하며, 밥상을 엮는다거나 어머니에게 폭력을 사용해서 어머니가 신체손상(멍듦, 피 남 등)을 목격했다고 하였다. 이때 느꼈던 감정은 '무서움'이었으며, 당시 이러한 상황을 '눈치 보면서' 회피하는 것으로 대처하였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땀가 3학년 땀가 학교를 마치고 나왔는데 엄마가 저랑 동생을 처음 교회를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 아빠 몰래 간 거여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인데 엄마가 몰래 교회를 간 거고, 엄마가 교회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셔야 해서 핸드폰을 사셨는데 그거를 옷장에 숨겨 두고 계셨거든요. 근데 실수로 벨소리가 한 번 울려서 아빠가 부러트리고 (중략) 손찌검하시고, 많이 때리시고, 할머니 한 밥상에서 밥을 먹었는데, 밥상 다 옆으시고 (중략) 그러면 이제 아빠도 무섭고, 그래서 안 다가가고, 엄마도 예민해져 계시니까 안 다가가고 그랬어요. 눈치 보면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A)

B의 부모는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자주 싸웠고 폭력의 양상은 식당 유리창을 깨뜨리는가 하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위협적이었으며, 거의 매일 반복되었다고 기억하였다. 처음에는 “싸우지 마!”라고 했지만 자신의 행위가 폭력을 중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당시의 경험은

이후에도 누군가 언성이 높아졌을 때 순간적으로 '위축'되는 자동반응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그는 '원래 세상이 다 그런 줄'로 알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폭력이라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인식과 이후 연결되었다.

엄마 아빠 두 분은 맨날 싸우고 (중략)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때 식당 운영할 때 유리창 다 깨져 있고, 막 집어 던지고, 욕하고 매일 매일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매우 심했어요. (중략) 지금도 목소리가 딱 올라가면 그게 느껴져요. 지금도 그래요. 누가, 소리, 언성이 딱 높아지면 순간적으로 위축되고.... (B)

A와 B는 부모 폭력 목격 경험과 갈등이 아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기억한 반면, G는 아주 어렸을 때 부모 폭력을 목격하였지만 이러한 것이 자신에게 큰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이..... 별거를 좀 하시다가 그게 시작이었고, 저는 이 당시 기억이 거의 없어서 슬프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서.....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큰 영향이 없었어요. (G)

N과 P는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은 음주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N은 부모님이 이혼한 이유가 음주와 음주 상황에서의 폭력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N은 아버지의 폭력을 분명히 기억하기엔 어린 나이였던 반면, P는 아버지의 폭력 상황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폭력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당시의 기억을 잊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였다. 즉, 폭력의 상황과 음주 문제가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한테 듣기로는 아빠가 이제 술을 너무 좋아하셨고 또 술을 먹으면 약

간 성향이 좀 폭력적인 그제 있어 가지고.... (N)

나는 진짜 아버지를 컨트롤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싸우고, 시비 걸고, 욕하고, 부수고 던지고.... 그러니까 늘 취해 있으니까 (중략) 엄마도 술 취한 게 너무 싫으니까 늘 뭔가 짜증을 내거나 이러면 그때부터 싸우고 이랬던 거 같아요. (P)

I의 경우 어머니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버지의 폭력 원인이라고 하였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당시의 폭력 양상은 ‘칼’이라는 도구가 사용될 만큼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당시 칼을 위협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찌르려고 사용하였고, 쿠션에 박혀서 살해가 미수에 그쳤으나, 이후 주먹으로 어머니를 때리는 상황이었다고 하였다. 다른 참여자들의 경우 아버지의 폭력에 대한 기억이 10대 이전이었던 것과는 달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I는 아버지의 폭력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자신 역시 아버지에게 폭력을 사용하여 막아섰다고 하였다.

엄마가 바람피우고 집에서 맞으시고 다시 가출했다가 아빠가 미안하다고 사과해서 들어왔는데 다시 바람피우고, 아빠가 또 때리니까 또 바람피우고 다시 그걸 반복... 다시 아빠가 사과해서 들어오고 (중략) 제가 쿠션 들고 있었는데 칼 꺼내는 거 보고 당황해 가지고 나오다가 그냥 나갔다가보다는 그냥 아빠가 잘못 찌르신... 그냥 쿠션만 이렇게 하다가, 쿠션에 박혀 가지고 떨어뜨렸는데 칼 그냥 바닥에 꽂히고 아빠가 이렇게 칼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바로 주먹으로 엄마 때리시고 그러셨어요. 그때는 저도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나이도 먹고 크니까 저도 같이 아빠 때리고 그냥 때리지 말라고 뒤에서.... 아빠가 엄마를 침대에서 위에서 막 때리고 계시면은 저는 뒤에서 의자 같은 거 아바 등에다가 던지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런 식으로 막기 시작했던 게 기억나요. (I)

I는 아버지의 폭력에 대해 자신 역시 폭력으로 맞대응했던 상황이었다면, K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력에 맞대응하며 폭력을 사용했다고 하였

다. K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에 “안 졌어요.”라는 언급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를 밀치며 폭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고, 당시의 폭력 대응은 아버지가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근데도 엄마도 안 졌어요. 기억이 아직도 나는 거 같아요. 제가 3살, 4살 때 쯤에 이혼하기 직전에는 아빠가 휘청휘청해 가지고 술 먹고 들어오는데 엄마가 뭐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빠가, 막 때리면서 그러다가 엄마가 아빠를 이렇게 밀었어요. 때리면서 밀었나 아무튼 했는데.... (K)

2) 보호자의 알코올 문제

앞서 살펴보았듯 참여자의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은 음주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음주는 폭력의 원인이기도 하였으나, 가족의 일상을 훼손하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P는 아버지의 음주 문제가 심각해서 병원 입원치료까지 받았던 적이 있지만 잘 치료되지 않았고, P가 25세 당시에 쓰러졌던 적이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음주 상태에서 도박(경마)에 빠져 있었고, 어머니 역시 심리적으로 불안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음주가 가족의 여러 부정적인 상황의 원인이라고 여겼다.

엄마는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한 상태이고, 몸도 교통사고나 이런 게 좀 있었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신 걸로 알고 있고, 아빠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서 그거 때문에 좀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 병원 입원치료도 하시고 (중략)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심했다가 한 제가 25살 때인가 그때쯤에 이제 쓰러지셔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술 먹으면 죽는다.... (P)

3)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당함

가정 내에서의 폭력 피해는 아버지에 의한 어머니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조사 참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등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B는 어린 시절에 발달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딘 편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당시 자신의 발달이 늦은 것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늘 비난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스트레스를 ‘자식한테 전이’시켰던 것이라고 그는 해석하였다. 항상 자신에게 아버지가 욕설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아빠는 무조건 나한테 욕하고, 화내고, 짜증 내고……. 나는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즈음이었던 거 같은데 ‘씨발 새끼’, ‘개새끼’ 뭐 항상 이런 욕이……. 그럴 이유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아빠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중략) 저한테 쏟았던 거 같아요. 자기가 잘못되는 거를 자식한테 전이시켰던 거 같아요. (B)

D는 어머니가 경제사범으로 수감된 이후 외할아버지에 의해 청소년기에 양육되었는데, 당시 외할아버지는 그에 대해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사용하였고, 폭력을 피하기 위해 가출을 했다. 맞는 이유 역시 그가 느끼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었다.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렸다거나 필통에 가위 두 개 넣는 것 등이 이유가 되어서 맞았고, 맞는 빈도 역시 거의 매일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라고 하였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인데, 별다른 이유 없이 맞고 할아버지한테요. 듣지 못할 욕도 많이 듣고 그랬던 거 같은데 그러다가 열다섯 때 가출을 했어요. 처

음 가출을 해서 1년 동안 밖에서 고생을 했죠. (중략) 자주 때리셨어요, 많이. 좀 사소하게 이유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만약에 안 버렸거나 하면 그걸로 맞거나, 필통에 가위를 두 개 넣었다고 맞거나, 거의 매일 할아버지랑 있을 때마다 그랬던 거 같아요. (D)

K는 부모 모두에게 심하게 맞았는데, 폭력 양상은 신체적 체벌과 같은 혼육이라기보다 ‘온 군데’를 다 때리는 상황이었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운동선수 출신이었는데 어머니의 폭력이 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였다. 일명 ‘빠따질’이라고 하였는데, 어머니로부터 맞았던 것이 특히 강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아버지의 폭력이 약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머리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맞다가 피해서 어머니 집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상실될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하였다.

어렸을 때 많이 맞아 가지고.... 아빠한테 많이 맞았죠. 엄마한테도 되게 많이 맞았어요. 엄마는 일반 여성분이 아니에요. 엄마도 어렸을 때 운동하면서.... 엉덩이 말고도 온 군데 다 많이 맞았죠. (중략) 한번 아버지랑 말다툼 좀 심하게 하다가 아버지가 저를 막 엄청 때렸어요, 머리를. 군데 눈을 떠 보니까 어디 모르는 집에 와서 자고 있는 거예요. “뭐지?” 하니까 엄마한테 연락이 막 와 있어 가지고 보니까 새벽에 제가 맨발로 나와 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엄마 집 막 찾아가 가지고. 맨발로 막 걸어가 가지고 엄마 집 와서 잤대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안 난 적도 있었어요. (K)

정서적 폭력이나 신체폭력과는 달리 아동기의 성적 폭력 또한 보고되었다. N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으며, 당시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이를 발견하고 중단시켰고 이후 이혼하였기 때문에 의붓아버지로부터의 성폭력은 지속되지 않았지만,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같이 지냈었는데 그분이 저를 막 딸이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긴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한 번은 제가 자고 있는데 그 뒤에서 같이 저를 딸이라고 막 안고 주무시려고 하셨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엄마가 들어오셔서 가지고 엄청 화를 내셨어요.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이혼을 하셨어요. (N)

4)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함

정서적, 신체적, 성적 폭력 피해 외에도 필요한 돌봄을 적절하게 제공 받지 못한 상황에 놓였던 아동기의 경험 역시 보고되었다. 돌봄의 부재뿐만 아니라 의료적 방임도 함께 확인되었다. M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자신이 ‘잔소리’라고 할 만한 돌봄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이 부모화되어 부모에게 ‘잔소리’하는 일이 더 많았다고 한다. 그는 친구들이 부모에게 성적 때문에 잔소리를 듣는 상황을 오히려 부러워했다.

그 친구 부모님들은, 부모님이 친구한테 잔소리를 하는데 저는 제가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하는 거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뒤돌아서 보니까 나중에. 저는 뭐 성적 가지고 부모님한테 한 소리 들었다 그런 게 되게 부러웠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는 그런 거를 신경 안 쓰기보다는 모르세요, 그런 거를. 그래서 되게 부러웠어요. (M)

E는 시골의 할머니에 의해 영유아기에 양육되었는데 항상 할머니는 새벽 5시 반 정도에 농사 품팔이를 위해 나가셨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으며, 당시 그와 동생 둘이서 하루 종일 집 안에 방치되었다고 하였다. 점심은 할머니가 해 두신 것을 먹었고, 저녁은 할머니가 와서 챙겨 주셨다고 했다. 시골에서 이웃도 없는 집에 형제 둘이 남겨진 상황에서 또래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둘이서만 놀았다고 하였다. 그 때문에 언어 발달 등이 모두 늦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또

한, 그는 앞서 '불안정한 주거공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할머니가 없을 때 집에서 둘이 놀다가 화재가 났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적도 있었는데 이 역시 방임 상황에서 발생했던 것이었다.

할머니 손에 컸다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한 게 새벽 한 다섯 시 반쯤이면 일을 가셨어요. 할머니는 발일 같은 거 하셨던 거 같아요. 맨날 저녁 늦게 오시니까 할머니 손에서도 안 컸던 거 같아요. 그냥 아침밥만 해 놓고 가시면 동생 이랑 저랑 먹고 그랬거든요. 점심도.... 저녁은 할머니가 오셔서 해 주셨어요. 아침 점심은 둘이서 해결을 해야 했던 거죠. (중략) 그때는 많이 잤던 거 같고, 그리고 바로 옆에 OO사라고 큰 별판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곤충들이랑 많이 놀고. 가끔 제사하고 하면 옛날에는 수의 입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가잖아요. 그런 거 따라가기도 하고 (중략) 그래서 많이 늦었죠. 모든 게 다 많이 늦었었는데..... (E)

5) 가족 내에서 차별을 경험함

가족 내에서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O는 아버지가 재혼한 후, 의붓어머니가 자신의 친모에게 O 역시 자기 자식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만, 친자식과 자신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심부름을 본인에게만 시킨다거나 무거운 것을 자신에게만 들게 하는 것 등이었다. 언젠가 치킨을 먹을 때 자신이 살을 잘 발라 먹지 않고 놓은 뼈를 모르고 의붓어머니가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O가 먹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더럽다는 듯 뺨는 모습을 보며 모멸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제가 새엄마가 통화하는 거를 들었어요. 이제 재네들은 나의 자식이니까 신경 꺼라. (중략)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친자식과도 되게 차별이 심했고 심부름을 저만 시켰어요. (중략) 제가 엄청 충격이었던 게 저하고 새엄마하고 동생 2명 이렇게 4명이서 치킨을 먹고 있었어

요. 저도 동생들도 뼈를 깨끗하게 발라 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온 뼈를 새엄마가 먹었어요. 동생들한테 왜 이렇게 뼈를, 살을 많이 남겨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새엄마한테 내가 먹은 건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상을 찌푸리면서 뱉는 거예요, 뼈를. 그래서.... (눈물) (O)

다. 학교 및 교육환경에서의 불리 경험

학교 및 교육환경에서의 불리 경험은 크게 학교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과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등 2가지로 압축된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조사 참여자들은 가정 내에서의 폭력 목격이나 학대 등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가정 내 피해 경험은 학교 내로 전이되며 이들의 삶을 옥죄었다. 학교 내에서 교사와 또래로부터 폭력과 따돌림, 멸시를 겪었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은 ‘감옥’처럼 여겨졌다. 빈곤은 이들이 원하는 사교육을 받기 어렵게 하였는데,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들에게 단순히 학교교육 이외의 부가적인 요구를 넘어 또래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차단당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경제적 상황은 이들의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로를 바꾸게 하였고, 대학 진학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것으로 작용하였다.

1) 학교폭력 경험

앞서 살핀 가정에서의 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또래에 의한 폭력과 따돌림도 있었다. 이러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단순히 피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 있을 경우 자신 역시 가해자가 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B는 몸집이 작고 힘이 약한 편이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나서 폭력 의 타깃이 되었다고 하였다. 자신의 물건을

훔쳐 가는 일을 비롯해 놀 때 자신을 배제하는 등의 상황을 경험하였다.

초등학생 때는 엄청 학생? 또 왕따 당했던 경험도 있고. 고학년으로 올라오고 나서 학교에서 때리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괴롭히던 애들……. 타깃이 된 거죠. (중략) 5학년 때, 같이 놀던 무리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힘이 좀 세던 애가 있었어요. 키도 좀 크고. 개가 사실상 대장이었던 거죠. 일곱 명 정도 모여 있었던 거 같은데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 물건 같은 거, 사물함, 책상 서랍 있잖아요. 연필이나 뭐 이런 거를 훔쳐가더라고요. 나중에는 한 명씩 전염이 된 건지 저를 배제하더라고요. 일단 놀거나 하면 욕을 하던가, 그게 따돌림이었던 거 같아요. (B)

다른 참여자들 중에서 B가 겪은 신체적 학교폭력 피해와는 달리 따돌림이 학교폭력의 주 양상으로 사용되었던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따돌림 피해 경험 역시 참여자들의 아동청소년기를 매우 힘들게 했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C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는데, 이러한 피해 이후 소극적이 되었다고 하였다.

6학년 때 따돌림을 좀 당했어요. 아직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짐작하는 건, 친구 셋이 놀면 제가 그냥 맘에 안 들었던 거 같아요. 개네 판에서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계속 그 친구한테 더 다니려고 하니까 그게 싫었는지 반에서 쪽지 같은 거를 돌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봤거든요. 그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저한테는 그 쪽지 돌린 게 엄청 충격이었어요. 중학교 되면서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소극적이 되고 친구들 눈치를 되게 많이 봐서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공부까지 하면서 친구 눈치까지 보려니 그게 힘들었던 거 같아요. (C)

2) 교사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또래 간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교사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을 보고하였다. B는 앞서 가정 내에서의 폭력, 또래로부터의 폭력뿐만

아니라 중학생 이후 교사로부터 폭력 피해를 심각하게 당했다고 하였다. 그는 학업 성적이 높지 않았고 또래보다 왜소한 편이었으며 이로 인해 집 안에서도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자주 들으며 자신을 비하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하였는데, 학교에서도 교사로부터 ‘저런 병신 같은 새끼’라는 등 심한 욕설을 듣게 되었고 이러한 자신에 대한 폭언에 대해 또래들이 ‘낄 낄’거리며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상황에서 심각한 모멸감을 경험했다.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교사로부터 맞아야 했으며, 다른 학생은 100대를 맞은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들이 성장했던 2000년대에도 여전히 학교 내에서 심각한 수준의 교사에 의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제 담임선생님이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군대식 그제 있었어요. 엄청 강압적이고 애들 때리고 (중략) 뭐 하나 잘못해서 앞에 나와서 망신을 줬는데 “뭐 저런 병신 같은 새끼가 나왔어.”라고 욕을 했었거든요, 저한테. 그리고 또 저를 시기했던 몇몇 애들은 속으로 막 낄낄대더라고요. 비웃는 거죠. (중략)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맞았어요. (B)

E는 할머니에 의해 양육되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되어 가정 외 돌봄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자신이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사회적인 것인지를 모르는 채 교사에게 자주 대들었고, 이러한 자신의 반항적 행동에 대해 교사는 폭력으로 대처하였다. 물론 교사의 폭력 유발의 원인이 그의 공격적 행동이나 비행적 행위에 있었다손 치더라도 폭력의 빈도가 잦았으며, ‘붓고 터지고’ 할 정도로 그 양상이 심각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선생님한테 많이 대들고.... 근데 많이 맞았던 거는 그때 당시에는 학년이 바뀔 때마다 어머니는 누군지, 아빠는 누군지 알아야지 쓰잖아요. 근데 그 걸 안 쓰고 망설이는 애들이 저희 집(아동보호시설) 근처에 OO초등학교가

있는데 다 그리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보육원에, 고아원에 사는 애들이다. 일이 있는 날에는 나는 항상 선생님한테 맞았고, 나는 항상 애들을 때렸어요. (중략) 근데 그때는 이제 조금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심하게 맞고 막 애들이 붓고 터지고 이랬거든요. (E)

3) 감옥 같은 학교생활 경험

이러한 학교 또래 간 폭력 피해와 교사의 폭력 상황뿐만 아니라 학교의 엄격한 규율과 통제는 참여자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감옥’으로 여기게 하였다. B는 고등학교 때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해야 했으며, 당시 이러한 자율학습을 모든 학생들이 따라야 하는 것에 대해 자신은 유독 괴로워했으며, 이러한 통제를 견디기 어려워하였다. 그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건너편에 대학이 있었는데, 당시 창밖으로 대학생들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다고 하였다.

야간자율학습, 그 야자가 생기고 나서 본격적으로 감옥이 되었고요, 제 반이 창가 쪽이었거든요, (중략) 항상 밖을 볼 때마다 밖에는 자유가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여기는 다 가둬 놓고. 강압적이고 누구도 안 도와주니까... 무조건 여기서 나가야 된다, 졸업만 해야 된다, 이거를 3년을 버텨야 된다..... 창밖을 볼 때마다 대학생들이 지나다니잖아요.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대학교를 가면 다 자유분방해진다고 듣고, 그때 되면 해방이 되는구나.... (B)

G 역시 야간 자습이 자신에게 고통스러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고등학교 생활의 패턴에 적응하는 게 어려웠고 학교에 오랜 시간을 머물러야 하는 것 자체가 괴로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야자 때문에 힘들어 가지고...... 제가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실제로 공부도 안 했었고, 수업시간에 좀 많이 잤고, 그냥 고등학교 패턴에 적응하는 게 힘

들었던 거 같아요. 그냥 오래 학교에 있고 이러는 거 자체가 저한테 스트레
스였던 거 같아요. (G)

4)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원하는 사교육을 받지 못함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원하는 사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F와 G, M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학원 등과 같은 사교육을 이용하고 싶었지만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물론 사교육은 학교교육 이외의 부가적인 교육적 혜택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다수의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시장에서 또래관계가 형성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이 사교육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교육의 불리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M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학원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학업뿐만 아니라 ‘무리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또한 G는 고등학교 때 미술학원을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당시 학원비가 50만 원이나 되었고 한부모 가정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원을 못 다녔다는 생각으로 귀결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래서 중학생 때 일부러 학원에 안 갔고요 방과 후 학습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 방과 후 학습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학원이나 과외 별로 안 하고, 학교 수업 듣고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F)

한번 미술 때문에 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니고 싶었는데, 엄마가 학원비 없어서 못 한다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5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 돈이 딱 생활비였어요. 그래서 어찌면 만약에 아빠가 있었더라면 다녀 보기는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G)

5) 자신의 진로가 경제적 이유로 변경됨

경제적 상황으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험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가 변경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다. 경제적 문제 때문에 진로 자체를 바꾸는가 하면 대학을 하향 지원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K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했다가 중퇴했다. 그는 손기술이 좋지 않음에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인문계 고교 진학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 때문에 중퇴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저는 중학교 졸업은 했고 고등학교는 이제 중퇴했어요. 그냥 돈 벌고 싶어서 그냥 자퇴했어요. (중략) 조립도 별로 안 좋아해요. 퍼즐, 전혀 안 좋아해서 손기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쪽으로 빠지고 싶지 않았는데... 저 그때 인문계로 빠졌어야 했는데, 경제적인 이유도 그것도 있고요.... (K)

L은 농구부 활동을 했고, 농구선수를 진로로 생각하고 준비하였으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점점 성인 무대로 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에서 보태 주는 서포트'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깨닫고 진로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어린 시절에는 실력만으로 승부를 볼 수 있었지만, 점차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하고 실력이 어느 정도 좋으니까 그런 불이익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학을 가고 이제 성인 무대로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집에서 보태 주는 서포트,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확실히 차이를 많이 느끼고 그런 지원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되게 어려웠던 거 같아요. (중략) 아, 운동은 성인 무대로 갈수록 느꼈죠.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 (L)

A는 대학 진학 시 경제적 상황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서울 쪽 대학 진학도 고려할 만한 성적이었음에도 경제적 상황 때문에 지방의 국립대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는 현재의 대학생활 전반에 만족하고 있었기에 선택지가 축소된 것 자체는 불리 경험이라고 여기지 않았지만, 저소득의 불리 상황이 진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다른 애들은 다 서울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도 너무 많고, 서울에 가려면 국립대를 가야 할 텐데 서울대는 절대 못 가고.... 그래서 지방 국립대만 다 알아봤었어요. (중략) 낮게 넣어서 다섯 개를 붙였어요, 그때. (A)

라. 불리 경험으로 인한 영향

생애과정의 불리 경험은 참여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음의 상처와 분노, 폭력을 세상의 원리로 체화하는 등의 내재화 양상이 있는가 하면, 비행행동이나 집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외현되기도 하였다. 단선성을 넘어 불리의 경험은 이들의 일상을 짓누르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즉, 가정과 학교를 비롯한 사회적 불리의 경험 속에서 이들은 속으로는 자신을 가치 없다고 비하하거나 비하되지 않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며 대응해 왔고,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행동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 마음의 상처와 분노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의 불리 경험이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상처로 인해 마음속 깊이 분노가 파리를 틀고 있었다. B는 앞서

제시하였듯, 부모의 폭력 목격, 학대 피해, 학교 내에서의 폭력 및 교사 폭력을 모두 겪었다. 어린 시절 자신의 폭력 피해 경험을 회상하였을 때의 첫 감정은 공포나 불안 등이 아니라 ‘역겨움’이었다. 그 역겨움이라는 감정은 자기 보호적 속성을 갖는 공포나 불안과는 결이 다르다. 공포와 불안은 외부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 혹은 도피(fight or flight)로 대응하는 자동적 반응이라면, ‘역겨움’은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을 향한다. 그는 ‘난 진짜 쓰레기’라고 여겼으며, 자신을 깎아내렸다고 하였다. 이는 공황장애로 청년기 이후 수년간 치료를 받았을 만큼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7세 때 육을 먹고 했을 때) 기분은 그게 엄청 역겨워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역겨움이었어요. 수치스러움 뭐 이런 거.... 아, 난 진짜 쓰레기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친구들이랑 생활할 때나 학교생활 했던 것도 생각해 보면 내 자아를 깎아내리고 시작했어요. (B)

K는 어머니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을 두고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정황은 이해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의문은 어떻게 자신을 제대로 양육해 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왜 자신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해를 넘어 자신이 누군가에게 안겨서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당시에 컸지만 충족되지 못함에 따른 결핍이 현재 남아 있다고 하였다.

부모님이 어떻게 자식을 낳았는데 버릴 수가 있나 싶기도 해요. 가능한가요? 자기 자식, 핏줄을 자기 배 아프게 낳았는데. 버리진 않았어도 안 키웠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중략)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엄마, 엄마가 아닌 아빠가 키웠으니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죠. 그래서 막 방황한 건 아니고 제 의지대로 한 거긴 한데, 그래도 사랑 많이 받고 싶죠. 엄마 품에도 안기고 싶고.... (중략) 자식들은 솔직히 엄마가 있어야 돼요, 아빠보다.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K)

I은 당시 부모로부터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던 경험 때문에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방어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예민함 때문에 무서운 성격이 되었다고 하였다. 알아보기 싫어하는 것, 즉 피해의식이 일상 전반에 파리를 틀고 있어서 언제든지 자신을 공격한다고 느껴지면 대응하려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하였다.

부모님이 잘 안 올라오시고 혼자서 들어왔으니까 엄청 자존심이 센 거예요. 절대 안 지는 거예요. 많이 싸우기도 하고 싸울 것도 아닌데도 혼자 그냥 예민한 거예요. 지기 싫다는.... 그래서 지금도 친구들 만나 보면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너 성격 진짜 무서웠다고.... (중략) 알아보기 싫고 무시당하는 거 같고... 약간 그런 피해의식이라 해야 되나? 피해당하는 거 같고.... (L)

2) 폭력을 세상의 원리로 체화함

앞서 살펴본 가정과 학교라는 사회환경 내의 폭력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사회가 폭력과 힘에 의해 좌우된다고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폭력이 세상의 원리라는 인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기에 최소한 폭력은 당연한 것이고 다들 폭력 피해를 겪는다고 생각하였다고 하였다. I의 경우가 그러하다. 아버지로부터의 폭력을 당시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다고 하였다.

보통 아들이랑 아빠랑 말싸움하다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아들이 아빠한테 개기는 거잖아요, 그거는. 싸웠다는 표현도 그렇고 그냥 혼났다는 표현이 맞는 거고 그러다가 맞는 것들이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었죠. (I)

B의 경험은 더욱 두드러졌다.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 피해를 당하였고,

자신 역시 때로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었던 그는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으며 당연히 아이들에게는 욕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학생이 평소 공포의 대상이었던 교사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후 그 교사가 더 이상 폭력을 학생들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며 그 교사 역시 폭력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였다고 하였다. 즉, 그의 경험은 이러하다.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을 당해 왔고, 자신이 성장하며 타인에게 폭력을 사용해 본 경험 그리고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폭력 사용 교사가 또 다른 폭력에 의해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하던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지켜보는 경험을 하면서 세상의 원리 그 자체가 폭력과 힘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바뀌더라고요. 그 사람이 막말을 막 했었어요. 막 “꺼져, 이 새끼들아.” 이런 것도 기억나고. 엄청 무서웠어요. 근데 그게 학대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B)

이는 E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할머니로부터 영유아기에 양육되다가 초등학교 시절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받게 되었다. 이전까지 역할 모델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고 시설에서 형들에게 폭력을 당하게 되었다. 폭력을 수시로 당하는 삶 속에서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할 기회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폭력을 체화한 삶을 살며 아동기를 보냈다고 한다. B와 달리 E는 적극적으로 폭력을 자신의 방어 수단으로 체화하여 활용하였다. 자신이 폭력 피해를 당했고, 자신을 지켰던 것이 폭력이었던 만큼, 자신 역시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폭력을 사용한 것이다. 그 폭력 사용이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당시에 생각했다고 한다. 즉, ‘정당한’ 폭

력이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폭력이 당시 시설 아동들에게 서로를 보호하는 강력한 네트워크의 원리로 작용하였다고 하였다.

동생들이 울면서 찾아와요. 누가 고아라고 놀린다. 그럼 그걸 못 참겠는 거예요. 수업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앞에 있는데도 가서 막 때렸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저를 끌고 가죠. 근데 저는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략) 놀렸다고 하면 뒤에서 기다렸어요, 수업 끝나고, (웃음) 하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교할 때 쫓아가서 패 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는 저희 시설 애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많이 때리는 만큼 형들이 계속 뒤를 다 봐줘요, 서로 다. 왜냐하면 다 맨날 놀림받고 다 그랬던 걸 아니까 그러니까 저도 많이 맞았으면서도 또 애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제가 막아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랬었던 거 같아요. (E)

E의 폭력 체화는 시설 내에서 일명 ‘줄 빠따’라는 것으로 상징되었다. 줄 빠따는 한 명이 여러 사람을 때릴 수 없을 때 한 명이 때리고 서로 전달해서 때리는 방법이었다. 그가 시설에서 고참 형이 되면서 이러한 악습을 없애고 싶었지만, 이미 그가 경험했던 아동기의 세상이 폭력에 의해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줄 빠따를 없애고 싶어 택한 방법은 폭력 대상을 따로 불러 단둘이서 썼던, 결국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었다.

그 줄 빠따라고 해서 줄 세워 놔를 때 형들이 때리고 방망이만 놓고 가면 다음 형이 때리고 그러는 게 있었거든요. 없애긴 해야 되는데 그 자유분방하고 말 안 듣는 애들을 훈계 없이는 힘들 거 같고,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저는 때려야 되면, 밥 먹을 때 기다렸다가 같이 밥 먹고 빨리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둘이 있는 공간에서 근데 좀 폭력적이긴 했어요, 확실히. 근데 둘이 있는 공간에서 확실히 훈계하고, 그리고 왜 맞는지도 설명해 주고 그렇게.... (E)

3) 비행행동

모든 참여자들이 비행행동을 보고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음주, 절도 등의 비행행동을 했다고 하였다. I는 부모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간섭이나 충고를 받을 기회가 없었고, 그러한 고삐 풀린 상황에서 밤새 게임을 하거나 친구 집에서 자며 음주를 하는 등의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당시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 역시 부모님이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비슷한 상황이었다.

게임을 했던 거 같아요, 쉬는 시간에.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아빠가 맨날 하니깐 가끔 가다 그랬는데 만약 친구들이랑 어울려 가지고 오면 새벽에 나가서 밤새워서 게임하다가 오고, 피시방들 중 몰래 숨어 들어가 가지고 밤새고 집 들어가기 싫은 날은 친구 집에서 막 자면서 술 마시고 (중략) 담배는 중1 때부터 시작했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원 끝나고 친구들이랑 막 지하도 같은 데 모여 가지고 다들 그 친구들도 좀 힘든 친구들이었거든요. 다 부모님들 이혼하거나 그런 애들.... (I)

E는 자신이 초등학생 때 폭력 피해를 당했지만, 또한 자신 역시 적극적인 폭력의 가해자가 되었던 경우인데, 중학생이 되면서 뒤를 봐주는 “소위 양아치” 친구들이 있었고, 그러한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는 등의 비행행동을 했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당시 친구들이 모였던 곳은 역시 부모의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집이었다.

형들이 계속 뒤에 봐주고 이러니까 입학하자마자 선배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는 존재였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같이 놀았던 소위 양아치 친구들, 많이 어울려 다니면서 술도 먹고 그랬었어요. (중략) 친구 집에서 조금 눈 붙이고, 같이 학교 가고 그랬어요. 개네 엄마 아빠가 새벽에 일을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집이 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 암흑의 무리들이 다 모이는 거고....(웃음) (E)

D는 15세부터 외할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무작정 가출하고 집으로 잡혀 온 후에는 다시 폭력이 반복되며 다시 가출하는 악순환 상태에 놓여 있었다. 돈 없이 거리 생활을 하다가 16세에 커피숍에 들어가 현금을 절도하였던 적도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다가 이제 열여섯 살에 도둑질을 했죠. 커피숍이 있는 데 커피숍 문을 따고 들어가서 거기 현금을 다 빼 왔는데, 얼마 안 되는, 7만 원 정도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훔쳐서 나와서 그게 CCTV에 찍혔죠. (D)

4)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함

아동기에 집이 자신에게 보호의 기능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의 공간이 됨에 따라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집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가출을 하는가 하면 취업을 빨리해서 독립을 계획하였고, 무리해서라도 집을 얻어 나온 경우도 있었다. D는 할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가출을 한 경험이 있다. N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집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냥 나갔죠. 그냥 나갔어요. 여름, 15살 때죠. 2014년, 14년이죠. 나오자마자 피시방에 갔어요. 처음 그 기억이.... (D)

그 고등학교 때까지 빨리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일부러 실업계를 갔었어요. 빠르면은 고등학교 2학년 늦어도 고등학교 3학년이면은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가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는 목표가 있었어 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랬었는데 집을 나오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 연기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N)

5) 일상생활을 짓누름

참여자들의 불리 경험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심리적 상처로 남게 되는가 하면, 폭력을 세상의 원리로 받아들이게 하고, 비행행동, 집에서 벗어나기 등으로 외현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분명한 선형적인 인과성도 존재하지만, 아동기의 불리 경험은 일상을 짓누르는 경험으로 작용하였다. F는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용돈으로 뭐 샀어?”라고 묻거나 “엄마가(아빠가) 데리러 왔어.”와 같은 일상적인 대화 앞에서 힘들다고 느꼈다고 한다. 즉, 일상적 대화 속에서 아버지의 부재 상황이나 경제적 빈곤이 자신의 삶을 짓누른 것이다. G 역시 끊임없이 돈 문제로 일상의 제약을 느껴야 하는 것이 힘들었고 지금도 돈에 대하여 “그게 좀”이라고 하는, 결국 돈에 대한 압박을 상시로 느껴야 하는 부담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J 역시 친구 관계에서 놀이동산에 놀러 가자고 할 때 자신의 상황을 친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우려가 일상을 가로막았다고 하였다.

다 같이 못 살면 이런 느낌도 안 들 텐데, 저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용돈으로 뭐 샀어? 이렇게 하거나 엄마가 혹은 아빠가 데리러 왔어 하든가..... 이런 사소한 생활에 있어서 저는 티는 안 냈지만 그런 것들이 힘들더라고요. (F)

생활비 소액 대출이 있다고 들었는데, 차를 못 타고 살지는 않았는데 그런 생활을 유지하려면 대출을 좀 받거나 가족들한테 돈을 빌리거나 그랬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사실 그래서 약간 돈에 대한 그게 좀 있어요. (울음) (G)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이 없는데도 “네가 내 줘. 나중에 내 줄게.” 이렇게 당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돈이 없는 거를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도 놀이동산 놀러 가자고 하는데 놀이동산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갈

돈이 없었기도 했는데 친구들이 끌고 가 갖고 내 주고, 뭐 그런 경험도 있었고, 많이 소극적이었던 거 같아요. (J)

2. 대처의 자원

조사 참여자들에게 제공되었던 대처의 자원을 분석한 결과, 공식적 지지체계, 비공식적 지지체계, 대처자원으로서 자신,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지지체제로 범주화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4-2-3>과 같다. 대처의 자원에는 사회복지기관, 학교 등의 공식적 지지체계, 이웃·친구·종교기관·민간 기관 등의 비공식적 지지체계, 긍정적인 힘을 지닌 자신 등 다양한 수준의 자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이러한 대처의 자원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대처자원의 수준에 상관없이 자원이 제대로 제공된 경우에는 과거의 불리 경험과 힘겨운 삶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불리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힘든 삶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표 4-2-3> 대처의 자원

소주제	개념
공식적 지지체계	복지서비스의 긍정적 지원
	학교 선생님의 지원
비공식적 지지체계	가족의 강인성과 긍정적 관계
	이웃과 친구의 지원
	민간 기관의 지원
대처자원으로서의 자신	끝까지 버티며 생존해 내기
	긍정적인 성취 경험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지지체계	알지 못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지원받지 못함
	지원을 받았지만 부정적인 경험이 됨

가. 공식적 지지체계

공식적 지지체계와 관련하여 (1) 복지서비스의 긍정적 지원, (2) 학교 선생님의 지원 등 2개 개념이 확인되었다. 공식적인 지지체계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나 기관 사업을 통한 개입과, 학교 선생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생계급여, 교육비 지원, 주거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나 학교 담임선생님들의 심리적 지원 등도 제공된 것을 알 수 있다.

1) 복지서비스의 긍정적 지원

아동기에 빈곤 경험과 가정에서의 불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공식적인 대처자원으로 사회복지제도와 기관들의 개입이 제공되었다. 기초생활수급권을 통한 급여지원과 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관 등 서비스 지원, 교육비 지원이나 장학금 형태의 경제적 지원, 지역 내 사회복지나 교육 관련 기관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주거지원, 심리지원, 법률지원 등 다각적 측면의 대처자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빈곤 경험을 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았으며, 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반찬배달 등의 서비스를 받거나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N은 아버지의 폭력과 음주 문제로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4살 때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이때 가정위탁 형태로 기초생활수급권을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급여와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았고, 지역 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 L은 아버지가 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가 경제활동

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통해 병원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K는 아동기에 동 주민센터에서 식료품 지원이나 반찬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학비랑 이런 거 다 지원받았었고, 중학생 때까지는 동네에 있는 복지관 통해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었어요. 거기서 좀 많이 알려 주셔 가지고.... (N)

제가 16살 때 아버지가 신장장애 오시면서 그때 바로 기초수급자로 이렇게 되셨고, 그렇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별이는 없었는데... 국가지원으로 아버지 병원이나 의료비가 어느 정도는 다 충당이 됐던 거 같아요. 의료급여로 다 됐고.... (L)

어렸을 때 동사무소 같은 데서 반찬 주는 거 있잖아요. 쌀 좀 주고 그랬어요. 저희 집 먹을 거나 좀 줬던 거 같아요. 라면 두 달에 한 번씩인가.... (K)

기초생활수급권이 있는 가정과 수급권은 없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 교육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비를 내야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교육비 지원이나 장학금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았다. O와 J는 수급권 가정은 아니었지만 저소득 가정으로 고등학교에서 교육비 지원을 받았다. J는 부모가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소득 기준에서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도 했지만, 부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교육비 지원뿐 아니라 저소득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우유 급식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P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학여행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기도 하였는데, 그때 장학금 형태의 지원으로 학교생활과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크게 돈도 안 들었고 지원도 받았었어요. 선생님들이 “야 저 소득 애들 이거 신청해라.” “교육비 지원 신청해라.” 해서 했더니 돼서.... (O)

고등학교 때, 등록금 지원에 교육비 지원, 그거를 해서... 증빙서류까지 같이 해서 교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웃음) 교육비는 좀 지원을 받았었고 (중략) 고등학교에서는 어려운 청소년들은 (우유를) 섭취해야 된다 해서 집에 우유가 오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를 선생님께서 대신 신청해 주셔서 가지고... 이런 거 도움을 받은 경험이.... (J)

(학교에 내야 하는 돈을) 제때 못 내거나 그래서... 학교에서 하도 안 내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장학금 비슷한 걸로 뭔가를 지원받았었고. 수학여행비를 학교에서 내서 간다거나 뭐 이랬었던 거 같아요. (P)

일부 참여자들은 지역 내 사회복지나 교육 관련 기관을 통해 교육지원을 제공받았다.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교육을 받거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많은 환경이었지만 사회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 꿈드림지원센터 등을 통해 학원비를 지원받거나 검정고시 지원 프로그램, 논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빈곤으로 인한 교육의 불리 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N은 사회복지관에서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을 보충할 수 있었고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C는 지역 내 기관의 ‘두드림’사업을 통해 학원비와 교재비 등의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았다. J는 지역 내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엄마의 정보력과 의지로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특히 논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글쓰기 능력을 향상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스스로 참여하는 적극성과 자발성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았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만 하며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K는 꿈드림지원센터에서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증식 지원을 받고 있다. 센터의 지원으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지 않아도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밥까지 먹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복지관에) 컴퓨터 교육이나 그런 게 많이 돼 있었어요. 거기서 교육받고 도서관도 있었고, 방과 후 활동해 가지고 돌봄 필요한 친구들한테 공부 가르쳐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리고 문제집 같은 것도 많이 지원해 주셨고... 교육적인 부분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거 같아요. (N)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저희가 수급자니까 고등학교 때는 두드림? 이런 사업이 있어서 참고서나 학원비 같은 거 비용을 지원받아서 학교 다녔어요. (C)

초등학교 때 주민센터에 가면은 그런 프로그램들 있어요. 거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돈 내고 하는데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 많이 저렴하게 해서... 초등학교 대상 수학공부를 거의 어릴 때 겨울방학에 내내 그걸 했던 거 같아요. (중략)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 가 가지고 과학도 배웠었고 (웃음) 그것도 엄마가 찾아서. 스피치 수업도 받고, 논술 수업도 받고 학원을 안 다녔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알고 이용을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글을 쓰는 거에 좀 자신감을 가지니까 글 쓰는 걸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계속 써 버릇하다 보니까 지금 대학에서 글쓰기 수업 자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많이 도움을 받고 좀 연결이...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었던 거 같아요. (J)

(꿈드림지원센터에서) 멘토링으로 검정고시를 지원해 주는 (중략) 검정고시도 학원 다니면서 하면 돈도 꽤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밥도 이렇게 주잖아요. 그것도 되게 감사하죠. (K)

참여자들은 교육지원뿐 아니라 불안정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빈곤 문제는 주거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LH 등 공식적인 지지체계 안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지원을 통해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다. L은 주거비와 생활비, 학비를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LH에서 제공하는 청년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K는 가정의 급작스러운 문제로 파산 상태에 이르러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LH 전세자금 지원을 받게 되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D는 거리를 방황하다 청소년쉼터에서 지내게 되면서 따뜻한 곳에서 눈치 보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것에 감격하게 되었다.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마련된 것이 제일 큰 도움이었다.

그래서 집, 지금 지내는 월세 같은 거나, 지금 저는 그 (청년)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청년에게 한 20만 원 정도.... (L)

집이 휘청하면서 파산하니까 계속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LH 받아 가지고. 집이 전세인데 아빠가 나라에서 돈을 해 줘 가지고 한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이미 저희 집은 보증금 낼 돈도 없어 가지고 어딘가 있겠죠? (중략) 어디 저 하수구 같은 데 있어야 돼요. 아니면 서울역 같은 데, 아니면 피시방이나 카페 같은 데 생활해야죠. (K)

OO 청소년쉼터였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땐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좋았어요. 계속 밖에서 춥게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좀 따뜻한데 들어 와서 편하게 눈치 안 보고 잘 수 있겠다 해서, 씻고 나서 누웠더니 엄청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에는 그냥 잠만 잤어요. (중략) 밥도 제때제때 주고, 주거공간이 있는 게 제일 좋았죠. (D)

참여자들은 사회복지관이나 교육기관 등 지역 내 기관을 이용하면서 심리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였으며, 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N은 사회복지관에서 상담프로그램 등을 통해 심리지원을 제공받았다. 또한 기관 선생님들이 본인의 가정환경에 대해 잘 이해하고 편견 없이 대해 주고 유대관계를 형성해 주어서 자

격지심이나 사회적 편견에 대한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J는 지역 내 기관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무력감과 불안감 등을 극복하고 성취감을 경험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심리치료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저희를 많이 넣어 주셨고, 복지관 선생님들이랑 유대관계가 많았어요. (중략) 저희 가정환경이나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셨는데, 근데 저희는 약간 그런 편견 같은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컸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저희를 봐 줬던 거 같아요. 어린 나이인데도 그게 느껴져서 빨리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아직 낯을 많이 가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랑 친해지는데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닌 거 같아요. 아마 선생님들이나 그런 편견 없이 저희를 봐 준 사람들의 그거 아니었나.... (N)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도록 연결이 돼 가지고, 짧은 방학 속에서 그걸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그거를 좀 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성취감이나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많이 배웠다고보다는 제가 그래도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갈 수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많이.... (J)

또한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이나 법률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O는 국가장학금대출에서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 대출까지 받았는데 거주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 이자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H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지원으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원 덕분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생활비 대출은) 1학년 때 한 번 받았어요, 50만 원. 아버지한테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니까 한번 대출받아서 네가 그거로 잘 써라... 제가 갚아야 되는

데, OO시에서 청년 이자지원이 있어서 그거 신청해서 지금 이자도 지금 안 내고 있고.... (O)

초등학교 때 모자원에 살다가 중간에 한 번 이사를 갔는데... 이때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어려웠는데 국가에서 도움을 줘서 그 돈을 다 찾을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어렵게 생활했을 거 같아요. 국가에서 그런 무료 지원을 해 주고.... (H)

2) 학교 선생님의 지원

공식적 지지체계 중에서 참여자들 아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자원은 학교 선생님이었다. 학교 선생님들의 관심과 신뢰, 좋은 관계 형성, 자원 연계가 중요한 대처자원이 되었다. 먼저 선생님들의 관심이 참여자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마음 문을 연 참여자들은 선생님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생님과 의 관계 형성은 아동기에 가장 중요한 대처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N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고 부모의 부재나 빈곤 등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잘 다루어 주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B는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 진학상담 할 때에 관심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제안해 주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 선생님에게 이해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하였다. J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본인의 상황을 다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선생님에게 마음 문을 더 열 수 있었다고 하였다. I는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하는 상황에서도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자신의 암 치료를 미루면서까지 믿어 주고 격려해 주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선생님의 신뢰를 배신할 수 없어서 문제행동을 중단 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때는 제가 선생님들이랑 관계가 엄청 좋았었어요. 제일 기억나는 선생님이 4학년 때 선생님이었는데 저희한테 관심이 되게 많으셨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다루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학교생활을 되게 재미있게 했었어요. (N)

그 선생님은 정말 나를 생각해서 1대1 면담도 따로 밖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형처럼 대해 줬어요. (중략) 대학교 진학 상담을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교를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관찰을 하셨나 봐요. 도서관에서 제가 OO학 책을 가져왔었어요. 그걸 보는 걸 보셨었는데, 그걸 보자마자 상담을 하실 때 OO대학교에 OO학과가 있는데 그쪽에 가면 지금 능력이 없어도, 가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붙여 주셨었던 거요. 저를 이해를 해 주셨어요. (B)

고2 때 제가 새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제 상황을 알게 되어서 가지고 “이거 신청해 볼래?”, “저거 신청해 볼래?” 해서 계속 저한테 관심을 주셨어 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더 마음을 열었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를 좀 다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 그 인식이 느껴지니까 좀 더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거 같아요. (J)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되게 좋으셨거든요. 제가 난리를 치고 하는데도 끝까지 되게 믿어 주시고.... 그 쌤이 암이셨어요. 그래서 교편을 놓으셨어야 됐는데 중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 저 걱정된다고 담임 맡아주신다고 그래서 그때 친해져 가지고 그만두시기 전까지 저 도와주시면서 옆에서 격려해 주셔 가지고 그때 좀 정신 차려 가지고 (중략) 뭔가 믿어 주고 있다는 느낌 많이 받아 가지고, 어느 순간 너는 바뀔 거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반장도 많이 하고... 방송반도 해 보고 수학 공부도 해 보고... 수업시간에 떠들지도 않고... 뭔가 믿어 줬는데 내가 떠들고 난리 치고 하면 쌤을 배신하는 느낌인 거 같았고.... (I)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선생님들이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학교 내외부의 경제적 자원을 연계해 주기도 하였다. 혹은 선생님 개인 돈을 동원하여 참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도 하였다. 참여자

들은 그러한 지원과 자원 연계 노력을 해 주는 선생님들을 든든한 지지체
계로 인식하였으며, 부정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거나 긍정
적인 행동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J는 담임선생님의 관심과 노력으로
교육비 지원을 학교장 추천으로 받을 수 있었으며, 교내 장학금을 받는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O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민간 장학
재단의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연결해 주었으며 신청서를 수차례 검토해
주는 도움을 주어 3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기도 하였다. A는 중학교 3학
년 때 선생님의 연결로 민간 000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I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비행행동을 저질렀을 때 담임선생님이 직
접 찾아와 본인을 변호해 주며 개인 돈으로 변상을 해 주었다고 하였다.
선생님은 참여자를 믿어 주고 비행행동을 다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
력해 주었다. I은 선생님이 인간적으로 다가와 주었는데 선배들에게 교복
을 물려 입는데 사이즈가 맞는 하복이 없어서 여름에 동복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을 보고 데리고 가서 사비로 교복 바지를 사 주셨다고 하였다.

고2 때 공감해 주시는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교육비 때문에 저의 상황을
알게 되서 가지고 그 선생님이 직접 교장선생님한테 올려 주서 가지고 (중
략) 은퇴하신 선생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100만 원 정도를 장학금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저를 추천해 주서 가지고 제가 받았었던 그런
도움 경험이 있어요. (J)

000장학재단이라고 글 써서 보내면 300만 원인가 지원을 해 주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너 이거 해라. 그래서 저 글 10번 정도 빠
꾸 먹었어요. 다시 써 와라, 다시 써 와라 해서 한 10번째에 쓰니까 이걸로
내라 해서 이걸로 보내서 했는데 돼 가지고.... (O)

000재단은 선생님께서 연결을... 저한테는 작성만 하게 하셨고, 그냥 선
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 가지고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만 도움을 받았어요.
(A)

불량식품 같은 것도 좀 훔치고 편의점에서도 훔치고 그런 것도 했었어요. 나중에 걸려 가지고 (중략) 아저씨께서 담임선생님 일단 모셔 오라 해 가지고... 담임선생님 나오셔서 사과해 주시고 일 뒀어 달라, 애가 뭐 이럴 애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 꺼내서 가지고 갚아 주시고 갔어요. 부모님께 따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진짜 하지 말자고 약속 하라 하시고.... (I)

학교 선생님은 좀 인간적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응원 같은 것도 많이 해 주고, 교복 같은 것도 저희가 물려 입고 이렇게 하는데, 맞는 게 없으면 동복을 하복처럼 입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지가 없으면 “없냐.” 물어보고 데리고 가서 사 주시고 이렇게 했던 체육 선생님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더 ‘나쁜 짓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올바른 모습을 보여 줘야겠다.’ 생각이 더 들었던 거 같고.... (I)

나. 비공식적 지지체계

비공식적 지지체계로는 (1) 가족의 강인성과 긍정적 관계, (2) 이웃과 친구의 지원, (3) 민간 기관의 지원 등의 3개 개념이 확인되었다. 비공식적인 지지체계에서는 아동기에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지원,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서 공감과 지지를 제공해 주었던 이웃과 친구,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해 주었던 민간 교육 기관이나 민간 재단, 종교기관 등이 중요한 지지체계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가족의 강인성과 긍정적 관계

참여자들에게 비공식적 영역에서 가장 큰 지지체계가 돼 준 것은 가족이었다. 부모는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상황과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자녀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했으며 부모가 일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형이 든든하게 버텨 주었다. J의 아버지는 사업실패로 하던 일을 다 못 하게 되고 부채로 힘든 상황에서 일용직으로 공사장에서 일하거나 청소일을 하는 등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닦치는 대로 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어머니도 자궁에 큰 혹이 생겨 자궁을 적출하는 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 직전까지 일을 계속하셨고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바로 다시 일을 하시는 강인함을 가지고 계셨다. L은 아버지가 신장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어머니도 아버지 병간호를 하느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기 힘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큰 형이 학생군사교육단(ROTC)에 지원해 장학금으로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며 졸업 후 직업군인으로 일을 해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었다고 하였다. 가족을 위한 부모님과 형의 강인성과 희생은 참여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큰 자원이 되었다.

아빠가 사업에 실패하신 직후에 다리 공사인가 그런 데서도 일하시기도 하셨고. 또 그 건물 위에 정화조 청소하는 거 알바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드셨겠구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좀 가정 속에 끊이지 않게끔 노력을... 감사한 부분이죠. (J)

엄마는 고1 때인가 큰 수술을 하셨어요. 자궁에 혹이 엄청 크게 생기셔서 가지고. 그래서 유치원에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자궁적출을 하시는데. 근데 그 전에 혹이 나 있을 때부터 계속 일을 하셨었어요. 좀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했고.... (J)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아지실 때쯤이었거든요. 큰형님이 대학교 2학년 때인가 ROTC를 지원을 하고 장학금 받고 하면서 그런 돈으로 집에 좀 많이 보탬을 줬던 거 같아요. 형이 결국 대학 졸업을 하고 군대 들어가면서 가장 역할을 한 7년 정도 하고.... (L)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강인성뿐 아니라 공감과 친밀한 관계 형성 등의 심리적 지원이 중요한 대처자원으로 작용하였다. 부모님과 형으로부터 사랑과 공감을 받는 경험을 함으로써 아동기의 여러 불리의 경험 속에서도 나빠지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힘을 키워갈 수 있었다. P는 아버지가 음주와 도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린 시절 주된 양육자가 아버지였다고 기억했다. 어렸을 때 항상 아버지와 함께 놀고 함께 책을 읽었으며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L은 초등학교 때부터 해 오던 선수 생활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만두겠다는 결정을 할 때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 공감해 주시면서 그만 힘들었으면 좋겠다고 반응해 주셔서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결단을 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공감으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또한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어렵게 학부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형이 학생은 집안 형편에 대한 걱정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된다고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었다. 형이 심리적으로 버팀목이 돼 주어서 꿈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양육받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애정이 있는 관계니까... 사실 엄마가 되게 돌봄에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더 친밀도가 높았던 거 같아요.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맨날 아버지랑 놀았던 기억, 산에 가거나 뭐 한강에 가서 뭘 하거나 이랬었던 기억은 거의 아버지랑 했었던 기억, 아버지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같이 옆에서 책 읽고.... (P)

(힘들 때) 어머니가 “네가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했고, 힘들었던 거 안다. 니 힘든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을 알고 얘기해 주시는 순간 내가 집에 최대한 보탬이 되게 할 거고 늘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L)

큰형이 경제적 활동을 하니까 큰형이 그랬어요. “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니 나이에는...” 내가 근데 대학원 가고 하면 집에도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고, 너무 집에다가 죄송하고 우리 집이 어려운 것도 아는데.... “네가 생각은 깊어서 좋은데, 너는 학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에서 지원을 받아도 된다. 그래도 될 나이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래서 네가 공부하고 싶으면 더 하고 대학원을 가고 싶으면 대학원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렇게 할 수 있었죠. (L)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한 참여자들은 조부모님이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 해 주시며 사랑과 돌봄을 제공해 주셔서 부모님의 부재를 크게 느끼지 못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O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다시 보지 못했는데, 어머니의 부재로 힘들었던 기억이 없을 만큼 할머니가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 주셨고 할머니와 좋은 관계로 잘 지냈다고 하였다. N은 본인에게는 할아버지가 부모님이었다고 하였다.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족함 없이 키우시려고 애쓰셨고 사랑을 많이 부어 주셨다고 하였다.

(엄마가 없어서 힘들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지?) 네, 아예 없었어요. 정말 그런 건 이상할 정도로 없었는데 아마 할머니 덕이 크지 않았나... 할머니께서 저하고 제 누나하고 정말 잘 지냈어요. (O)

저희한테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셨어요. 너무 잘해 주셔서... 저희도 할아버지를 엄청 따르고 좋아했었어요. (중략) 저는 할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이 부모님한테 받는 사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꼬박꼬박 받으시는 나라에서 나오는 정부 지원금을 저희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하시려고 몰래몰래 모으던 통장이 있었거든요. 저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게 느껴지게.... (N)

2) 이웃과 친구의 지원

가족의 지원이 중요한 대처자원이지만 가족 안에 지지체계가 부족한 경우 이웃과 친구가 중요한 대처자원으로 작용하였다.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엄마 친구 가족이 함께 생활하도록 해 주고, 보호자의 폭력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경우 친구의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었다. K는 부모가 이혼하고 엄마와 지내다가 엄마가 적절하게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엄마 친구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엄마 친구 가족이 한 가족처럼 대해 주었으며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엄마 친구에게도 자녀가 있었지만 엄마처럼 대해 주었으며, 모든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다고 하였다. I는 부모의 싸움을 피해서 집을 나가고 싶을 때 친구 부모님이 편하게 와서 자도록 배려해 주었으며, 영화 관람이나 외식, 가족여행 등을 함께 하도록 해 주었는데 가족과도 해 보지 못한 경험을 친구 가족과 해 보는 지원을 받았다. N도 큰아버지의 술주정과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갔을 때 친구 집에 피신하였으며, 친구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잔소리를 해 주는 등 이웃의 도움을 받았다.

이때가 제일 행복했던 거 같아요, 유년기 중에. 그때 이모가 엄마처럼 해 주시기도 했고, 이모부 있고 동생도 있어요. 저보다 1살 밑이요. 그때는 엄청 되게 행복했어요. (중략) 그런 피가 안 쉬였다 이런 생각도 들게도 안 했어요. 진짜 자식같이 해 가지고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K)

나 오늘 엄마, 아빠 싸워 가지고 좀 분위기 그런데 너희 집 가서 자도 되냐 하면은 흔쾌히 그쪽 부모님까지 사정을 알고 와서 자라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족끼리 영화를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뮤지컬도 데려가 주시고 영화도 보여 주시고, 가족여행에 저를 끼워서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꼭 같이 불러 가지고 외식 가시기도 하고 그

게 되게 많은 거 같아요. (I)

(어디로 피신하셨어요?) 친구 집. 바로 옆 동네 비슷한 처지의 친구가... 거기도 어머님은 안 계시고 아버님만 계시는데, 아버님도 사고 때문에 다리를 한쪽 잃어서 가지고 임대아파트에 같이 들어와서 사는... (그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큰아버지한테 잔소리도 좀 해 주시고.... (N)

친구 가족 등 이웃의 도움과 더불어 친구들과의 관계가 참여자들에게 큰 지지체제로 작용하였다. I는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터놓고 이야기하며 울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며 위안을 받기도 하였다. M은 부모님에게 정서적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님보다 친구들을 더 의지하며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L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과 원하는 진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같은 과 선배의 조언과 격려로 새롭게 힘을 낼 수 있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현재의 삶에서 더 많은 노력과 인내를 할 수 있게 되는 도움을 받았다. 친구와 선배의 지원은 이야기를 들어 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 주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공감해 주는 지원이다. 이는 물질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며 그 존재만으로도 중요한 지지체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친구들이랑) 얘기는 터놓고 많이 했는데요, 술 마시면서 울기도 하고.... 근데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이기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 한 3~4명 있었던 거 같은데 그 친구들한테는 있는 거 그냥 다 말하고.... (I)

(부모님께 기대기 어려워서) 친구한테 더 의지를 했던 거 같아요. 집 안에 있는 것보다 친구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했고. 외박도 많이 했고.... (M)

대학교 4학년 때, 대학원 연구실에 박사를 졸업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들 수도 있고 다 그런 건데... 배가 고프다

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된다. 좀 참을 수도 있고 버티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 주셨던.... 그래서 저를 좀 이렇게 인내를 갖게 하면서 누르고 있었던 거 같아요. (L)

3) 민간 기관의 지원

참여자들은 가족과 이웃, 친구들의 지원 이외에 지역 내 존재하는 다양한 민간 기관들을 통해 어려울 때 도움을 제공받았다. 이들은 종교기관, 민간 교육기관이나 장학재단 등의 민간 기관들을 이용하며 처해 있는 환경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종교기관이 있었으며, 종교기관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과 관계에 대한 지원 등을 받았다. J는 3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종교기관을 다니기 시작했으며 삶의 대부분의 기억이 종교활동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였다. 적극적인 종교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채워 주기 힘든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종교기관 안에서 받을 수 있었다. 장학금 지원이나 여행경비 지원 등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 K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방황하던 중 종교기관을 다니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지원센터도 알게 되었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면서 미래에 대해 꿈을 꾸고 규칙적인 생활로 삶이 안정되는 도움을 받았다. 인생의 승부처라고 표현할 만큼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가 3살 때부터 종교기관을 가셨다고 하니 평생의 기억의 대부분이 종교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개인적으로 가족여행을 가 본 적은 거의 없는데 종교기관 통해서 가고 해서, 가정에서 채워 주지 못했던 것을 채우는 곳이기도 했고. 종교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고, 고3 때는 장학금을 주시기도 했었고, 또 어디를 가야 되는 일정인데 가정형편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다른 분께서 도와주시기도 많이 하셨었고.... (J)

(종교기관 다니는 거는 어떤지?) 엄청 도움이 돼요. 저는 제 인생에 승부처라 생각을 해 가지고, 종교기관 안 나갔으면 여기도 안 왔고 또 배달하거나 일하지 않을까요? 가게에서. 일단은 되게 좋은 사람들 만났고.... (K)

또한 민간 장학재단의 지원으로 자립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거나 민간 교육기관의 지원으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얻고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N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추천으로 민간 장학재단의 장학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지원금을 지원받아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에 서울로 올라와 자립하는데 필요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M은 지역에서 운영되는 민간 교육기관인 000 배움터를 이용하게 되면서 방과 후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배움터 선생님,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소속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셔서 가정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던 M은 민간기관의 지원을 통해 교육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 지지체계를 확보할 수 있었다.

00장학금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택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댔었고. 민간에서 하는. 제가 학교 졸업하면서 자립수당 때문에 가정위탁센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이 공고가 올라와 가지고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N)

중3 때 000 배움터, 되게 좋았어요. 그때 '아, 이게 진짜 보호받는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느 무리 안에 속해 있는 느낌이고, 학교에서도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선생님들도 좋고.... (M)

다. 대처자원으로서의 자신

대처자원으로서 자신과 관련하여 (1) 끝까지 버티며 생존해 내기, (2) 긍정적인 성취 경험 등의 2개 개념이 확인되었다. 공식적 지지체계와 비 공식적인 지지체계 이외에도 자기 자신이 중요한 대처자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환경과 불리의 경험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인내심과 의지가 있었으며, 노력 끝에서 맛보는 성취의 경험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1) 끝까지 버티며 생존해 내기

참여자들은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체계를 대처자원으로 활용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였지만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 불리의 상황 속에서도 버티며 생존하였으며 성공의 경험들을 통해 한층 성장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절제력과 절약정신, 긍정적인 생각과 의지, 책임감 등을 다지며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버텨 내었다. L은 중학교 때 가정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후로는 좋아하던 게임을 하지 않았으며, 피시방을 가거나 놀러 가는 것을 하지 않았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려 나가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시기였지만 마음을 다잡고 절제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버텨냈다. C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식사비를 아껴 용돈 중 일부를 저축하고 세뱃돈 받은 것도 모두 저축하였으며,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쓰면서 생활하였다. 짠순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아끼고 절제하는 것을 생활화하면서 잘 버텨 내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후로는 피시방을 안 갔어요. 게임을 안 했어요. 어딜 잘 놀러 다니질 않고, 나가면 돈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든,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 시간에 좀 더 노력을 해서 내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용돈을 한 3만 원씩 받으면은 그걸 좀 잘 계산해서 쓰고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절제하고 지내기는 했죠. (L)

용돈을 고등학교 때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한 달에 5만 원밖에 없어도 기숙사에서 토요일엔 밥이 나오고 일요일에는 점심은 기숙사에 컵밥 사다 놓고 먹고 하니깐... 그래서 5만 원에서 한 반씩 쪼개서 넣거나 어떤 달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만 원만 넣고, 세뱃돈을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거 넣고... 한 55만 원 모아 놓은 거 조금씩 쓰고... 원래 약간 짠순이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어서 원래 평소에 좀 아껴 쓰는 스타일이라서.... (C)

참여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절제하고 인내하며 버텨 내기도 하였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책임감으로 강해지며 버텨 내기도 하였다. E는 아동생활시설에서 성장하면서 외로움과 폭력 피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어머니를 만나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동생과 함께 생활시설에서 지내면서 철없는 동생을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버텨 내기도 하였다. H는 첫째로서 자녀를 혼자 키우시는 어머니를 위해 어려움 속에서 약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덮는 등 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고생을 알기에 더 인내하며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런 힘들로 버텨 낼 수 있었다.

엄마는 어디 있지? 이런 생각 많이 했고, 학원 갔다 돌아올 때가 밤이잖아요. 북두칠성이 가장 밝은 별인데 그게 엄마별이라고 생각했어요. (중략)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는데... 20대 때까지도 끝까지 내가 엄마를 보고야 말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E)

나는 내 동생까지 케어를 해야 될 텐데 나중에. 제가 가장인 거잖아요. 나중에 커서는 제가 가장이 될 거고, 동생이 한 살 차이거든요. 근데 동생이 진짜 철이 없어요. 이 철없는 동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는.... (E)

약간 좀 텁텁해진 거 같아요. 제가 첫째거든요. 첫째고 엄마 혼자 키우니까 좀 강해졌던 거... 근데 이때는 (감정을) 그냥 덮었던 거 같아요. (H)

2) 긍정적인 성취 경험

아동기의 불리 경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절제하고 억누르며 버티는 모습이 있었다면 더불어 도전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성취 경험이 긍정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대처자원이 되기도 하였다. J는 지역 안에서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함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지게 되었다. I는 평일에는 사회복지무원으로 일하고 주말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호텔 뷔페에서 홀서빙을 하는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면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어서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다고 하였다. L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운동선수 생활을 하다가 경제적 이유로 운동을 그만두게 된 후에 교직 이수를 목표로 공부를 시작하였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 성적도 잘 나오고 교직이수도 해내는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었고 향후 진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도전하는 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M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사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지만 혼자 노력한 결과 원하던 미술 분야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오히려 넉넉하지 못한 환경이었지만 해냈다는 뿌듯함을 가질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이런 성취감과 자신감은 이후 삶의 도전에서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고, 모르는 친구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고 하면서 좀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 제 아이디어가 친구들하고 나눈 아이디어가 바로 이게 결과물로 산출되는 거를 보면서 ‘아, 내가 뭐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거기서 성취감을 얻었던 그런 활동.... (웃음) (J)

주말에 쉬어 봤자 하루 종일 게임만 할 거 같기도 하고. 사람이 돈이 있어야 여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루 열심히 일하면 돈은 나오니까 그걸로 빚 갚고 나면 뿌듯하기도 하고 나름 보람은 있는 거 같아요. (I)

그때는 제가 하려고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를 다 봤던 거 같아요. 교직 이수, 성적, 생각한 대로 됐던 거 같아요. (L)

뿌듯한 거 같아요.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웃음) 대학교까지 왔구나. 그리고 또 남들보다는 좀 환경이 넉넉지 못한 곳에서 왔다는 거에 저 자체로도 되게 뿌듯한 거 같아요. 대견스럽기도 하고.... (M)

라.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지지체계

앞서 참여자들이 공식적인 지지체계와 비공식적인 지지체계를 통해 지원을 받거나 혹은 본인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모든 참여자들이 다양한 대처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대처자원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도움을 요청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혹은 지원을 받았지만 그 경험이 부정적이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지지체계와 관련하여 (1) 알지 못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음, (2)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지원받지 못함, (3) 지원을 받았지만 부정적인 경험이 됨 등의 3개 개념이 확인되었다.

1) 알지 못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음

참여자들은 아동기에 부모의 부부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을 당하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여러 참여자들이 도움

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경찰이나 사회복지기관, 학교 등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I와 P는 지역사회 안에 지지체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가족의 생사와 안전이 달린 심각한 폭력 상황에서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못했고 아무런 도움도 제공받지 못했다. P는 당시 가족이 폭력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으며 이를 벗어나야 한다거나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가정폭력 관련해서 도움 청한 거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없었던 거 같아요. (경찰서나 복지관이나) 없었어요. 그때는 어리다 보니까 복지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몰랐고, 가정폭력은 112나 신고하는 번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전혀 못 했던 거 같아요. (누나랑) 둘 다 그런 거 잘 모르다 보니까.... (I)

(사회복지 서비스는) 없었던 거 같아요, 전혀. 요청을 하거나 이랬었던 적이 없었을 테니까. 엄마도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엄마가 폭력을 당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한 게 있으셨는지?) 없었던 거 같아요. 전혀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안 했었던 거예요. (P)

또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N은 가정위탁보호 아동으로 성장하였지만 보호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였다.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고,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B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내에 동 주민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K는 부모님에게 폭력을 당하였으며, 비행행동을 하며 적응적이지 못한 상태에 있었지만 학교에서도 지역에서 도움 받지 못했는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고,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O도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 다시 이혼하는 과정에서 심

리적으로 위축되고 차별을 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있는 것을 알긴 했지만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성장 과정에서 신체적 폭력, 부모의 이혼, 심리적 상처 등의 불리를 경험한 아동들은 우리 사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함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으며 결국 오롯이 홀로 담당하고 견뎌야 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동생이 자립지원금을 먼저 받았거든요. 동생이 연락이 왔다고 해서 저도 이제 그런 게 있는지 알았었고, 그 전에는 저희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고... 지금 보니까 본인 5만 원, 정부 5만 원 이렇게 해서 저축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지를 잘 몰라 가지고 거의 못 했었어요. (N)

(지역에서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것은) 있는지도 몰랐고, 전혀 몰랐어요. 없었어요. (도움을 요청한 적은?) 아니요, 없었어요. (B)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없어요. 그 선생님들에 대한 기억은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온 사람은 없고, (지역 안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나) 없어요. 지역도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찾아보지는 않고, 알려 주지도 않았고.... (K)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은) 아예 없었어요. 저는 복지관 위치만 알고 복지관이 무슨 일 하는지는 몰랐어요. (학교에서 상담이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사회복지라는 말 자체를 아예 적용해 본 적이 없어요. (O)

2)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지원받지 못함

일부 참여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디다가 힘에 부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학교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어렵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I는 부모님의 싸움이 심각하며 그로 인해 힘들다고 담임선생님에게 이야기했지만, 선생님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반응을 보여 주었다고 했다. B는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해 보았지만 선생님들은 제대로 해결해 주기보다는 묵인하고 넘어가려고 했다고 하였다.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무력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E는 아동생활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형들에게 폭력 피해를 많이 당하는 상황에서 시설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선생님들은 개입하는 것이 귀찮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묵인하고 방치하였으며 그래서 더 심한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D는 할아버지의 폭력을 매일 견디다가 이모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그냥 참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폭력 등의 어려움을 견디고 버티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학교에서도, 기관에서도, 가족에서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어려움은 계속되었다.

4학년 때 담임선생님한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거 같은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너무 싸운다 매일 그렇게 하셔서 힘들다고 말씀드렸었던 거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딱히 해결되는 건 없었던 거 같아요. (I)

자진 신고라는 게 있었잖아요. 경찰들이 쓰게 만들어서 가해자들 처벌했던 게 있어서 그거 썼었던 거 같아요. 근데 딱히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 같아요. 선생님들도 잠깐 처벌하고 알면서 묵인하는 쪽이었던 거 같아요. (그때 기분이) 무력해요,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B)

선생님들이 자기네들이 편하기 위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체벌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큰 형들한테 애 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맞는 거죠. 방치를 했었죠. (E)

(할아버지의 폭력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것은?) 이모들한테 말을 했죠. 당연히 이모들은 참으라고밖에 얘기를 안 하죠. (D)

3) 지원을 받았지만 부정적인 경험이 됨

참여자들은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지원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오히려 더 나빠지거나 상처를 받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A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회성 출동 정도의 지원을 제공했으며 오히려 이후에 아버지에게 혼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H는 학교 선생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참고서를 주는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불러서 참고서를 가지고 가게 해 친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본인의 가정환경이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한창 예민한 시기였는데, 선생님들의 사려 깊지 못한 태도로 참고서 지원을 받는 것이 오히려 가장 싫은 일이 되어 버렸다.

그 이전에도 경찰이 몇 번 왔어요. (그때 경찰의 태도는) 그냥 약간 일회성으로 끝나는... (신고는 누가했는지?) 제가 했어요. (직접 하고 나서 아파한테 더 혼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A)

학교 다닐 때 반에 있는데 선생님이 불러서 문제집을 주는 게 제일 싫었어요. 따로 있을 때 주면 되는데 불러서 갔는데 문제집을 한 아름 안고 오면 애들이 뭐야 뭐야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사물함에다 넣고 그랬었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런 거에 좀 예민하지 못했던 거 같아요. (H)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태도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뿐 아니라 지원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과 지원받는 과정에서 요구받는 것들이

부정적인 경험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지원 자격 판단 기준이나 의무적 참여가 요구되는 활동, 지원을 받기 위해 감성적이 되어야 하는 것 등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C는 장애가 있는 부모님이 있어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았는데,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활동이 있어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낮가림이 심한 성격이어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1박 2일의 캠프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상황이 불편했다고 하였다. 또한 C는 기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성적만 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본인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학생들의 노력이나 과정보다는 성적이라는 결과만을 보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하였다. E는 아동생활 시설에서 생활 전반에 대해 지원을 받았는데 어려운 친구들에 비해 영화를 보러 갈 기회가 더 많기도 하였지만 단체로 영화를 본 뒤에는 항상 사진을 찍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프로그램 뒤에 항상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 불쌍한 애들을 도와줬다고 생색내는 것처럼 느꼈으며 참석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시설에서 연말에 후원자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는데 더 많은 후원금 마련과 후원자 연결을 위해 감성적인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으며 잘 부르지 못하면 혼이 나기도 하였다. 1년 중 음악회를 하는 것이 제일 싫었다고 할 만큼 참여자에게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으며 부정적인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OOO협회에서 했던, 숙제 같이 해 주고 같이 놀러 가고 이런 활동인데... 근데 그렇게 딱히 좋았던 거 같지는 않아요. (좋지 않았던 이유는?) 의무적이었던 거 같아요. 오늘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이거 있다 이런. 근데 OOO 활동을 하면 꼭 가야 하는 단체 활동이 있었어요. (중략) 직접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활동을 하고, 저처럼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장애가 있어서 활동을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초등학교이니까 정신지체 애들을 이해

를 잘 못 했고, 낮가림도 심했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되게 불편했어요. (C)

성적표를 보내면 거기서 심사할 때 성적이 올랐거나 떨어졌거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이 학생을 지원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 줘요. (중략) 불편한 거는 너무 성적 가지고만 판단하는 거 같은... 경제적으로 힘든 애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C)

영화 보러 단체로 가니까 항상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뭇가 불쌍한 애들 도와줬다 이러면서 생색내는 거 같아서 그래서 항상 그런 프로그램은 안 가려고 그랬어요. (E)

음악회 같은 것을 해서 후원금을 받는 게 있었어요. 그때가 제일 싫어요. 1년에 한 번 있는데, 후원자들이 많이 와서 출연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 좀 감수성 있는 노래를 불러야 하고 잘해야 되니까 엄청 맛있어요. (E)

3. 청년기의 삶

조사 참여자들의 청년기의 삶을 분석한 결과, 부유하는 삶, 어둠 속 희망의 빛, 불리의 경험으로부터로 범주화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4-2-4>와 같다. 아동기에 불리를 경험한 청년들의 삶은 여전히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인 상황 등에서 부족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부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여러 대처자원의 영향으로 어둠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의 빛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기의 불리 경험은 현재 청년의 삶에서 폭력 성향을 보이고 사람을 믿지 못하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갖게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으나, 부모와 다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게 하고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과 자립심이나 책임감을 갖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표 4-2-4〉 청년기의 삶

소주제	개념
부유하는 삶	불안정 노동의 경험
	만성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 놓임
	부족한 사회적 관계
	자기관리가 어려움
	진로 탐색과 선택에서의 혼란
어둠 속 희망의 빛	현재의 삶에서 희망을 발견함
	자신의 불리 경험과 진로를 연계하게 됨
	어려운 환경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옴
불리의 경험으로부터	폭력 성향과 그에 대한 걱정
	사람을 믿지 못함
	심리적 안정감을 갖지 못함
	부모와 다르게 살려고 노력함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강화
	자립심과 책임감이 강해짐

가. 부유하는 삶

부유하는 삶과 관련하여 (1) 불안정 노동의 경험, (2) 만성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 놓임, (3) 부족한 사회적 관계, (4) 자기관리가 어려움, (5) 진로 탐색과 선택에서의 혼란 등의 5개 개념이 확인되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경제적 빈곤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결핍으로 연결되어 고립된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어느새 청년이 되어 버렸지만 여전히 시간, 경제, 생활관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이가 들었지만 진로 탐색과 선택에서 혼란스럽고 자신이 없는 모습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1) 불안정 노동의 경험

참여자들은 청소년기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으나 청년, 즉 성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안정된 일자리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으며, 직장에서도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성희롱이나 폭력 등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K는 아버지가 파산한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벌어 본인의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김정고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구해 보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구하기는 힘들었다. 약간은 안정적인 직업 같은 일을 하고 싶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력이 발목을 잡았으며, 초단기 아르바이트로 주로 홀서빙이나 청소 등의 일밖에 없었다고 했다. N은 대학을 졸업하고 하고 싶은 배우 일을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배우가 되기 위해 극단에 들어가서 일을 했지만 거기에서는 제대로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제출해도 면접까지 가는 것이 힘들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주휴수당을 제대로 계산해 주지 않아 하는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L은 운동선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스포츠클럽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자리들은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채용하는 경우보다는 인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하는 시기에 바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아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용직 일을 하기도 하였다. I는 경제적 이유로 대학교를 자퇴하고 본격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 직장 에서 본인보다 늦게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이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등 불

공정한 인사 등을 보고 실망감으로 그만두기도 하였다. 이직한 직장에서는 상사로부터 성희롱과 폭력을 경험하고 그만두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맞는 곳은 찾기 힘들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약간 직업적인 일을 하고 싶기는 한데... 그런 거는 없고. 그냥 해 봤자 홀서빙이나 청소 이런 것밖에 없죠, 알바는. (K)

처음에 카페 아르바이트 할 때는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 가지고... 일하는 거에 비해서 수입이 많이 적었었어요. 일자리를 구하는데 요즘은 구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면접까지 가는 게 힘들어서 (요즘) 지원서를 넣어도 잘 전화를 안 주시더라고요. (N)

농구를 가르치니까 스포츠클럽은 바로 된 게 아니라 자리가 났을 때 추천을 받아서 간 거라서... 그 전에는 그 공장 같은 데 일용직 이런 거 있잖아요 분류하고 커팅하고 자르고 하는 그런 곳도 가 보고.... (L)

직장 다닌 거는 20살 자퇴하자마자부터. 호텔에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저보다 한참 늦게 들어온 알바생이 인맥 같은 거로 낙하산으로 취업하고 그러더라고요. (중략) 000백화점에서 보안팀 일했었고 거기서도 1년 조금 넘게 일했다가 거기는 좀 상사분이 좀 약간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불합리하다 해야 되나. 밖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입김이 나왔을 때 이런 코를 만지는 습관이 있었는데 보안팀이다 보니까 CCTV 다 나오거든요. 그거를 담배 피운다고 오해를 하셨나 봐요. 제가 담배 피운다고 생각을 하셔서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뺄 맞고... 참다 참다가 한 달 그냥 있다가 나왔어요. (I)

남성 참여자의 경우에는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택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I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면서도 성실히 일해 안정적인 일자리에 제안을 받았지만 언제 군대를 가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로 인해 제안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적성에도 잘 맞고,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으며 정규직으로 일을 했지만 군복무를 해야 할 시점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군대라는 장벽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데 큰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혹은 기술을 가지고 프리랜서로 일했지만 정기적이지 않은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P는 이혼을 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디자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정기적인 수입을 갖는 것이 어려웠으며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다. 청년들은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 환경에 내몰려 있으며 노동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호텔을 그만둘 때 친했던 코치님께서 친구분이 OO에서 레스토랑 하나 오픈을 했는데 혹시 매니저로 일해 볼 생각이 있냐 해서 가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21살 중반쯤이기도 했고 군대를 언제 갈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게 너무 다 불확실하다 보니까... 말씀은 감사한데 거절했죠. 제가 일을 하다 군대를 가면은 그쪽에도 민폐다 보니까. 보안팀도 굉장히 잘 맞고 주임까지 달아가고 부듯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군대 때문에 나오게 됐으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하죠. (I)

프리랜서로 혼자 일을 했어요. 디자인이 잘만 하면 돈을 진짜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프리랜서라는 것은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혼을 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었고. 돈이 벌리기는 하지만 정기적이지 않고 공과금 밀리거나 그랬었던 거 같아요. (P)

2) 만성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 놓임

참여자들은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하며, 쓸 수 있는 돈을 최대한 절약하며 생활했지만 만

성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L은 대학원에 진학한 뒤 학교에서 조교 일을 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로 의식주의 모든 생활을 감당하다 보니 아무리 아껴 써도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생겼으며 그럴 때마다 가족에게 빌리게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집에서만 지내는 집순이가 되기도 하고,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다. D는 청소년쉼터를 나오면서 어머니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월셋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자립 생활을 시작한 첫 달은 빌린 돈에서 월세를 내고 나머지로 생활비와 식비 등을 해결했지만 그다음 달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월급 53만 원으로 모두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어머니가 식재료 등은 사주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을 홀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었다. F도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월급으로 교통비, 통신비, 생활비 등을 해결해야 하는 빠듯한 생활을 하였다. K는 더 나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 요구되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집에서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식사비와 교통비 등도 제대로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어 식사를 하지 못할 때도 있다. 시험 준비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고, 공부에도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학자금 대출 상환하고 나머지로) 용돈 생활을 30-40만 원 내에 살았던 거 같아요. 대학원생 됐을 때는 아껴 쓴다고 해도 턱없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빌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꾸 빌리는 습관이 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형한테 지원받고 그렇게 지냈던 거 같아요. (L)

저희 어머니는 지원해 줄 상황이 안 되어서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흔쾌히 90만 원 빌려주시고, 갚는 거는 될 때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처

음에는 그렇게 빌려서... 첫 월급은 일을 적게 해서 53만 원 정도 나왔는데 (월세) 40만 원 내고 핸드폰 값까지 제가 내는 상황에서, 엄마가 그래도 용돈을 보내 주니까, 엄마가 식재료 같은 거는 사 주고 했으니까 그걸로 이번 한 달은 버티고 있었어요. (D)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그러면 차비로 10~15만 원 정도 들고, 이제 15만 원으로 생활비를 쓰는데 보니까 하루에 만 원도 못 쓰는데 핸드폰비나 이런 거 나가니까 되게 빠듯하긴 한데.... (F)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검정고시 합격을 해야 되는데, 검정고시 하나만 해도 안 할 판인데 알바까지 하게 되면 몸도 힘들고 돈 버는 거에 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돈 같은 것도 되게 문제가 많죠. 저희 집은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라서 버스비도 간당간당하게 받을 수 있을 정도인데.... (K)

3) 부족한 사회적 관계

참여자들은 불안정한 노동과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 속에서 사회적 관계마저 부족해지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소심한 성격이나 경제적 어려움, 아르바이트로 인한 시간 부족, 환경 변화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기도 하고 이로 인해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맺지 못하고 있었다. O는 다른 친구들처럼 운동을 좋아하거나 잘하지 못하고 성격이 내성적인 이유도 있지만,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 사정으로 친구들을 만나면 지출해야 하는 식사비 등을, 혼자이면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J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지만 방학 때는 대부분 혼자 집에서 지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였다. 대학생이 된 후 처음 맞는 방학이지만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M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으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 그 전

보다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친구들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지는 못하고 있었다. P도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모두 흩어지게 되었고,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 대학 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하면서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친구도 없이 거의 모든 시간을 혼자 지냈으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평가하였다. 청년들이 부족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가 축구, 야구라든지 그런 것들 제가 좀 멀리하는 편이라서.... (멀리하는 이유는?) 잘 못 해서 하나 마나고 (중략) 그리고 돈도 좀 많이 드니까... 1학년 때는 제가 돈을 많이 써 가지고 많이 미안했거든요, 아버지한테. 애들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술자리 가지면 돈이 하루에 3~4만원 깨질 때도 있으니까 혼자 그냥 밥 먹으면 한 3,000원 밑으로 쓰면 되니까 편하고.... (O)

제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부모님은) 직장을 다니셔서. 형들도 나가고. 그래서 집안일 하고 밥 해 먹고, 그다음에 조금 게임을 한다든가 여가 시간을 좀 가지다가 저녁이 되면 같이 밥 먹고 또 집안일이 생기기도 하고. (웃음) 지금 주부로 살고 있어요. (J)

초반에는 애들이랑 많이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바로 이제 알바를 가다 보니까 좀 걸도는 느낌이 있었는데, 알바를 그만두니까 애들이랑 시간도 생기고 친구들도 좀 더 많이 생겼던 거 같아요. (중략) (학교 회의 등이) 없는 날은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집에만 있는 이유는?) (침묵) 집이 좋아서.... (M)

알바하고,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거의 타지로 가거나 이제 자기들 친구들 만나니까 거의 혼자 놀았던 거 같아요. 인생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P)

4) 자기관리가 어려움

일부 참여자들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일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경제 관리, 학습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의 자기관리를 잘 해내지 못한다고 하였다. O는 일상의 삶에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해야 하는 일이 있어도 미루다가 하거나 꾸준히 하지 못하는 등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였다. 대학에서 학과 공부를 할 때도 꼼꼼함이 요구되는 과업을 잘 해내지 못하기도 하였다. O는 이러한 모습이 아동기 때 본인을 관리해 주거나 통제해 주는 양육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P는 생활계획을 거의 세우지 못하거나 일정한 패턴을 갖고 생활하지 못하며, 해야 하는 일을 미루다가 공과금에 과태료를 함께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직장생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덜 발생하지만 혼자 해야 하는 일의 경우에는 자기관리가 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K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컴퓨터 게임이나 친구들과 술을 먹는 일들은 자제하고 달라진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계획한 대로 공부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하였으며, 핸드폰을 보다가 잠이 드는 등 스스로 학습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K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1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벌기도 하였지만, 경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6개월 만에 어렵게 번 돈을 너무 쉽게 써 버리기도 하였다. 청년들에게 생활 관리, 학습 관리, 경제 관리 등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자기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가 무계획적이거든요. 압박해서 하는 편이에요, 뭔가 일을 미루다가. 이 때 저를 아무도 저를 신경 써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방관을 많이 했었고 제가 공부도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꾸준히 하는 걸 제가 되게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들을 뭐 하는데 제가 그렇게 꼼꼼하게 무언가를 분석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제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보통 집에서는 엄마가 야, 너 학교 가라 깨워 주고, 학원 가라... (이런 걸 새엄마는) 아예 안 했어요. 저는 그냥 혼자 했어요. (O)

생활의 계획을 못 세운다거나 생활의 패턴이 없는 거, 그거는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뭐 하기 싫은 일을 끝까지 미뤄 놔다가 마감을 하거나 이런... 혼자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거의 끝까지 다 미뤄요. 그래서 늘 과태료를 낸다거나 그런 식인 거 같아요. (P)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빠랑 저녁을 먹고 그냥 핸드폰 하고 누워 있어요. (중략) 컴퓨터는 대체적으로 안 켜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게 되고 핸드폰은 너무 재밌고 유튜브를 계속 보게 돼요. 그러다 핸드폰 하다 자요. (K)

(배달 알바로 번) 1000만 원이라는 돈을 2달 월세 빼니까 800만 원 남았더라고요. 800으로 거의 6개월 동안 집에서 먹고 자고 싸고만 해 가지고 그때 몸무게가 120kg까지 쪼였어요. 지금은 이제 75kg인데 150만 원짜리 컴퓨터 사고 헬스 한다고 PT 100, 120만 원짜리 또 끊고.... 물론 3번 나가고 안 나갔어요. 다른 형한테 40만 원 주고 팔았어요. 어이가 없죠. 그것도 힘들게 번 건데 이렇게 쉽게 써요. (K)

5) 진로 탐색과 선택에서의 혼란

여러 가지 불리를 경험하며 성장한 참여자들은 코앞에 닥친 어려움들만을 생각하면서 견뎌왔다. 본인의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과 경험을 해야 하지만 참여자들은 그런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없었으며, 막상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데 많은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였

다. 가정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전혀 미래나 진로를 고민하지 못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N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여유가 없었으며 바로 앞에 주어진 어려움을 해결하며 살기 급급한 날들을 지내 왔다. 미래나 진로에 대한 고민은 사치에 불과한 상황들이었으며 진로를 탐색하거나 선택하지 못한 채 어느덧 청년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K는 부모님의 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지내 왔다. 그 속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하였으며 하고 싶은 것을 찾는다고 해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갖지 못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집은 파산한 상태이고 검정고시를 합격해야 이후의 진로를 생각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지 못하고 있다.

그때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앞이 깜깜했어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던 거 같아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바닥이었거든요. (N)

집은 파산신청을 한 상태예요, 지금 힘들어서. 제가 어디 학교를 가야 될지,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직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 찾아서... 가서 제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자신감이 많이 없으니까 일단 모르겠어요. (K)

P는 대입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탐색하기보다는 아버지의 강요와 회유로 전공을 선택해 대학에 진학하였다. 그러나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사경고를 받고 휴학을 오래 하는 등 진로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다. O의 경우에도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는 것에 실패한 뒤로 관심사와 근접한 학과를 선택해 진학하였다. 학과 교수님들과 선배들은 다양

한 경제활동 경험과 자원봉사 경험을 하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해 주었지만 군대를 다녀오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혼란한 상태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높은 대학이 아니면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편이었고 저는 사범대를 가고 싶어서 공부를 하다가 수능에 실패해서 결국에 집 앞에 있는 대학교를 갔는데 특수교육도 선생님이 되는 길이라고 아버지가 꼬셔 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안 맞았고 그래서 투고를 맞았거든요. 한 학기 학교 맞고 휴학했다가 다시 갔는데 또 학교 맞고 또 휴학했다가 막 이랬던.... (P)

(진로선택은) 제 나이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막연하지만, 교수님들이나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다양한 경제활동, 다양한 거를 경험해 보면 너의 것을 찾을 수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못 찾았어요. (자원봉사 활동도 했지만) 저는 못 찾았고.... (O)

나. 어둠 속 희망의 빛

어둠 속 희망의 빛과 관련하여 (1) 현재의 삶에서 희망을 발견함, (2) 자신의 불리 경험과 진로를 연계하게 됨, (3) 어려운 환경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옴 등의 3개 개념이 확인되었다. 청년들은 부유하는 삶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있었다. 맡겨진 일과 관계 속에서 새로운 진로를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불리의 경험 안에서 적성을 발견하여 진로로 발전시키기도 하였으며,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오히려 자율성을 발전시키는 등 결핍을 딛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1) 현재의 삶에서 희망을 발견함

참여자들은 부유하는 청년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다. I는 사회복지요원으로 OOOO센터에서 복무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다 복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회복지요원으로서 하는 일이 적성에 맞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N은 그동안 바닥만 보는 생활을 해 오며 미래를 생각하지 못했었지만, 청년이 되면서 하고 싶은 진로를 찾고 자립 생활을 시작하면서 앞을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친구나 남자친구 등 사람들과의 관계의 힘이 미친 영향이었다. 친구들이 보여 주는 삶 속에서 평범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결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L은 어려운 가정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도 교수님의 대학원 진학 권유를 받고 좀 더 높은 꿈을 꾸게 되었다. 교수님이 조교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 수 있다는 조언을 해 주었고, 고민 끝에 대학원의 시간을 자기를 위한 투자로 생각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꿈을 위해 도전하기로 결심하였다. 젊음이 있기에 도전할 수 있었으며 지금은 그 꿈을 박사과정을 마치고 유학을 다녀오고 싶다는 계획으로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꿈이 없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회복지사 일인데 생각보다는 잘 맞는 거 같아서....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호봉제로 월급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I)

어릴 때는 그런 보통의 삶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편하게 산다는 게. 지금은 적응도 잘 하고

앞을 보게 되는 거 같아요. 그때는 그 현실밖에 안 보였는데 지금은 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때 나는 절대 결혼 안 할 거고 평생 혼자 살 거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지금은. 그것도 사람들의 영향이 큰데 남자친구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된 거 같아요. 그 주위 사람들 때문에.... (N)

교수님이 대학원을 와 보는 건 어떻냐는 생각을 전달하셨는데 저는 그때 대학원에 대한 뜻이 너무 없었거든요. 사회 나와서 돈을 벌어야 될 거 같았고... 그런데 지도 교수님께서 “조교를 하면 학비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도 해 주시니까 2년 정도 투자한다 생각해서 대학원 가게 됐어요. (중략) 지금 계획은 졸업을 하고 학위를 빨리해서 유학을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유학을 가서는 박사 학위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연구원으로 연구 실적을 좀 쌓고 오든지 해야겠다고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L)

2) 자신의 불리 경험과 진로를 연계하게 됨

참여자들은 아동기에 불리 경험이 있었지만 그 경험 속에서 적성과 진로를 발견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J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부채를 갚기 위해 맞벌이를 하게 되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 6세 때부터 혼자 있으면서 밥을 해서 먹기도 하였는데 형에게 요리를 배우거나 혼자 요리를 하기도 하면서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지역 내 센터를 다니며 요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고, 현재 요리와 관련된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B는 어린 시절 부모와 교사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하는 불리를 경험하고 정신적으로도 우울장애와 공황장애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본인의 학대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보육교사가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다. E는 아동생활시설 서포터즈 강사단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생활시설에서의 경험을 보호아동과

나누는 경험을 하였다. 강의를 듣는 아동들이 생생한 강의 내용을 잘 들어 주었고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있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사회복지사가 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거절하고 다른 길로 가기도 했지만 결국 사회복지 쪽에서 과거 본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아동들을 돕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부모님께서서 어릴 때부터 맛별이를 하셨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도 좀 있기도 했고 큰형이 요리, 밥하고 이럴 때 도와주고, 또 혼자 있는 시간에 제가 해 먹고 이런 경험이 좀 생기니까... 밥을 계란을 부쳐서 해 먹는 거는 거의 6~7살부터.... 그게 또 맞았나 봐요, 저한테. 익숙해져 가지고 계속했는데 '요리사라는 직업이 있구나.' 알게 된 거는 7살 때부터인 거 같아요. 그 때부터 요리사를 하겠다고.... (J)

제가 지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아동학대 CCTV를 봤거든요. (사촌 누나의 아이를) 보고 나서 느낀 게 사회복지 쪽을 제안을 받았거든요. 부모님한테 이쪽 일도 되게 전망이 좋다, 너의 상태가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하면 잘 극복이 돼서 병도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더라고요. 근데 아동교육 쪽이 더 시급하게 느껴졌어요. (B)

저는 서포터즈에서 강사단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비싼 강사들을 데리고 와도 요보호 아동들이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서포터즈 선배들이 직접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진행하게 됐는데 애들이 너무 잘 듣고... 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또 자부심도 생기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도 생기고,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중략) 스무 살 때부터 사회복지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저는 시설에 살았었기 때문에 박봉이고 힘든 거를 알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애들한테 그 정도까지 참으면서 마음 주면서 케어할 수 있을까? 나 때의 아픔을 내가 그 애들한테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동생도 책임져야 하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건축과를 간 거고. 그런데 늦게 사회복지를 딱 시작하고 나니까 여기만큼 좋고 감사한 데가 없어요. (E)

3) 어려운 환경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옴

참여자들은 여러 불리 경험으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결핍이 있는 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 더욱 힘을 내게 하거나 결핍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 바람직한 역량으로 승화시켜 내기도 하였다. L은 아버지가 장애가 있고 형이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친구들의 상황과 비교하며 힘들어하기보다는 집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더욱 열심을 내게 되었다고 하였다. O는 아버지의 재혼으로 계모와 함께 살면서 차별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눈치를 살피는 소심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소심한 성격 덕분에 사고를 치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 있었다고 하였다. M은 장애가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관심과 돌봄을 적절히 받지 못하면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부모님의 관심 부재가 오히려 자율성을 기르는 기회로 작용하였으며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청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이를 발판 삼아 더 힘을 내거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 인식하고 긍정적인 결과로 연결해 내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좋게 생각하려고 많이 했어요. 친형은 더 힘들게 생활했고 그때는 '내가 제일 힘들지 않겠지.'라고 자꾸 생각했어요. 다른 친구들한테 부러운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잘 컨트롤했던 거 같아요. 항상 집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을 하면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게 있었던 거 같아요. 가족을 생각을 하니까. (중략)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신 거에 대해서는 힘든 것도 있었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L)

그때의 제가 안쓰러운 거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거는 장점이

있는 거고 단점이 있는 거고 어느 쪽이 클 뿐이지 저는 제 성격에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르게 자란 이유에는 소심한 성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소심했기 때문에 큰 사고 치지 않고 바르게 자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때의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컸고, 지금 제 성격, 제 모습에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 다른 더 긍정적인 게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O)

저는 다른 애들보다 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거 하고 있으니깐 그게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M)

다. 불리의 경험으로부터

불리의 경험으로부터와 관련하여 (1) 폭력 성향과 그에 대한 걱정, (2) 사람을 믿지 못함, (3) 심리적 안정감을 갖지 못함, (4) 자립심과 책임감이 강해짐, (5)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강화 등의 5개 개념이 확인되었다. 청년들은 아동기의 불리 경험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 피해를 입었던 청년들은 자신도 폭력적인 성향을 학습하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으며,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한 경험으로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인정에 대한 지나친 욕구나 공감능력 부족, 소심한 성격 등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러 불리를 경험했지만 오히려 자립심과 책임감이 강해지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폭력 성향과 그에 대한 걱정

아동기의 불리 경험은 청년의 현재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참여자들은 어렸을 때 부모의 음주나 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자신도 모르게 이를 학습하여 본인도 음주 문제와 폭력성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다. I는 아동기에 아버지의 폭력에 노출되었으며 본인도 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다. 이런 불리 경험은 아동기 당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본인도 비행행동을 하게 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본인을 믿어 주었던 선생님과 가족들의 지지로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수정할 수 있었지만, 청년이 된 지금 음주 문제나 폭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간혹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무섭다고 하였다. N은 본인보다는 남동생이 아버지처럼 술을 마시면 폭력 성향이 나타날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남동생도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폭력이 대물림된다는, 사람들의 편견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에 대한 걱정이 더 깊어지기도 하였다. K도 아버지를 닮아 술도 좋아하고 잘 먹는 자신의 모습과 술을 먹으면 행동이 과격해지는 것을 인식하면서 본인도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될까 봐 무섭다고 하였다.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대물림되는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청년들이 혼자의 힘으로 폭력 성향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애쓰는 모습이 힘겨워 보였다.

살면서 좀 그런 다짐은 많이 하는 거 같아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술을 정말 필름 끊길 때까지는 안 마셔야지, 여자는 때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여자들 때린 적은 없고 술은 필름 끊길 때까지 무조건 안 마세요. (중략) 아무래도 폭력이나 이런 거는 ‘아 아빠가 하는 폭력을 보고 자랐으니까 나도 혹시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

끔 하기는 해요. (I)

아빠처럼 엄마를 못 믿고 그렇게 혼자 미치다가 폭력까지 할까 그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 반대로 폭력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정말 다짐은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폭력적인 거는 생기긴 한 거 같아요. (I)

알코올 문제나 큰아빠부터 아빠 이렇게 대물림되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동생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혹시 동생도 좀 그렇게 될까 봐. 술 마시면 폭력적이거나 그런 성향이 나올까 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동생도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도 많이 느끼거든요. 사람들도 아빠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 아들도 그렇게 된다는 대물림된다 그런 편견이 좀 있더라고요. (N)

제가 똑같이 여자한테 그럴까 봐 많이 무섭기도 하고, 아빠를 닮아 술을 좋아하기도 하고 엄마도 좋아했었고... 술이 몸에 잘 받아요. 한 3잔, 4잔 먹으면 취기가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더우면서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 같아요. 행동도 좀 과격해지고 이게 문제인데.... (K)

2) 사람을 믿지 못함

아동기의 여러 불리 경험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장애가 있는 부모님이 당한 사기 피해, 어머니의 외도, 경제적인 궁핍 등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데에 영향을 받았다. M은 장애가 있는 부모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대출 사기 피해를 입는 등 이용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성인이 된 후에도 친구들을 처음 사귀는 것이 어려웠으며, 사람들의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였다. I는 부모님이 폭력 등의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외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

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버지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으며, 이러한 경험이 현재 여자친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외도했던 환경의 영향과 실제 여자친구가 바람피우는 것을 확인하는 경험을 하면서 점점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K는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자퇴할 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내 오면서 돈과 관련해서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해도 돈과 연관된 상황에서는 절대 신뢰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본인의 모습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돈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로써 아동기의 빈곤이라는 불리 경험이 현재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가 (호의를) 피하는 거 같아요. 경계심이 좀 많아지고.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아빠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경계심이 그때 강해졌는데, 지금 와서도. 사실 처음에 애들을 잘 못 사귀었어요, 그런 경계심 때문에. 재도 혹시 나를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거밖에 안 보이고.... (M)

제가 그런 환경을 겪어서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중략) 엄마 일도 있는데... 진짜 의처증처럼. (여자친구들한테) 별거 아닌데도 '설마 다른 남자랑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건 병이다 싶을 정도로 의심이 간 적도 많긴 했어요. (I)

친한 친구라고 해도 솔직히 돈적으로는 절대 안 믿어요. 그냥 애가 2만 원 빌려달라 한다... 저는 정말 화가 나요. 2만 원 빌려주면 안 값을 거 같은데, 2만 원이면 솔직히 엄청 큰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까워요. (중략) 사람을 아예 못 믿어요. 믿을 사람은 아빠밖에 없는데, 일단 돈에 대한 게 되게 커요. 이기적이게 돼요. (K)

3) 심리적 안정감을 갖지 못함

아동기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했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불리 경험은 청년의 삶에서 인정에 대한 지나친 욕구나 공감능력 부족, 소심한 성격 등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모습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I는 아동기의 폭력 피해, 빈곤, 적절한 돌봄 부족 등 불리의 환경 속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관심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인정의 욕구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청년이 된 후에도 여전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성인이 되었지만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컸는데 이것이 좌절되었을 때 다투기도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I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경제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나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게 되었는데,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면서 일상에서 받아야 할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런 애정결핍의 경험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는 인정의 욕구로 발현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일찍이 혼자 지내며 스스로 많은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것이 감성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밖에서는 담배 피우고 놀더라도 공부할 때는 또 수업시간에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반장을 한다거나 참여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아무래도 인정 욕구가 좀 많이 컸던 거 같기도 해요. 잘 보이고 싶다... 아빠랑 살 때 그랬던 거 같아요. 다투기도 자주 다뤘는데.... (I)

가족 품에서 자라지 못했으니깐 그런 애정에 대한 결핍? 누구한테든 다 인정을 좀 받고 싶고,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 같고 또 너무 현실적인 판단에 치중하다 보니까 감성적이거나 뭐 이런 게 되게 공감능력이 부족하다?

연애를 해도 여자 친구가 (제가) 너무 현실적이에요. 감성적이지 못하고. 영화를 하나 봐도 감동적인 부분에 감동을 못 느끼고.... (L)

불리 경험으로 성격 자체가 위축되는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O는 계모와 지내며 충분히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았던 경험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소심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런 성격으로 인해 사람들과 만날 때 자신의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신경을 쓰게 되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점점 불편해졌고 결국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해지게 되었다. 아동기의 불리 경험이 청년들의 심리적 힘과 안정감을 갖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전공 학생들은 다 애매하게 알다 보니까... 같이 밥을 먹는다가나 이러면 신경 쓰이고 차라리 그렇게 신경 쓰면서 만날 바에는 그냥 혼자서... 이 건 제 성격이 소심해서 밥을 먹어도 애가 나랑 같이 밥을 먹는데 먹기 싫은가... 괜히 그 내가 이 메뉴를 골라서 먹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단점인 거 같아서 고쳐 나가는데 쉽게 안 되네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눈치 보거나 소심한 성격이 강해진 게 새어머니 탓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O)

4) 자립심과 책임감이 강해짐

아동기의 불리 경험이 청년인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지만 불리의 경험을 통해 오히려 강점을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일찍이 독립을 하는 것이 필요했던 참여자들은 자립심과 책임감이 강화되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갖게 되었다. L은 중학교 때부터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 생활을 하면서 자립능력과 이성적 판단 능력이 좋아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P는 어머니의 적

절한 돌봄이 부재했지만 오히려 본인이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면서 돌봄 능력이 강화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M 역시 장애가 있는 부모님의 돌봄을 적절히 받지 못했지만 부모님들이 장애로 인해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것을 보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더 바르게 성장해 집안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되었으며 주변으로부터 어른스럽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가정위탁보호를 받으며 기초생활수급권을 가지고 있었던 N은 지원을 받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생기고 수급권에서 벗어나는 자립을 이루어 내었다.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장점으로는...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립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나 그리고 약간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현실적인 판단이 빠르다거나 그런 판단 능력이 좀 좋아진다거나 그런 건 있어요. (L)

돌봄의 능력이 강화된 거? 근데 저는 동생 돌봐야 된다거나 엄마를 책임져야 된다거나 이게 많이 괴롭거나 이리저리 않았었던 거 같아요. 지금도 사람들 챙기거나 이런 것들에 강화된 편이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 (P)

중학생 됐을 때는 제 또래 애들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을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책임감이라는 게 생겼던 거 같아요. ‘가족들이 이러니까 나라도 뭔가 좀 반듯하게 있어야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중략) 책임감이 많이 자라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가 어른스럽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넌 진짜 어른스럽다.” 어떤 일을 할 때 책임감을 갖고 임한다는 자세가 생긴 거 같아요. (M)

(지금은 수급권이 없는 상태인가요?) 네, 지금은 (없어요) 2017년도에 딱 서울 올라와서 제가 처음 했던 일이 OOOO였었어요. 거기서 알바했는데

소득이 생기니까 수급자에서 떨어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거에 좀 매이고 싶지 않았던 게 있었어서, 안일해지는 거 같아서 아 괜찮다고 하고.... (N)

5)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강화

아동기의 불리 경험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갖지 못하게 된 참여자도 있었지만 일부 참여자의 경우에는 불리의 경험을 통해 오히려 강점을 발전시켜 긍정적인 결과를 갖게 되기도 하였다. M은 언어장애와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님들과 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비언어적 표현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친구 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들어 주고 적극적으로 비언어적 표현을 하게 되었다. J는 한창 예민한 시기인 사춘기 때에도 부모님에게 짜증을 내거나 반항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큰 부채를 안게 되면서 힘들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과 달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힘들기는 했지만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성숙한 태도를 갖게 되었다. 더불어 자기의 어려웠던 경험을 기반으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 적은 금액이지만 기부를 약정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J는 불리의 경험 속에서도 공감능력을 키우며 나눔 실천을 생각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언급하였다. 불리 경험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지원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얘기를 많이 잘 들어 주는 이해가 좀 많아진 거 같아요. 원래 저희 엄마, 아빠랑도 얘기를 할 때 제가 다 들어 주는 편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얘기를 들어주면은 아, 그랬구나 제가 반응을 해 줘야지 얘기를 하거

든요. 그래서 그런 게 습관 돼 가지고 지금도 계속 끄덕끄덕거리고. 애들도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반응을 보여 주는 게.... (M)

사춘기가 오면 엄청 짜증 내고 그런다는데 저는 좀 덜했었어요. 부모님이 워낙 신경 써 주시기도 했었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굳이 일 갔다 와서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냐... 좀 더 일찍 성숙해질 수 있는 거 같아요. 그 경험이 잘 풀어지지 않으면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고 돈, 돈 할 수 있겠는데 다행히 저의 상황 속에서는 다른 분들의 도움과 종교적으로나 이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풀어갈 수 있었고, 그다음에 나같이 어려웠던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나중에 더 (잘)되었을 때 그 친구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해서... 어제도 후원 약정, 그걸 제가 지나가다가 좋은 마음에 했는데.... (J)

4. 서비스 요구

조사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요구와 관련하여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것 그리고 현시점의 청년기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요구에 대해 질문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아동청소년기 및 현재의 삶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에 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었으며, 현재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묻는 것에 대해 비교적 답하기 어려워하였다. 참여자들은 아동기에 필요한 지원으로는 공통적으로 부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을 꼽았다. 아울러 학교 교사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불리를 경험한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기보다 자신의 성장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적시에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 역시 제시되었다. 청년기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요구로는 자기개발 및 여가지원, 주거지원, 소득지원, 일자리지원, 건강지원, 생활지원과 정보제공 및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표 4-2-5〉 서비스 요구

소주제	개념
아동기에 필요한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학교 교사의 관심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청년을 위한 복지 요구	자기개발 및 여가지원
	주거지원
	소득지원
	일자리지원
	건강지원
	생활지원(법률, 금융 등)
	정보 제공 및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가. 아동기에 필요한 지원

참여자들은 자신의 아동기 경험을 반추하며 크게 3가지의 서비스가 당시에 필요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다수의 참여자들은 아동기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는데, 이는 아동기의 서비스 이용 경험이 부정적이었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지원에 대해 제안했던 참여자들은 첫째, 부모에 대한 정신건강의 개입, 둘째, 학교 교사의 관심, 셋째,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 등을 꼽았다. 아동기에 부모의 알코올 문제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자신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모에 대한 건강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학교가 아동기에 완충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학교, 특히 교사의 관심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획일성과 분절성, 복잡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다.

1) 정신건강 서비스

참여자들은 아동청소년기에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했던 큰 이유 중 하나로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를 꼽았기에 아동기에 부모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I는 어머니의 '신경 쇠약'이라는 정신건강상의 문제와 아버지의 '알코올' 문제 등으로 인해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며,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라면 자신이 아동기에 불이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신경 쇠약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그때 병원도 못 가고 그렸었으니까 처음부터 어머니를, 상담해 주고 우울증을 치료를 해 주셨더라면은 그러면은 엄마가 그렇게 아빠한테 예민하게 굴 일도 없었고 아빠가 엄마도 더 심하게 할 일도 없었고.... (I)

2) 학교 교사의 관심

조사 참여자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를 비롯한 어른들의 관심과 지지가 아동기에 여러 불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키는 자원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은 아동청소년기에 교사가 자신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충분히 돌봄을 제공했다라면 자신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있었다. I는 흡연으로 인해 반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선생님이 이에 대해 자신의 잘못은 명확하게 훈계하더라도 본인이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다독였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O 역시 과거에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자신의 삶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반드시 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기에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지지체

제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학교 때 선생님처럼 뭐 “네가 담배 피웠다 걸려서 반장 잘린 거는 너 책임 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거 가지고 주변에서 뭐라 하는 말 같은 것들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거로 실 망했거나 기뻐감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니까.” 뭐 그냥 그런 식으로 격려? 위로? (I)

저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좀 명확히 있었더라면....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중 학교 선생님은 교육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중략) 선생님 이나 누군가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저를 좀 많이.... (O)

3)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복지서비스가 아동청소년기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 못 했던 이유로 복잡성과 분절성뿐만 아니라 각 서비스들이 어려움을 해결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못하게 했던 것도 있다. 서비스 이용 경험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다른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막는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 다는 제언을 하였다.

I는 자신이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하고 싶었던 교육 서비스(주로 사교육) 를 이용하지 못했던 것을 언급하며 자신이 선택해서 하고 싶은 활동에 대 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N은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 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처가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 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원망을 쏟아 내며 카타르시스를 느꼈 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는 쉽지 않았 기에, 개별화된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하 였다.

그게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딱 수업들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 50만 원 있으면 그걸로 무조건 학원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주되 그런 학원 같은 거를 결제하는 거를 한 달에 50만 원 너무 아깝죠, 세금 거덜 나니까. 하다못해 한 15만 원 지원해 줘도 학원비 절반이라도 해 주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저 태권도도 다니고 싶어 했는데 태권도도 요즘 많이 올라 가지고 한 달에 15만 원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취미 생활 운동 같은 거 즐길 수 있는 정도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I)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정신과 치료를 한 번 받았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큰 아버지랑 살면서 큰아버지가 힘들게 하면 할수록...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갔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엄마에 대한 원망이 컸던 거 같아요. 그래서 엄마랑 살면서 제가 원망을 많이 쏟아 냈던 거 같아요.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제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걸 드러낼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걸 좀 많이 참고 억누르면서 살았던 거 같은... 그래서 그때 엄마한테 다 털어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때 내 감정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느낌이었어서 많이 편해졌어요. (중략)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N)

K와 N은 개별화된 일종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K는 자퇴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당시 검정고시 제도라는 것에 대해 알았더라면 자신이 좀 더 빨리 진로를 준비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자퇴하며 행정처리 이상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N 역시 당장 앞날이 막막한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었음에도 그러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밀착 지원이 있었다면 자신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때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았죠. 검정고시 있었는데 제가 몰랐잖아요. 상담도 안 했더니깐요. 선생님도 못 봤어요. 그냥 서류로 쫓고 가서 자퇴서 받아 가지고 부모님 사인하고 바로 돌아서 나와 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 가지고 그냥 자퇴서 내고 “수고하세요.” 하고 나왔죠. (검정고시 등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면 더 좋았겠죠. (K)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거를 좀 늦게 찾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시거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N)

나. 청년을 위한 복지 요구

청년을 위한 복지 요구와 관련하여 (1) 자기개발 및 여가지원, (2) 주거지원, (3) 소득지원, (4) 일자리지원, (5) 건강지원, (6) 생활지원(법률, 금융 등), (7) 정보 제공 및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동기의 서비스 요구와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하였다. 이는 욕구의 부재라기보다 아동청소년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누적된 것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년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이들의 요구가 부족한 것이 곧 욕구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제도 설계가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기할 것은 참여자들이 다수의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연구자들의 통념과 달리 소득지원, 특히 보편적 청년수당이나 기본소득 등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강하게 보이는 참여자가 많았다는 것인데, 이는 다각도의 해석을 요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1) 자기개발 및 여가지원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자기개발과 여가지원을 가장 중요한 복지 요구로 꼽았다. 이는 아동청소년기에 다양한 자기 탐색의 기회가 부족했기에 유예되었던 정체성 수립과 진로 설계를 청년기에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평생직장이라는 것이 사라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청년들에게 자기개발 기회와 여가를 지원하는 것은 이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즉, 불리 경험 청년에 국한해 지원이 이뤄지는 것보다는 모든 청년들에게 제공됨으로써 청년의 자기 탐색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여러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이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청년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교육을 제공받음으로써 자기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학을 못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우고 싶은 게 있어도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배워야 되는 거고, 무상으로 해 주는 것도 인원수 제한이 있다거나 하잖아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를 한 번만 만들어서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 개 선생님 다르게 같은 강좌를 좀 많이 열어 준다거나, 평생 교육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지원을 해 준다거나 학원을 다닐 수 있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나라에서 그런 강좌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C)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기능 중심으로 구성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다수의 청년들이 20대가 되었음에도 자신이 무엇을 희망하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기성세대의 관점처럼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고 청년들의 청년기 자기 탐색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는 예를 들어 20대 중반에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를 이룰 기회의 사다리가 없는 상태임을 지적하였다.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가능한 직업훈

련이란 결국 기능 중심의 자격증 취득 과정인데, 이러한 일 이외에도 다양한 희망들을 이룰 수 있는 사다리가 제공되고 그 사다리를 오르는 과정에서 중단하더라도 다른 기회들이 계속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직업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분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제 본인 의지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아직 탐색하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 같거든요. 근데 늦게 가서 탐색해서 하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중략) 근데 저희가 스무 살이 됐다고 해서 청년들이 20대 초반에 나 이거 할 거야라고 아직 직업 탐색 기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또 스무 살 성인이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경제 활동을 하기를 바라고, 어른들은. (E)

그런 점에서 휴학은 대학생인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자기 탐색의 기회였다. 하지만 저소득 계층 대학생들은 휴학 기간에 국가장학금의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취업 시기가 지연되는 상황이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휴학 기회 역시 계층 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의 경우 휴학을 하고 다른 일을 해 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누리기에 기회비용이 크다는 언급을 하며 이러한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휴학을 하면 휴학을 하는 기간만큼은 국가장학금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휴학을 해 보고 싶고 그 기간 동안 좀 쉬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휴학을 하는 동안에 국가장학금이 안 나오면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G)

청년 여가 활동과 관련한 지원 역시 언급되었다. E는 현재 원룸 촌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여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건강하게 산책하거나 여가를 즐길 만한 지역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

며 여가의 기반 시설이 사회 계층화되어 있음을 안타까워하였다. 여가지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기회 그 자체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회들이 소득에 따라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공공재로서 제공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저희는 비싼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그러면 원룸에 살잖아요, 근데 여기 근처에 저희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느껴 본 적이 없거든요. 공원 같은 곳이라도 운동장이라도 좀 이쁜 그런 곳이 있으면 근데 비싼 아파트를 다 어른들이 살지, 저희 20대가 입주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술 먹는 게 걱정이고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다른 공간이 필요한데 사실은 다 돈이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헬스장을 가더라도 결제를 해야 되고.... (E)

2) 주거지원

주거지원 역시 다수의 참여자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항목이었다. 더 쾌적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G의 경우 임대아파트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지만 가족들이 살기엔 좁아서 더 쾌적한 공간이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일단 떠나야 할 집이긴 해요. 삼십 년 이미 넘은 집이고, 빌라인데 주거가 되긴 되는데 평수가 그렇게 넓지 않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그렇게 좁지도 않지만 그렇게 넓지도 않아서 조금 더 넓고 쾌적한 그런 거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G)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농어촌 지역의 공실이 된 주택을 개조해서 청년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P)과, LH에서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과

정에서 청년에 대한 주택 배당이 확대되는 방안이었다. 해당 방안들의 정책화 가능성에 앞서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주택 구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청년들에게 주거지원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복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쨌든 사업이 아니라 지방에서 살고자 하는 청년들도 되게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래서 시골집이나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살 수 있는 뭐 이런 주거지원 있으면 개인적으로 좋을 거 같아요. (P)

3) 소득지원

주거지원에 대해 참여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과는 달리 청년에 대한 보편적 소득지원정책과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아동기 빈곤을 포함한 불리 경험을 하였음을 고려할 때 소득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것을 예상한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먼저, 참여자 K는 서울시의 청년 수당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서비스 지원보다는 직접 소득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서울에 6개월 동안 50만 원 준다는 거는. 그 돈으로 일단 먹고살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거 살 수도 있고 그 돈 모아 가지고 자격증 시험 학원 가 가지고 자격증 공부... 학원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딸 수도 있고.... (K)

이와는 달리 E, L, I는 직접 소득이전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소득지원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유혹들'(L) 때문이었다. 직접 소득지원을 하기보다 수강료 할인이

나 바우처 지원 등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논의 내용을 토대로 무엇이 더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기 누적 불리의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심층면접 한 결과 이들이 예상과는 달리 직접 소득이전에 대해 일치되지 않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과 우려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보인다.

청년들 고생했어 하면서 돈을 주는 건데 사실 국고를 그렇게 쓸 건 아닌 거 같아요. 너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E)

어려운 청년들한테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기는 참 그런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유혹들도 많고,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지출이 될 지도 모르니까. 근데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좀 큰 학원들이 있으면 거기에 수강료 같은 거를 할인을 해서 다닐 수 있다든지 그런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바우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L)

4) 일자리지원

청년에 대한 일자리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D, J는 일자리의 질 그 자체보다는 당장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부족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기에 아르바이트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랐으며, 그 과정에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랐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저도 아르바이트 구하는데 좀 오래 걸렸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시스템이 아르바이트 말고 직원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자리를 구하는 압박감 없애 주면 좋겠어요. (D)

국가 근로 그것도 학생들이 잘 몰라요. 학교 내에서 하는 근로도 모르고. 그래서 그 정보를 좀 알려 주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꿈드림 같은 기관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서 구하는 알바들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시청 알바만 해도 그 시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갑자기 알바OO에 뜬 다든가 이런 식으로 모집이 되거든요. 그게 좀 열악하지 않나...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게 좀 필요하다고....

(J)

E는 현재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이러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청년 인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만족한다고 하였다. 가장 큰 이유로 사무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이었다. 기존에 그가 했던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에 비해 괜찮은 일처럼 여겨졌으며, ‘전문적’이며 ‘소속된 느낌’을 주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가 단기 사업이기 때문에 정규적인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거 같은데 근데 이게(청년일자리사업)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정규직 전환으로의) 길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일해 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중략)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거 같고 그게 되게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 (E)

H는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데, 정규직 전환을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시험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 자체가 피로감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가 바라는 청년 일자리지원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적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시험을 봐야 돼요, 자리가 나면. 근데 여기도 듣기로는 잘 안 뽑으려고…… 비정규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 하면 좀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공무원들이랑 일을 하는데 그들도 익숙해질 때쯤이면 저는 이제 가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계속 바뀌고 하면 그 업무가 이어지질 못하니까 그런 거 따졌을 때도 정규직을 뽑는 게 좋은데……. (H)

5) 건강지원

건강지원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L은 용돈을 아끼기 위해 하루 한 끼를 먹으며 지낸 적도 있었는데 당시 건강이 손상되었다고 한다.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청년에 대한 식사 지원 등도 필요하다는 제안이었다. 아울러, N은 정신건강 서비스 역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고도로 전문적인 치료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해 줄 수 있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상담 서비스가 있다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굶고 공부하는 애들도 많고 라면 하나 먹고 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돈 아낀다고... (중략)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 수 있겠다 했는데 참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안 좋더라고요. 면역력도 완전히 떨어지고 체중도 막 빠지고 잘 아파요, 자주.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는 좀 챙겨 먹는 습관이라서 조금씩 뭘 자꾸 챙겨 먹기는 하는데 식비나 이런 부분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L)

심리적인 지원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내 얘기를 들어 주고 그거에 조금 공감을 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되게 크더라고요. (N)

6) 생활지원(법률, 금융 등)

자립 이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에 금융이나 법률 등과 같은 생활지원 서비스가 필요함도 제기되었다. I는 청년통장 등과 같이 자신의 의지

로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의지가 약하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원천 소득공제 방식의 적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실현 가능성을 넘어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위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음을 고려할 때 목돈 마련 상담이나 지원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N은 자신이 살던 원룸에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복지기관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도움은 보상금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의 문제였다고 한다. 경험이 있는 어른과의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청년의 경우 법률적 문제나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통장 이런 거는 자기 의지로 저금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은 깨져 버리는 거고. 차라리 정해진 만큼 떼면은 그래도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을 하는 거니까. 나는 의지가 약하니까 나한테 매달 이렇게 전세금 얼마씩 빼 가지고 가라고 신청을 하면은 그게 조금씩 결국엔 내 돈 되는 거니까 그게 나올 거 같아요. 중간 해지를 하면은 지금까지 냈던 돈을 받을 수 있게.... (I)

OO에서 준 보증금으로 사는 원룸이었는데 크게 불이 한 번 났었는데 그 소방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지금 나이는 어른이지만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잖아요.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덜컥 겁이 나는데 부를 수 있는 어른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복지센터, 주임님한테 연락을 드려 가지고 주임님이 와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주임님이 없고 청사진이 없었으면 그 사고에 대한 그 보상금이나 이런 걸 다 제가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많이 했었거든요. (N)

7) 정보 제공 및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조사 참여자들은 정보 제공과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기반의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성인이 이후 청년들은 일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 등의 지원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L은 대학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학교 게시판에 붙어 있지만,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보 전달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N은 동생이 LH에서 청년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모르다가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연령 기한에 신청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해당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지원을 통해 미리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하였다. 주거지원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는 과정에서 서비스가 분절되어 있어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 게 예를 들어서 학교 게시판에 들어가서 붙는다고 하면은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학과마다 게시판이 다 있을 거고 넓게 펼쳐 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홈페이지만 올려놨다거나 학교 중앙 게시판에 붙여 놨다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다닐 일이 없는 사람들은 못 보니까 그런 걸 좀 확대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계획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L)

제 동생 같은 경우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몰라서 올해가 마지막 노선이다라고요, LH가. 제가 알려 줘서 이번에 하게 됐거든요. 그런 정보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정보를 알려 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N)

청년 네트워크 프로그램 역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P는 청년들의 인간 관계가 과거 세대와 달리 약하며 느슨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에, 더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청년들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제가 OO에 와서 친구들 만나고 관계된 친구들이 시민단체거나 사회적 기업 영역에서 일을 시작했던 친구들이었으니까 그런 도움이 되는 지점들이 많았고 그래서 만들어서 하고 지원을 받고 놓고 이렇게 만들고 책 읽고 그런 커뮤니티를 했었죠. 왜냐하면 20대 초반이 되게 괴로웠다가 다시 사람들을 만나는 시기였으니까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그 힘이. (P)

또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게시하여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사례관리와 같은 통합적 지지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O는 고등학교 생활까지 누군가 통제하다가 대학 이후 갑자기 자유로워지면서 자신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수행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도와주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물론, 이는 취약 청년만 겪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체계 속에서 대부분의 20대 초기 청년이 겪을 혼란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취약 청년의 경우 보호자로부터 자립하기 위한 사회화의 경험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갑자기 성인기 이후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져야 할 때 다시 좌절의 경험 가능성이 있기에 이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설퇴소아동과 같은 보호종료아동의 경우에는 복지지원체계가 있지만, 일반 저소득 계층의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는 매우 분절적인 것이 사실이다. N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멘토’라고 하는 일종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범위를 시설퇴소아동과 같은 보호종료아동을 넘어 다양한 청년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사례관리 방안 역시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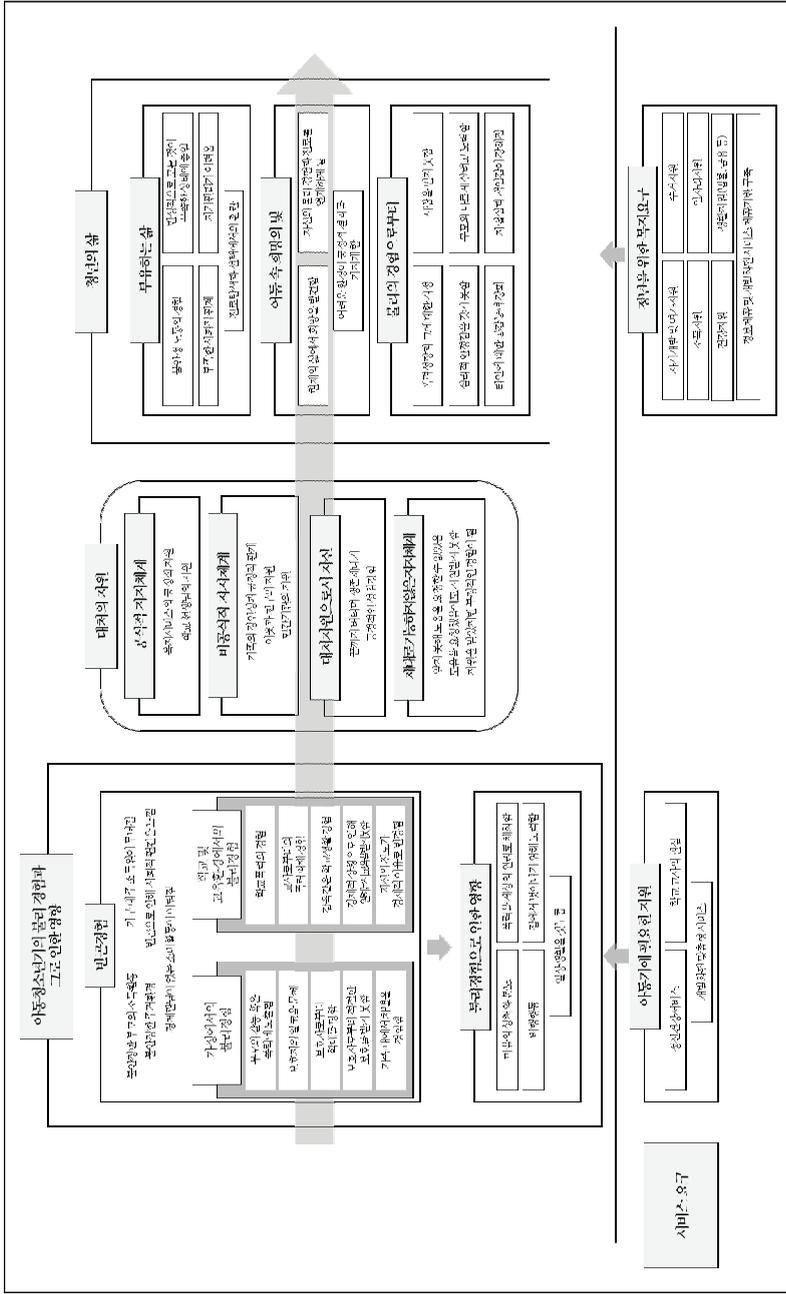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삶이 정말 많이 변하잖아요. (중략) 그 통제적인 부분이 대학교에서도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통제라는 게 이때 집에 들어가라 이런 게 아니라 교육부터 해서 대외적인 활동까지 해서 통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O)

이제 막 대학을 마쳤거나 이런 청년들이 잘 모르니까 보이스피싱도 많이 당해요. (중략)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나 근처에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이 와 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때 주임님이 안 계셨으면 당장에 생활할 수 있는 집도 짐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었을 거 같아요. (N)

제3절 소결

이 장은 생애과정에서의 불리 경험이 청년기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거 다양한 복지서비스 경험에 관한 인식은 어떠한지, 청년지원에 관한 요구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제분석 결과, 대주제는 아동청소년기의 불리 경험과 그 영향, 대처의 자원, 청년기의 삶, 서비스 요구로 분류되었다. 그 종합적인 내용은 다음 [그림 4-2-1] 및 <표 4-2-6>과 같다.

[그림 4-2-1] 생애과정 관점에서 바라본 청년의 과거 불리 경험과 대처, 현재의 삶과 서비스 요구



〈표 4-2-6〉 질적 연구 분석 결과

대주제	소주제	개념
과거의 불리 경험과 그 영향	빈곤 경험	부모의 불안정한 소득활동
		가구 내 주 소득원이 무너지짐
		불안정한 주거 공간
		빈곤으로 인해 사회적 편견을 느낌
		경제관념이 없는 소비활동이 이뤄짐
	가정에서의 불리 경험	부모의 갈등 혹은 폭력에 노출됨
		보호자의 알코올 문제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당함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함
		가족 내에서 차별을 경험함
	학교 및 교육환경에서의 불리 경험	학교폭력 경험
		교사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감옥 같은 학교생활 경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원하는 사교육을 받지 못함
		자신의 진로가 경제적 이유로 변경됨
	불리 경험으로 인한 영향	마음의 상처와 분노
폭력을 세상의 원리로 체화함		
비행행동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함		
일상생활을 짓누름		
대처의 자원	공식적 지지체계	복지서비스의 긍정적 지원
		학교 선생님의 지원
	비공식적 지지체계	가족의 강인성과 긍정적 관계
		이웃과 친구의 지원
		민간 기관의 지원
	대처자원으로서 자신	끝까지 버티며 생존해 내기
		긍정적인 성취 경험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지지체계	알지 못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지원받지 못함
		지원을 받았지만 부정적인 경험이 됨

대주제	소주제	개념
청년기의 삶	부유하는 삶	불안정 노동의 경험
		만성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 놓임
		부족한 사회적 관계
		자기관리가 어려움
		진로 탐색과 선택에서의 혼란
	어둠 속 희망이 빛	현재의 삶에서 희망을 발견함
		자신의 불리 경험과 진로를 연계하게 됨
		어려운 환경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옴
	불리의 경험으로부터	폭력 성향과 그에 대한 걱정
		사람을 믿지 못함
		심리적 안정감을 갖지 못함
		부모와 다르게 살려고 노력함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강화
	자립심과 책임감이 강해짐	
	서비스 요구	아동기에 필요한 지원
학교 교사의 관심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청년을 위한 복지 요구		자기개발 및 여가지원
		주거지원
		소득지원
		일자리지원
		건강지원
		생활지원(법률, 금융 등)
		정보 제공 및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먼저 아동청소년기의 불리 경험은 크게 빈곤 경험, 가정에서의 불리 경험, 학교 및 교육환경에서의 불리 경험, 불리 경험으로 인한 영향으로 범주화되었다. 빈곤 경험에서는 부모의 불안정한 소득활동, 가구 내 소득원이 무너지짐, 불안정한 주거 공간, 빈곤으로 인해 사회적 편견을 느낌, 경제관념이 없는 소비활동이 이뤄짐 등의 개념이 확인되었다. 부모의 불안정한 소득활동은 빈곤의 가장 큰 요인이었고, 가구 내 소득원의 건강 상실

이나 사망, 수감과 실직이나 산재 등에 이르는 경우 빈곤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빈곤으로 인해 불안정한 주거공간에서 삶이 영위되었으며 빈곤 경험은 사회적 편견을 늘 인식하는 삶으로 작용하였다. 혹은 부모의 소득활동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부모의 음주, 도박, 낭비벽 등의 소비활동의 문제로 빈곤한 상태에 처하기도 하였다. 빈곤 경험과 더불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정에서의 불리 경험에서는 부모의 갈등 혹은 폭력에 노출됨, 보호자의 알코올 문제,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당함,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함, 가족 내에서 차별을 경험함 등의 개념이 확인되었다. 아동청소년기에 부모의 갈등과 폭력, 특히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다. 부모의 부부폭력은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참여자들도 보호자로부터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등을 경험하였다. 또한 정서, 신체 폭력 피해 외에도 필요한 돌봄을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으며, 재혼가정에서는 다른 자녀와 차별받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학교 및 교육환경에서의 불리 경험에서는 학교폭력 경험, 교사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감옥 같은 학교생활 경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원하는 사교육을 받지 못함, 자신의 진로가 경제적 이유로 변경됨 등의 개념이 확인되었다. 학교에서 교사와 또래로부터 폭력과 따돌림, 멸시를 경험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은 감옥처럼 힘들게 여겨졌다. 빈곤은 이들이 원하는 사교육을 받기 어렵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들에게 단순히 학교교육 이외의 부가적인 요구를 넘어 또래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차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경제적 상황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로를 바꾸게 하였고, 대학 진학 선택의 폭을 축소하는 것으로 작용하였다. 불리 경험으로 인한 영향에서는 마음의 상처와 분노, 폭력을 세상의 원리로 체화함, 비행행동,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함, 일상생활을 짓누름 등의 개념이

확인되었다. 아동청소년기의 불리 경험은 참여자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크게는 마음의 상처와 분노, 폭력을 세상의 원리로 체화하는 등의 내재화 양상이 있었는가 하면, 비행행동이나 집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외현되기도 하였다. 혹은 이들의 일상을 짓누르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의 자원은 공식적 지지체계, 비공식적 지지체계, 대처자원으로서 자신,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지지체계로 범주화되었다. 공식적 지지체계에서는 복지서비스의 긍정적 지원, 학교 선생님의 지원 등의 개념이 확인되었다. 공식적인 지지체계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나 기관 사업을 통해 개입하는 것과 학교 선생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며, 생계급여, 교육비 지원, 주거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나 학교 담임선생님들의 심리적 지원 등도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적 지지체계에서는 가족의 강인성과 긍정적 관계, 이웃과 친구의 지원, 민간 기관의 지원 등의 개념이 확인되었다. 비공식적인 지지체계에서는 아동기에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지원,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서 공감과 지지를 제공해 주었던 이웃과 친구,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해 주었던 민간 교육기관이나 민간 재단, 종교기관 등이 중요한 지지체계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처자원으로서 자신에서는 끝까지 버티며 생존해 내기, 긍정적인 성취 경험 등의 개념이 확인되었다. 공식적 지지체계와 비공식적인 지지체계 이외에도 어려운 환경과 불리의 경험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인내심과 의지, 노력 끝에서 맞보는 성취의 경험을 가진 자신의 힘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지지체계에서는 알지 못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지원받지 못함, 지원을 받았지만 부정적인

경험이 됨 등의 개념이 확인되었다. 모든 참여자들이 공식적, 비공식적, 자신 등의 다양한 대처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대처자원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도움을 요청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혹은 지원을 받았지만 그 경험이 부정적이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대처자원의 수준에 상관없이 자원이 제대로 제공된 경우 아동기의 불리 경험과 힘겨운 삶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그러지 못한 경우 불리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힘든 삶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청년기의 삶은 부유하는 삶, 어둠 속 희망의 빛, 불리의 경험으로부터 로 범주화되었다. 부유하는 삶에서는 불안정 노동의 경험, 만성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 놓임, 부족한 사회적 관계, 자기관리가 어려움, 진로 탐색과 선택에서의 혼란 등의 개념이 확인되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경제적 빈곤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결핍으로 연결되어 고립된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청년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시간, 경제, 생활관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이가 들었지만 진로 탐색과 선택에서 혼란스럽고 자신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둠 속 희망의 빛에서는 현재의 삶에서 희망을 발견함, 자신의 불리 경험과 진로를 연계하게 됨, 어려운 환경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옴 등의 개념이 확인되었다. 청년들은 부유하는 삶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있었다. 맡겨진 일과 관계 속에서 새로운 진로를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불리의 경험 안에서 적성을 발견하여 진로로 발전시키기도 하였

으며, 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오히려 자율성을 발전시키는 등 결핍을 딛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불리의 경험으로부터에서는 폭력 성향과 그에 대한 걱정, 사람을 믿지 못함, 심리적 안정감을 갖지 못함, 자립심과 책임감이 강해짐,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강화 등의 개념이 확인되었다. 청년들은 아동기의 불리 경험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 피해를 입었던 청년들은 자신도 폭력적인 성향을 학습하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으며,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한 경험으로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인정에 대한 지나친 욕구나 공감능력 부족, 소심한 성격 등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러 불리를 경험했지만 오히려 자립심과 책임감이 강해지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지지체계들이 대처자원으로 충분히 기능해 주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요구는 아동기에 필요한 지원과 청년을 위한 복지 요구로 범주화되었다. 아동기에 필요한 지원에서는 부모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학교 교사의 관심,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등의 개념이 확인되었다. 아동기에 부모의 알코올 문제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자신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모에 대한 건강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학교가 아동기에 완충의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학교, 특히 교사의 관심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획일성과 분절성, 복잡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다. 청년을 위한 복지 요구에서는 자기개발 및 여가지원, 주거지원, 소득지원, 일자리지

원, 건강지원, 생활지원(법률, 금융 등), 정보 제공 및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등의 개념이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청년기에 자기개발과 여가지원을 가장 중요한 복지 요구로 꼽았다. 이는 아동청소년기에 다양한 자기 탐색의 기회가 부족했기에 유예되었던 정체성 수립과 진로설계를 청년기에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평생직장이라는 것이 사라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청년들에게 자기개발 기회와 여가를 지원하는 것은 이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주거지원 역시 다수의 참여자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항목이었다. 더 쾌적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청년들에게 주거지원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복지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청년에 대한 보편적 소득지원정책과 방식에 대해서는 참여자들 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서비스 지원보다는 직접 소득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직접 소득이전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수강료 할인이나 바우처 지원 등이 더 효과적인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와 그 과정에서 정보 접근의 용이성 확대 그리고 청년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건강지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청년에게 식사 지원 등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정신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생활지원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위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경험이 있는 어른과의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청년의 경우 법률적 문제나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고려하여 금융이나 법률 등과 같은 생활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정보 제공과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기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인기 이후 청년들은 일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 등의 지원이 분절되어 있어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서비스 이용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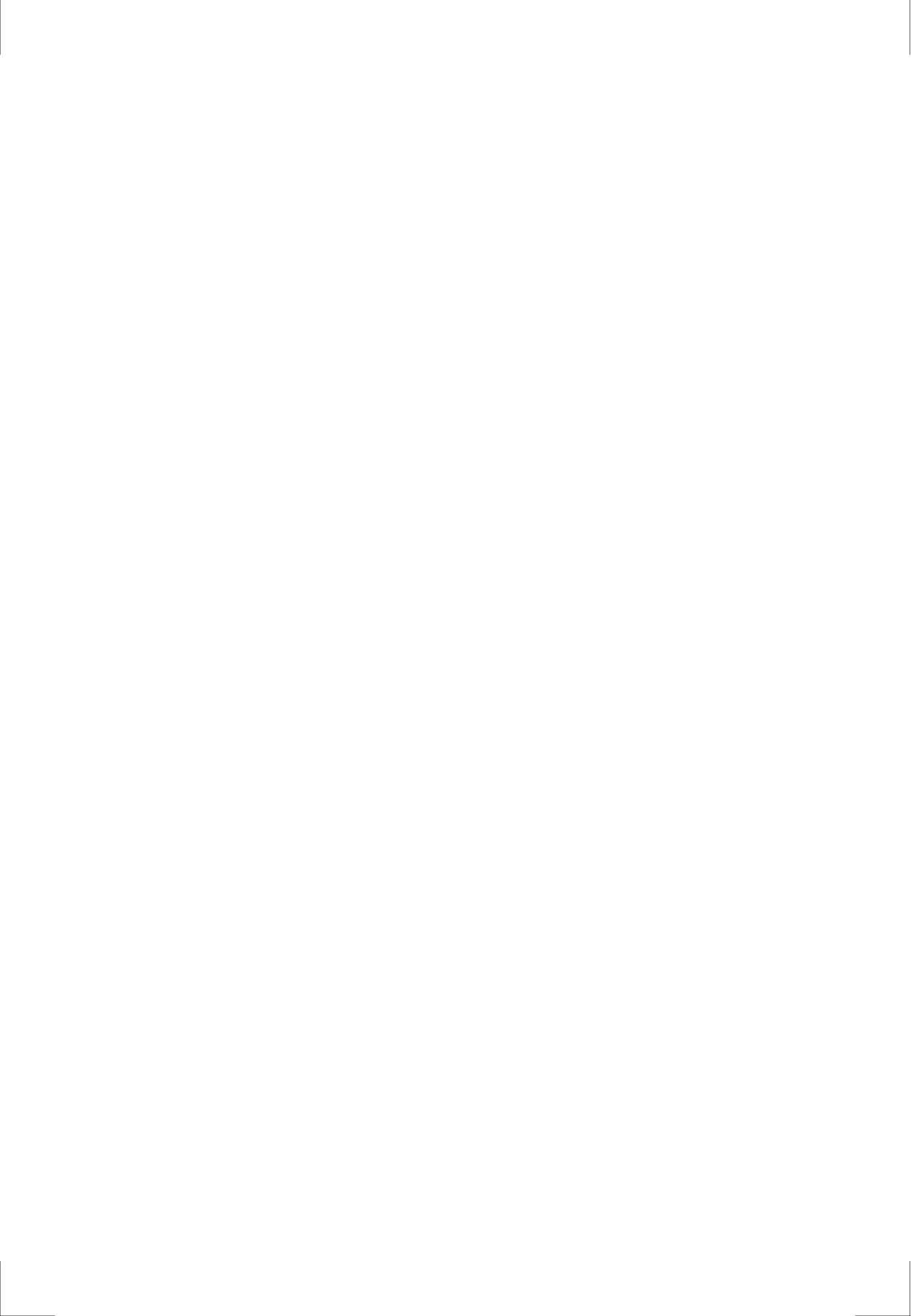


제 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제2절 정책 제언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많은 연구들은 대체로 삶의 특정 단면에 관심을 둔다. 그러나 삶의 본질은 복잡성과 총체성 그 자체에 있다. 그 나뭇가지의 정책적 목적을 지닌 소득보장과 일자리 대책,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각 영역과 부처에서 설계하는 제도들이 삶의 본질을 아울러 꿰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과업은 총체적 관점에서 삶을 이해하려는 시도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의 역할을 찾는 것이다. 청년은 이러한 과업이 필요한 대표적 대상이다. 청년은 이행기에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세대보다도 삶의 복잡성 자체에 직면해 있는데, 그 복잡성이 정책적 정체성 도출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배경하에 본 연구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청년의 삶을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오늘날 청년의 어려움은 현재의 격차와 미래의 불확실성, 즉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미래와 내가 겪는 어려움이 모두 다 겪는 어려움은 아니라는 현실에 기인한다. 청년들이 처한 상황은 격차가 큰 보상 속에서의 희소성에 대한 욕구, 즉 풍요의 역설과 지위 경쟁에 따른 상호 간의 분노(자크 아탈리, 2018)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청년정책은 단기적 취업 성과를 강조한 고용정책에 머물러 있으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과 교육, 주거 정책은 적용 대상과 충분성에서, 건강 정

책은 사업 범위에서 보장성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정책 연구에서는 탈산업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은 당장의 고용촉진이 아닌, 삶 전반에서 만족과 행복을 향유하게 하는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청년정책은 새로운 생산과 분배 체제를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청년정책은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되, 그 내용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통해 짜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청년정책은 청년이 가족 배경이나 불리 경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청년이 혼자서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개인 중심의 수급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적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청년정책은 입체적 차원에서 설계되어야 함을 보여 주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후기의 빈곤 경험에 따라 학력 차이가 뚜렷하였는데, 이는 청소년 후기가 학력을 결정하는 민감 시기(sensitive period)임을 시사한다. 그러한 점에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처해진 빈곤으로 인한 학력 격차 문제는 청년기 이전부터 개입이 필요하며, 청년기 교육 정책은 처해진 가구의 상황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나 선택과 상관없이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하지 못한 청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영역에서는 청년기의 지속빈곤 경험은 비경활 상태와 연관성이 확인되어, 청년기의 지속빈곤과 비경활 간의 인과관계를 더 정교하게 파악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지속빈곤으로 인한 비경활 상태, 특히 저활력, 구직 포기 청년, 근로능력이 없는 청년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청년의 1차 소득은 불리 경험에 따른 격차가 가장 뚜렷하였다. 이른바 ‘수저의 대물림’, 사회 계층의 공고화 현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전 시기의 빈곤 기간이 길수록 청년의 소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가구와 취약가구 청년들의 소득보장,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논의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불리의 경험은 청년의 우울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빈곤과 가구주 실업, 불안정한 주거 경험에 따라 청년의 우울 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의 우울감이 심각한 수준의 우울이나 저활력, 무기력, 자살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 차원의 개입을 모색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빈곤과 가구주 실업에 대한 대책, 주거안정의 중요성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은 청년과 중장년의 경제적 측면의 손실과 삶의 질 저하를 가장 크게 야기한다는 점(Murray, Lopez, 1996)에서 정책적 차원의 개입은 더욱 절실하다.

질적 연구에서는 청년의 생애과정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청년의 삶은 흘러온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가족을 비롯한 학교, 지역사회 및 공적 지원체제와 상호작용 하며 형성되고 있었고, 상호작용의 양상과 개인의 선택에 따라 유사한 환경에 놓여 있던 청년의 삶이 상이성을 띠었다. 또한, 양적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과거의 불리 경험은 청년기의 삶과 연관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누적된 불리 경험은 청년의 삶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편견을 느끼며 뿌리내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지 못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도움을 요청해도 지원받지 못했으며, 지원을 받았지만 상처로 남은 지원체제의 경험은 불안정 노동과 부족한 사회관계 속에서 만성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 놓이는, 부유하는 청년의 삶으로 이어졌다. 생애과정에서 적절히 작동하지 못한 사회안전망은 각종 폭력에 노출되게 하였고 청년은 그로 인한 외상을 아로새기게 됨을 확인한 것이다.

청년들은 아동기와 청년기를 아울러 일상을 기반으로 한 각 영역의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가 필요하며, 청년기에는 자기 탐색과 개발, 여가지원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청년들 삶의 패러다임이 이미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질적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의 소득보장에 대한 의견은 동질적이지 않았다. 이는 김영미(201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이 여러 통로로 수렴될 수 있는 당사자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견의 수렴은 정책의 필요성 유무가 아닌 설계의 차원, 즉 정교성에 대한 검토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불리 경험에 적절히 그리고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공적 지원체계는, 스스로 원했으며 장기적 차원에서 더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길 앞에서 당장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던 길을 그만두거나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청년들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났다. 상황에 의해 막다른 길로 내몰린 청년들의 삶은 부지불식간에 우리 사회가 가정하고, 요구하고 있는 청년의 모습과 괴리되어 있었다. 쉽게도 언급되는 4차 산업혁명이나 혁신은커녕 생의 경험들은 쌓이지 못하고 흩어지고 있었으며, 현실과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는 청년의 삶은 오늘날 청년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정책 연구와 양적 연구, 질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바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제2절에서는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아울러 더 큰 틀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논의한다.

[그림 5-1-1] 정책,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청년정책 구축 방향

정책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삶의 패러다임 변화가 반영된 삶의 기본권 보장 • 교육, 보육, 훈련, 주거 부문의 공공서비스 확대 • 청년의 참여가 보장된 거버넌스 구조 확립 • 개인 중심의 수급권 확대
양적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 시점과 주요 사안을 고려한 영역별 정책의 입체적 설계 • 예방 및 현재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대책 수립 • 지속적 빈곤에 놓여 있는 비경험 청년에 대한 생활안정방안 강구
질적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을 기반으로 한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 • 자기 탐색과 개발, 여가지원의 필요성 • 당사자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확립 • 공적 지원체계의 책임성 강화

제2절 정책 제언

1. 수요자 중심의 공적 지원체계 역할 재편과 책임성 강화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는 정책이 수요자의 삶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용자 중심 담론은 권한과 공급구조 재편 담론을 넘어 책임성 강화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의 삶 속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공적 지원체계는 현실과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는 청년의 삶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오늘날의 청년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해 공적 지원체계에 이르는 경로가 개인 삶을 구성하고 있는 체계 간 상호작용의 지점임을 발견하였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함의를 준다.

첫째, 책임성 강화를 위해 현재의 제도 구조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다. 많은 연구들과 논의들에서 무수히 강조되어 왔던 정책 전달 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오랫동안 이야기 되어 왔으나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신청주의에 기반을 둔 제도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나 책임 소재의 문제, 신청과 지원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 그리고 생의 이른 시기에서 이를 경험하게 되는 대상들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권리에 대한 인식이 미처 자리 잡지 못한 생의 이른 시점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놓치게 된 경험이나, 불편하고 부정적이었던 공적 지원의 수급 경험은 그 이후의 삶의 궤적에서 또 다른 위협의 사각지대나 배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적 지원체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가 요구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자녀를 둔 가정과 근로빈곤청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와 관련된 논의가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확대되어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 불평등 해소 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공적 지원체계 및 이용자가 지원체계 내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체계들, 예를 들어 학교,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이 이러한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체계 간 교류를 어떻게 실질화하고 공식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학교 교사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간의 의사소통 구조를 확보하고 연계·협력의 장을 마련하며 확대해 나가는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체계 간 상호작용의 유의성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조적 차원을 넘어 내용적 차원에서 확보될 때 나타날 수 있으며, 청년을 위한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는 청년기 이전의 단계에서부터 모색되어야 하고, 전체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함께 고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연구는 공적, 사적 지

원체계가 우연히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에 공적 지원을 작동시킬 수 있는 지점들이 형성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장을 더 많이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부터 어른까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1인 중심의 생활이 확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정책의 영역은 상호작용의 접점을 넓혀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효율적이고 편리할 수 있는 생활 방식 이면에는 개인이나 가족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 만일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이야기했더라면, 우연히 어딘가와 한 번이라도 닿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소통과 연결의 부재로, 구축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 내로 들어오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공공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책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도출되었듯 청년과 청년이 연결될 수 있으며,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관계의 형성과 공동체 및 거버넌스 구축 노력은 더 적극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 정책형성과정에 참여 하였던 기성세대의 역할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변화가 반영된 정책 환경과 공론의 장을 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주고 조력하는 데 머물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관계망 지원 사업, 마음건강지원 사업, 활동 경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이용 청년의 확대 그리고 장·단기적으로 더 큰 긍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 작업들이 추가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2.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의 구체성, 정교성 제고

청년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논의 중 하나는 청년의 다양성

이다. 그러나 다양성 담론에 비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부족했고, 특히 다양성에 따른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로 일자리에 치중한 청년정책 실태가 이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청년은 크게 청년기 이전과 청년기의 불리 경험과 사회경제적 배경, 청년기 내에서의 시기, 영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 양적 연구에 따르면 청년 전기와 청년 중기 문제의 원인과 양상은 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년 전기는 아동기 빈곤 경험이나 주거 불안정 경험을 경험한 경우 학력이 낮고 우울 수준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우울 수준이 높은 청년 중기의 경우 아동기 경험에 대한 자료 부재로 정확한 추론은 어려우나 이행을 거치면서 정신건강과 연관이 있는 다른 주요 요인들의 개입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19~24세 청년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25~29세 청년층은 빈곤 위기 집단이며, 30~34세의 청년은 비교적 빈곤율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가구 형태상으로는 1인 가구나 조부모, 기타 동거 가구와 생활하거나 청년으로 구성된 경우 빈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김태완, 최준영, 2017).

영역에 따른 다양성을 고려할 때는 시기에 따른 다양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의 경우, 자기 탐색이 필요한 청년,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 자기 탐색은 끝났지만 원하는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한 청년,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내부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 등으로 다양성이 매우 크며, 각 집단은 각기 다른 세부 지원정책이 필요한 대상이다. 이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과도 맞닿아 있다. 일과 관련된 세분화된 청년지원정책의 필요성은 질적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청년들은 직업훈련이 기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자기개발, 탐색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제2장에서도 니트 청년은 안정적 일자리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고등교육 졸업자가 있는 반면, 낮은 가구소득과 취업 경험이 없는, 다시 말해 사회경제적 배경이 취약한 청년이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청소년과 중년의 사이에 위치한 개인은 청년이라는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정책적 개입을 요하는 대상들이다. 그러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정책들은 정책 대상 중심이 아닌 취업률, 실업률과 같은 거시 지표 개선을 목표로 설계된 경우가 많다. 특히 노동 정책에서는 정형화된 틀을 상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청년정책 설계에서 이질적 청년을 고려하는 접근, 즉 정책의 구체성과 정교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로 들어오기 힘든 배제된 청년들의 문제를 밝히고, 이 청년들을 청년정책 내로 유입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경험치의 차이로 발생하는 사회 및 문화 자본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탐색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김문길, 기현주, 김유빈, 김지경(2019)이 제안한 소득 및 일자리의 연계·결합지원방식이나 기회균등 보장 정책으로서의 사회출발 자본의 고려는 청년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단, 정책의 효과성은 세밀한 설계와 공급량의 충분성이 담보될 때 확보될 수 있음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예산 확보 및 편성 방안 또한 정책 방향의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담겨야 할 것이다.

정책 연구와 질적 연구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함을 도출한 바 있다. 전국에서 선정된 17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2019년 현재 신체건강(운동치료, 식생활 개선, 체질 개선, 기타)과 정신건강(정서·심리지원 프로그램, 우울·불안·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중독

예방 프로그램, 기타)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 확인되었듯 청년들이 원하는 지원의 내용은 신체 및 정신건강 영역 이외에도 여가, 생활지원(법률, 금융), 네트워킹 등 다양하다.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공급이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단, 개발 과정에서 서비스 질의 담보와 서비스별 수급 대상, 공급 방법(주체), 인력의 전문성 및 일자리 안정성 제고 등이 반드시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보장체계와 청년지원정책의 보장성 및 정합성 검토

최근 몇 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왔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는 청년을 표적화하지는 않았으나 청년을 포괄하는 제도들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이 제도 내외 제도 간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보장성과 정합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생애과정 관점의 수요자 중심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을 거쳐 청년기까지 사회보장제도와 청년지원정책들이 보장성의 측면에서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분절 지점은 어디인지, 적용 대상과 지원의 충분성은 어떠한지, 또 정책의 내용과 다양성의 범위는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년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취약한 청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보장 및 중앙,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 지원 보장성 검토는 청년정책 방향성 수립 및 내실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특히 다음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요청된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청년기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즉 기존 사회보장제도들의 연속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의 청년 수급 가구의 사각지대 문제, 만 30세 미만의 수급 가구 청년의 주거 문제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앞서 논의되었듯,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청년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궁극적으로 탈수급을 전제로 하는데, 이 제도가 수급 청년의 삶에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수급 가구 청년이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일자리를 찾게 되는 상황, 수급 가구의 30세 미만 청년의 주거 문제(박현정, 2019a)의 제기는 취약계층 청년들이 다양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추정케 하며, 또, 청년 빈곤율(5~8%)과 전체 청년 대비 청년 수급자 비율(1%대)을 비교하면,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 청년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김태완, 최준영, 2017). 이에,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와 주거지원, 자산 형성 지원이 생애의 차원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5-2-1〉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위한 지원

근로소득공제	근로인센티브	자립지원
만 18~24세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만 15~39세의 청년	만 18~34세
근로소득 중 월 4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청년 총소득 - 341,401원] × 63%(장려율)	취업 후 가족과 동거 유지 시 소득 재산 분리 기간 연장(고교 졸업 후 7년, 대학 졸업 후 5년)
부양 부담 경감	학비 대출 지원	취업 우선 지원
만 18~34세	만 18~34세	조건부 수급자 전체
월 소득 258만 원 이하인 청년 1인가구주에 대한 부양비 면제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에 의뢰

자료: 보건복지부. (2019b).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와 온라인 청년센터. (2019c). <https://www.youthcenter.go.kr> 에서 2019. 9. 2. 인출, 참고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주거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는 수급 가구의 20대 미혼 청년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담길 계획임에 따라(박현정, 2019b), 어느 정도의 제도 보완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의 구체화 방안과 실효성 및 보장 범위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장제도와 청년지원제도 관계 분석이다.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청년과 같이 현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생활방식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 사회보장제도와 청년지원제도가 상호 간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지, 또 주무부처에 따라 상이한 자격 기준이, 지원해야 할 청년들을 어느 정도 포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청년지원제도 보장성 검토가 필요하다. 지자체에 따라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제도들이 신설되고 있으나 영역별 분포와 급여 형태, 포괄성, 타 제도와의 관계, 선정기준과 급여의 적정성, 제도 간 상호보완성을 분석하여 청년정책의 지형을 확인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현재의 청년지원정책들이 자기 탐색, 일, 주거, 경제, 건강, 사회 참여, 문화 등 어느 영역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치우침은 없는지, 제도 목적과 급여 형태는 적합한지, 제도 내에서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배제된 집단은 없는지, 중앙과 지방의 청년지원의 역할 분담은 설계와 현실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지원은 어느 지역 단위에서 고민되어야 할지에 대한 검토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상자 선정을 위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 근로자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나 지역 간 인프라 차이에 따른 자기 탐색 및 구직과정의 추가 비용 발생 지원이 어느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정책의 추진 원칙 및 전략으로서, 사회보장체계의 포용성 강화와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9b).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내에서의 청년기에 대한 고려, 사회보장제도와 청년지원제도 관계 분석,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청년지원제도 보장성 검토는 사회보장체계의 포용성 강화와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 강화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즉, 청년정책은 전체 사회보장의 관점과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청년정책을 위해서도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해서도 사회보장체계와 청년지원정책의 보장성 및 정합성 검토는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5-2-2〉 사회보장정책의 추진 원칙 및 전략

구분	내용
사회보장체계의 포용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성 -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 보편성 - 소득·자산조사가 아닌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수당과 사회 서비스 도입 및 강화로 보편적 서비스 이용 확대 • 공정성 - 고용·교육·성별 격차 해소를 통해 공평한 기회를 보장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 영역별·대상별로 분절 또는 중복 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 체계 강화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효율성 향상 • 추진체계 - 부처 간 사업 조정·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강화 -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처 간 정책조정기능 강화,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지방 협업체계 강화, 사회보장 종합 평가체계 고도화

구분	내용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 공급자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보장 이용체계를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연계된 통합적 이용체계로 재정립 - 돌봄 서비스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를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과 혁신의 관계 - 포용적 사회보장, 혁신능력 제고, 포용과 혁신의 선순환 • 국가와 개인의 관계 - 기본생활보장 - 공정한 기회 부여 - 혁신의 주체로서 개인의 역할 강화

자료: 보건복지부(2019c),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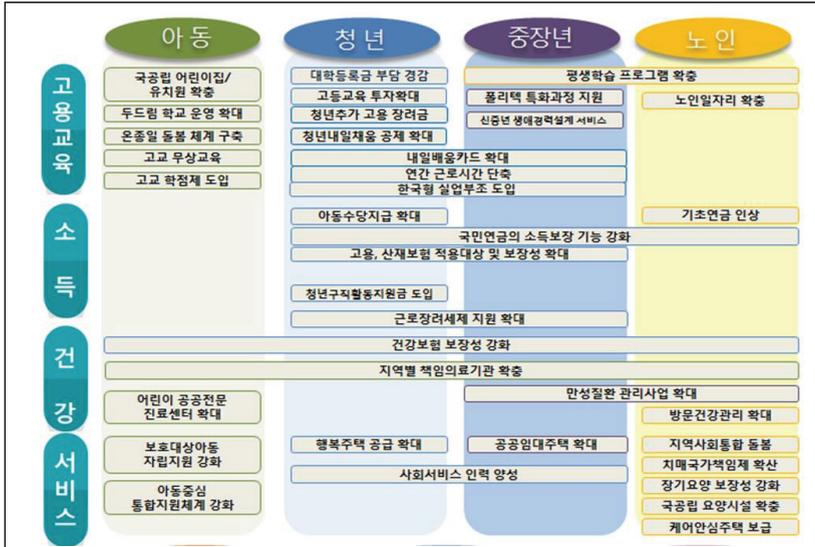
4. 청년층 특성을 반영한 청년 보장 지표의 개발과 모니터링 수행

현재의 청년정책은 청년층 특성이 반영된 추진 목표가 부재하다. 지원 제도별 목표는 존재하지만 그 목표들은 여전히 기존의 빈곤, 기존의 고용, 기존의 주거 틀에서 논의되다 보니 청년의 빈곤, 청년의 어려움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청년의 불리 경험과 그 영향 또한 기존 지표로 잡히기 어려운 청년의 일, 건강 문제를 보여 준다.

예컨대 근로빈곤의 경우, 기존의 근로빈곤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는 청년 노동자의 빈곤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근로빈곤은 개인 단위의 근로와 가구 단위의 빈곤으로 측정되며, 근로는 연령, 근로기간, 근로능력의 기준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비경활 인구가 많고 학업과 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 고용안전망이 불충분한 여건 속에서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 여건상 여러 개의 초단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주된 일자리의 정의가 어려운 상황들은 기존의 근로빈곤 틀 안에서는 고려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청년의 근로빈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청년층의 소득과 노동 특성을 고려한 청년 근로빈곤에 대한 측정과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청년은 생애주기상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로 여겨 지지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청년의 만성질환, 근골격계 및 소화계 질환, 정신건강 문제는 청년 건강을 바라보는 시각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쟁의 심화, 의료화 가설, 생활방식의 변화 등 원인과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원인 파악과 지원 방안 모색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은 부족하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배제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조사와 같이 가구를 조사 단위로 할 경우, 청년의 배제 문제는 제대로 드러나기가 어렵다. 주거 박탈의 경우, 가구 단위와 실제 거주 형태가 상이할 수 있는 청년층은 기존 가구 단위의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주거 정책 대상의 과소추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최근 제기 되는 안전의 문제는 고려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소득, 자산, 지출 또한 가구 단위로 파악된 자료로는 청년의 경제문제에 대한 파악과 개입은 물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림 5-2-1]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과제



자료: 보건복지부(2019b).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수요자 중심 청년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특성이 반영된 청년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에 근거하여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생애주기별, 대상별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도 요청된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요 정책과제는 대체로 고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그림 5-2-1] 참조), 건강과 불평등, 더 나아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한 정책과제는 담지 못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층 대상의 주요 정책과제와 지표는 청년 내 세부 연령(청년 전기, 청년 중기)과 지역, 계층에 따른 욕구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될 필요가 있으나 사회보장기본계획의 틀만으로는 이러한 세부 부분까지 고려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청년보장 지표의 개발과 모니터링은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다.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지속가능발전포털, 2019)으로 제시되는 지속가능개발의 개념은 청년 논의와 관련된 세대 간 갈등, 세대 내 갈등의 쟁점을 포함하며, 불공정 분배와 불행한 사회 해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청년 논의의 핵심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개발 목표의 17개 영역에서 빈곤퇴치,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은 청년지원의 다차원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수립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5대 전략, 17개 목표, 122개 세부 목표, 214개의 지표(환경부, 2019) 중 청년을 명시한 목표는 세부 목표 7에 해당하는 “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킨다.”가 유일하다. 생애주기별 접근은 K-SDGs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17개 영역 기반의 목표와 세부 목표 및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청년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현재 국무조정실에는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청년정책추진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한 청년지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지표 모니터링과 개선과제 수행을 위한 지원은 청년정책추진단에서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 지표 개발과 모니터링에 따른 개선과제 도출은 청년들과 청년단체 및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논의한 사회보장제도의 공적 책임성 강화, 청년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의 구체성 및 정교성 제고, 사회보장체계와 청년지원정책의 보장성 및 통합성 검토를 위한 세

부 과제를 도출하고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 또한 청년정책 추진단을 통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2-2] UN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7개 영역



자료: 환경부(2019).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참고문헌 <<

- 강찬희, 정다미. (2019). 역대 최대라는 20조 일자리 예산, “대체 누가 받나요”. 2019년 2월 19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2593&code=11151100>에서 2019. 9. 2. 인출.
- 경실련. (2019). 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 있나.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 자료집.
- 고희진, 김원진. (2019). [공공임대주택-구명뚝린 복지(1)]집이 끊지 못한 빈곤... 영구임대 100가구의 30년. 2019년 10월 4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0040600021에서 2019. 10. 14. 인출.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16). 2016 청년정책인지조사 결과.
- 고용노동부. (2019a). 2019. 7.17.(수) 파이낸셜 『청년 27.7% 첫 월급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한국경제 『청년실업은 오면...노인 일자리만 늘리는 정부』 등 다수 기사 관련 설명. 보도설명자료.
- 고용노동부. (2019b).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do>에서 2019. 9. 2. 인출.
- 고용노동부. (2019c).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do>에서 2019. 9. 2. 인출.
- 고용노동부. (2019d).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1.do>에서 2019. 9. 2. 인출.
- 고용노동부. (2019e).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2.do>에서 2019. 9. 2. 인출. 교육부. (2018). 2018. 2. 7.(수)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 고현실. (2019). 서울시 첫 청년자율예산 335억 확정... 주거·복지후생비지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1042300004>에서 2019.

10. 14. 인출

- 교육부. (2019). 2019. 9. 10.(화) 「OECD 교육지표 2019」 결과 발표.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국
토교통부.
- 관계부처합동. (2018). 청년고용촉진방안. 고용노동부.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 국토교통부. (2011). 최저주거기준 시행규칙. 공고 제2011-490호(2011. 05.27).
- 국토교통부. (2018).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 김기현. (2017a). 청년 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2월호,
54-68.
- 김기현. (2017b).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KLI패널 워킹페이퍼, 8.
- 김광혁. (2010). 빈곤이 아동의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1),
5-31.
- 김문길·기현주·김유빈·김지경. (2019). '서로를 북돋는 동등성' 기회기반 접근
의 사회안전망 정책 제안. 청년의 삶 미래를 말하다. 청년정책 새로운 좌
표 설정 토론회 자료집. 15-33.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 김문길·김태완·임완섭·정은희·김재호·안주영, ... 최준영. (2017). 청년빈곤의 다
차원적 특성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문길·이주미. (2017). 청년 고용 및 빈곤의 국제적 조망과 시사점. 보건복지포
럼, 2월호, 20-37.
- 김영미. (2018). 한국 2030세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18(5), 386-396.
- 김유빈. (2018). 청년고용의 현황 및 대응방안. 월간노동리뷰, 3월호, 9-22.
- 김지경·이윤주. (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김태완·오미애·박형준·이주미·신재동·정희선, ... 신유미. (2017). 2017년 한국
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이주미. (2018). 아동빈곤 경험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보장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자료집, 41-66
- 김태완·최준영. (2017).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 2월호. 6-19.
- 김하영. (2018). 저임금 근로자 현황. 고용동향브리프, 12월호, 18-22.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1), 179-212.
- 남재욱·김영민·한기명. (2018). 고졸 청년 노동자의 노동시장 불안정 연구. 사회복지연구, 49(1), 221-262.
-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2015). 대졸 미취업자 70% 졸업 후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2015년 5-28일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5/05/512021>에서 2019. 9. 2. 인출.
- 박현정. (2019a). 2021년부터 기초생활수급 20대 청년에 주거급여지원. 2019년 7월 31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3997.html에서 2019년 9월 2. 인출.
- 박현정. (2019b). 기초수급자라도 주거비 지원 '0'...청년들 홀로서기 버겁다. 2019년 7월 9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1028.html에서 2019. 10. 14. 인출.
- 변수정·조성호·이지혜. (2018).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9a).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 보건복지부. (2019b).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9c).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 산업통계분석시스템. (2019). 제조업 비중(국가별, 고용기준) <https://www.istans.or.kr/co/newCoTab.do?scode=C250>에서 2019. 10. 14. 인출
- 서성민·이진수·오유진·김시연·문유진·주수정. (2016). 청년세대 다차원적 불평등 연구.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 양정승. (2018). 정부의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노동정책연구,

18(1). 103-133.

오재호. (2018). 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슈 & 진단, 338, 1-26. 경기연구원.

오호영. (2017). 켄거루족 실태분석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온라인 청년센터. (2019a). <https://www.youthcenter.go.kr/jynEmpSptNew/jynEmpSptList.do>에서 2019. 9. 2. 인출.

온라인 청년센터. (2019b). <https://www.youthcenter.go.kr/jynEmpSptNew/jynEmpSptGuide.do?ygmnspeId=&srchSpnm=%EC%B2%AD%EB%85%84%EC%B7%A8%EC%97%85%EC%84%B1%EA%B3%B5%ED%8C%A8%ED%82%A4%EC%A7%80&bizId=201902270001&btnSearchTxt=%EC%B2%AD%EB%85%84%EC%B7%A8%EC%97%85%EC%84%B1%EA%B3%B5%ED%8C%A8%ED%82%A4%EC%A7%80>에서 2019. 9. 2. 인출.

온라인 청년센터. (2019c). <https://www.youthcenter.go.kr/jynEmpSptNew/jynEmpSptGuide.do?ygmnspeId=&srchSpnm=%EC%B2%AD%EB%85%84%ED%9D%AC%EB%A7%9D%ED%82%A4%EC%9B%80%ED%86%B5%EC%9E%A5&bizId=201904180001&btnSearchTxt=%EC%B2%AD%EB%85%84%ED%9D%AC%EB%A7%9D%ED%82%A4%EC%9B%80%ED%86%B5%EC%9E%A5>에서 2019. 9. 2. 인출.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세대. 레디앙미디어.

윤소하 의원 보도자료. (2017). 몸도 마음도 아픈 청년... “청년 소외된 국가건강검진 개선” 요구. 2017년 10월 12일.

윤윤규·성재민. (2011).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경로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이동수. (2019). 의대·로스쿨생 3명 중 1명은 ‘초고소득층’. 2019년 10월 7일자.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07513573>에서 2019. 10. 14. 인출.

이승윤·백승호·김미경·김윤영. (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 이은아. (2018). 청년실업률 최근 10% 상회...제조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되어야. 2018년 7월 15일자. <http://www.mtnews.net/m/view.php?idx=4032>에서 2019. 10. 14. 인출.
- 이윤주·김기현·하형성·손원빈. (2017). 청년정책 추진 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원재. (2015). 청년세대 격차문제와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필요성. 경제논집, 54(2). 471-482.
- 이종선, 전슬기. (2019). 하루 평균 37.5명 꼴 자살... 'OECD 1위' 우울한 복귀. 2019년 9월 25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99492&code=11151100>에서 2019. 10. 14. 인출.
- 이지훈, 이건혁. (2017). 년 11조 쓰는데, 청년은 체감 못하는 청년 예산. 2017년 4월 6일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406/83715194/1>에서 2019. 9. 2. 인출.
- 앤서니 기든스. (2011). 현대 사회학. 제6판. 김미숙·김용학·박길성·송호근·신광영·유홍준·정성호 옮김. 을유문화사. 서울.
- 자크 아탈리. (2018). 미래 대예측: 분노의 경제에서 변화의 경제로. 김보희 역. 세종연구원.
- 정지선·주휘정. (2015). 대졸 미취업 청년의 아르바이트와 생활 실태. KRIVET Issue Brief 2015-76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책위키. (2019). 청년지원정책.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193&pWise=mMain&pWiseMain=C1>에서 2019. 9. 2. 인출.
- 정해식·김미곤·여유진·김문길·우선희·김성아. (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Ⅲ)-사회통합 국민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김미곤·여유진·김성근·류연규·우선희·김근혜. (2018).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V)-사회갈등과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진우, 유지혜, 하준호. (2019). 고학력 부모일수록 명문대 대물림 많다. 2019년 3월 18일자. <http://news.joins.com/aticle/23413424>에서 2019. 10.

14. 인출

- 정현상. (2016).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선택요인. 한국노동연구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10대 공약,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Content03.do>에서 2019년 9월 2일 인출.
- 지속가능발전포털. (2019). <http://ncsd.go.kr/definition> 에서 2019. 10. 7. 인출.
- 채창균·양정승·김민경·송선혜.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상미·유효은·김한성. (2019). 당사자의 목소리로부터의 빈곤 청년의 삶에 대한 탐색. 사회과학연구, 26(2), 32-58.
- 최연실. (2014). 성인기 자녀의 부모 동거 연구를 위한 분석틀의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4), 75-89
- 최하예·황성수. (2019).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정책수단 유형분석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3, 75-99.
- 통계청. (2019a).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통계청 보도자료. 2019. 1. 9. 보도
- 통계청.(2019b).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취업자 수/실업률 추이.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063에서 2019. 9. 2. 인출
- 통계청. (2019c).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19. 7. 16. 보도.
- 통계청. (2019d). KOSIS.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242R&conn_path=I3에서 2019. 9. 2. 인출
- 통계청(2019e). 2019 청소년 통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1/index.board?bmode=read&aSeq=374490&pageNo=&rowNum=10&amSeq=&sTar

- get=&sTxt=에서 2019. 9. 2. 인출
- 통계청. (2019f). 2018년 사망원인통계 p.18. 통계청 보도자료. 2019. 9. 24. 보도
- 통계청. (2019g). 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FL_7003&vw_cd=MT_ZTITLE&list_id=B1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19. 10. 14. 인출
- 최준욱·정도진·박성환·김종현·강평경. (2018). 세대 간·세대 내 불평등과 재분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경혜. (2004).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 24(4), 87-106.
- 한경혜·주지현·정다겸. (2009). 생애과정 관점에서 본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사회적 배제 경험과 적용. 한국가족복지학, 26, 87-122.
- 한귀영. (2018). 한겨레 프리즘- 20대의 잘못이 아니다. 2018년 2월 11일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31815.html>에서 2019. 9. 2. 인출.
- 한귀영. (2016). 5개의 키워드로 살펴본 헬조선 청년들의 의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www.kdemo.or.kr/blog/youth/post/1202>에서 2019. 9. 2. 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1~13차 한국복지패널[데이터파일].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19. 5. 27. 인출.
- 허진무, 김희진, 심윤지, 탁지영, 조문희. (2019). [90년대생 불평등 보고서]'스펙'안에 '계급' 있다. 2019년 9월17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9170600025에서 2019. 10. 14. 인출
- 환경부. (2019).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 현대경제연구원. (2018).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5대 특징과 시사점. 경제주평. Barbarin, O., Bryant, D., McCandies, T., Burchinal, M., Early, D., Clifford,

- R., ...Howes, C. (2006). Children enrolled in public pre-K: the relation of family life, neighborhood quality, and socioeconomic resources to early compet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 265-276.
- Ben-Shlomo, & Y., Kuh, D. (2002). A life course approach to chronic disease epidemiology: Conceptual models, empirical challenges an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1, 285-293.
- Bradley, R. H., & Corwyn, R. F.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371e399.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doi:10.1191/1478088706qp063oa
- Chauvel, L. (2017). Comparing Welfare Regime Changes: Living Standards and the Unequal Life Chances of Different Birth Cohort 1. In *Consumption and Generational Change*. 171-197. Routledge.
- Clausen, John A. (1986): *The Life Course. A Sociological Perspective.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Creswell, J. W., & Plano Clark, V. L. (2017).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Sage Publication.
- Dannefer D. (2003). 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and the life course: cross-fertilizing age and social science theor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8(6), 327-337.
- Dearing, E. (2008). Psychological costs of growing up poor.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136, 324-332.
- DiPrete, Thomas A. (2002): Life course risks, mobility regimes, and

- mobility consequences: A comparison of Swede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8, 267-309.
- DiPrete, T. A., & Eirich, G. M. (2006). Cumulative advantages as a mechanism for inequality: A review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developme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2, 271-297.
- Duncan, G. J., Telle, K., Ziol-Guest, K. M., & Kalil, A. (2009). *Long-run impacts of early childhood poverty: Comparative evidence from Norwegian registry data and the U.S. PSID. The long-run impact of early life events II*. National Poverty Center, University of Michigan.
- Duncan, G. J., Ziol-Guest, K. M., & Kalil, A. (2010). Early-childhood poverty and adult attainment, behavior, and health. *Child Development*, 81, 306-325.
- Elder, G. H. (1998). The life course as developmental theory. *Child Development*, 69(1), 1-12.
- Erikson, Erik H. (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Norton Press.
- Gibbs, S. J., Fergusson, D. M., & Horwood, L. J. (2012). Childhood family income and life outcomes in adulthood: Findings from a 30-year longitudinal study in New Zealand. *Social Science & Medicine*, 74(12), 1976-1986.
- Hobcraft, J., & Kiernan, K. (2001). Childhood poverty, early motherhood and adult social exclus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2, 495-517.
- Ju, E. (2009). *Long-term Effects of Head Start Enrollment on Adulthood Educational Attainment and Economic Status: A Propensity Score Matching Approac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Lakey, J., Barnes, H., & Parry, J. (2001). *Getting a chance: Employment support for young people with multiple disadvantages*. Joseph Rowntree Foundation.
- Lundberg, O. (1997). Childhood conditions, sense of coherence, social class and adult ill health: exploring their theoretical and empirical relations. *Social Science & Medicine*, 44, 821-831.
- Mannheim, K. (1952): The sociological problem of generations. In: P. Kecskemeti (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NY: Routledge and Paul. 276-322.
- Mayer, K. U., Maas, I., & Wagner, M. (1999).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social inequalities in old age. In *The Berlin Aging Study: Aging from 70 to 100*, eds. PB Baltes, KU Mayer, pp. 227-58. Cambridge, UK: Cambridge Univ. Press.
- Mayer KU. (2005). Life courses and life chance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Analyzing Inequality: Life Chances and Social Mobility in Comparative Perspective*, ed. S Svallfors. 17-55. Palo Alto, CA: Stanford Univ. Press
- McLeod, J. D., & Shanahan, M. J. (1996). Trajectories of poverty and children's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7, 207-220.
- Melchior, M., Moffitt, T. E., Miline, B. J., Poulton, R., & Caspi, A. (2007). Why do children from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families suffer from poor health when they reach adulthood? A life-course stud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66, 966-974.
- McLaughlin, Juliana. Mohok. (2011). Lost in translation: Partnerships for authentic education in Papua New Guinea. *International Education Journal: Comparative Perspectives*, 10(2). 86-98.

- Muffels, R. (2013). Exposure to single and multiple risks of youngsters in their early career in Britain: Continuous or cumulative disadvantage?.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2539586>.
- Murray, C. J., & Lopez, A. D. (1996). Evidence-based health policy-Lessons from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Science*, 274(5288), 740-743.
- OECD. (2006). *Society at a Glance*.
- OECD. (2016). *Society at a glance*.
- OECD. (2017).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indicator. <https://data.oecd.org/youthinac/youth-not-in-employment-education-or-training-neet.htm>
- OECD. (2019a). 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각 연도.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D#에서 2019. 9. 2. 인출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 OECD, (2019b).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EC_I에서 2019. 9. 2. 인출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 O'Rand, A. M. (1996). The precious and the precocious: understanding cumulative disadvantage and cumulative advantage over the life course. *Gerontologist*, 36, 230-238.
- O'Rand, A. M. (2002). Cumulative advantage theory in life course research.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22(1), 14-30.
- O'Rand, A. M. (2006). *Stratification and life course: Life course capital, life course risks and social inequality*. In Robert H. Binstock & Linda K.
- Poulton, R., Caspi, A., Milne, B. J., Thomson, W. M., Taylor, A., Sears,

- M. R., Moffitt, T. E. (2002). Association between children's experience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adult health: a life-course study. *The Lancet*, *360*, 1640-1645.
- Ross, C. E., & Wu, C. L. (1996). Education, age, and the cumulative advantage in health. *Journal of Health Social Behavior*. *37*, 104-120.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8). Democracy Index 2018. <https://www.eiu.com/topic/democracy-index>에서 2019. 9. 2. 인출.
- Williamson, D. L., Salkie, F. J., & Letourneau, N. (2005). Welfare reforms and the cognitiv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96*, 13-17.
- Wilson, E. O. (1975). *Sociobiology: The new synthesis*.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World Bank. (2019). GDP Dat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에서 2019. 9. 2. 인출.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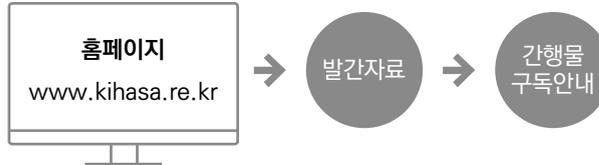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